

인권정보자료실
Mm1.9

바람직한 재외동포정책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5개국(한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헝가리)의 정책 분석과 비교}

The International Symposium

“The Ethnic Diaspora Policies of China, Hungary,
Israel, Korea and Russia”

2004년 9월 10일 (금)
국회도서관 대강당

September 10, 2004
Grand auditorium,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주최 KIN, 세계한상문화연구단, 한민족평화네트워크
후원 김형주 의원실 (열린우리당)

Co-organized by KIN(Korean International Network)
Global Korean Network Business and Culture
Korean Peace Network (Congressional Research Group)
Sponsored by Hyung-joo Kim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바람직한 재외동포정책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한민족평화네트워크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지구촌동계평화네트워크
연구소

인권정보자료실
Mm1.9

바람직한 재외동포정책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5개국(한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헝가리)의 정책 분석과 비교}

The International Symposium “The Ethnic Diaspora Policies of China, Hungary, Israel, Korea and Russia”

2004년 9월 10일 (금)
국회도서관 대강당

September 10, 2004
Grand auditorium,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주최 KIN, 세계한상문화연구단, 한민족평화네트워크
후원 김형주 의원실 (열린우리당)

Co-organized by KIN(Korean International Network)
Global Korean Network Business and Culture
Korean Peace Network (Congressional Research Group)
Sponsored by Hyung-joo Kim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임시포섭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한 연구보고서
(주)비즈니스포럼 발행 | (15년 10월 10일)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가 11-1호 (동) 1101호

The International Symposium
"The Ethnic Diaspora Policies of China, Hungary,
Israel, Korea and Russia"

2004년 10월 10일 (금)
상당사상회 주최

September 10, 2004
Grand Auditorium,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주최: KIN(국제한국인망)·한국문화진흥재단·KIN(주)비즈니스포럼
주최: (주)비즈니스포럼

Co-organized by KIN(Korean International Network),
Global Korean Network Business and Culture,
Korean Peace Network (Congressional Research Group)
Sponsored by Hwang Joo Kim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행사취지

세계 각처에 거주하는 코리안 재외동포는 일제 식민지통치에 의한 이주로부터 최근의 다양한 목적에 의한 이민까지 남한 인구의 15%가 넘는 약 7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일제 하에 이루어진 강제연행, 독립운동, 생계의 연명을 위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으로 이주한 동포이며, 그 밖에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미국, 유럽 등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다.

재외동포는 거주국에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 분야에서 곳곳하게 생활해오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한국의 경제적 위기, 세계적 행사, 남북관계의 진전, 민주화 과정 등 국가적 애로사항에 기여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포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거주국의 정책, 거주국의 사회·문화, 세대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나, 직간접적으로 모국 사회로부터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 정부의 정책의 방향, 실효성, 정부의 의지가 문제시 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은 어떠했는가? 재외동포 생성의 다대한 영향을 미친 역사적 질곡에 대한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을 찾아볼 수 없고,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관심과 보호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이 만연하다. 세계화 조류에 따른 동포들의 국경을 넘는 왕래와 교류·체제가 빈번해지고, 동포에 대한 국가적 자원론 또한 팽배해지고 있으나, 정부는 재외동포를 위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정책 수립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교부는 외교적 마찰의 가능성만을 내세우며 무위로 일관하고 있는 무능력과 무책임함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철학의 재정립과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 및 효과적인 정책 집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각국의 최고 전문가를 국내에 직접 초빙해 외국의 동포정책 사례를 정부와 시민사회에 널리 알려 한국의 바람직한 재외동포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토대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13:00 - 13:05 개회사 임채완 (전남대 교수, 세계한상문화연구단장)
 13:05 - 13:10 환영사 이화영 (한민족평화네트워크 공동대표, 국회의원)

[제1회의] 한국의 정책

사회: 노영돈 (인천대 교수)

13:10 - 13:40 (1) 한국의 정책
 이종훈 (국정경영원장)
 13:40 - 14:00 토론
 이준규 (외교부 재외국민영사국장)
 배덕호 (KIN 대표집행위원)
 14:00 - 14:10 휴식

[제2회의] 헝가리, 이스라엘의 정책과 시사점

사회: 노영돈 (인천대 교수)

14:10 - 14:40 (2) 헝가리의 정책
 Bálint A. Theisz (재외헝가리민족처 사무국장)
 14:40 - 15:00 토론
 이철우 (성균관대 교수)
 15:00 - 15:10 휴식
 15:10 - 15:40 (3) 이스라엘의 정책
 Sergio DellaPergola (유태인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히브리대 교수)
 15:40 - 16:00 토론
 최창모 (건국대 교수)

[제3회의] 중국, 러시아의 정책과 시사점

사회: 노태구 (경기대 교수)

16:10 - 16:40 (4) 중국의 정책
 정신철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16:40 - 17:00 토론
 이진영 (인하대 교수)
 17:00 - 17:10 휴식
 17:10 - 17:40 (5) 러시아의 정책
 Zatulin Konstantin (CIS문제연구소장, 국회의원)
 17:40 - 18:00 토론
 김형주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Program

13:00 - 13:05	Welcoming Remarks
13:05 - 13:10	Opening Address
[Section 1]	
moderator: Yeong-don Loh (Univ. of Incheon)	
13:10 - 13:40	(1) Korean Policy Jong-hoon Rhee (president, Institute of Governance and Management)
13:40 - 14:00	Discussion Joon-gyu Lee (Director General, Overseas Residents and Consul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eok-ho Bae (Representative of the executive committee, KIN)
14:00 - 14:10	Coffee Break
[Section 2]	
moderator: Yeong-don Loh (Univ. of Incheon)	
14:10 - 14:40	(2) Hungarian Policy Bálint A. Theisz (Head of the Secretariat of the President, Government Office for Hungarian Minorities Abroad)
14:40 - 15:00	Discussion Chul-woo Lee (Univ. of Sungkyunkwan)
15:00 - 15:10	Coffee Break
15:10 - 15:40	(3) Israeli Policy Sergio DellaPergola (The A. Harman Institute of Contemporary Jewry, The Jewish People Policy Planning Institute,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15:40 - 16:00	Discussion Chang-mo Choi (Univ. of Konkuk)
[Section 3]	
moderator: Tae-goo Noh (Univ. of Kyunggi)	
16:10 - 16:40	(3) Chinese Policy Xinzhe Zheng (Professor,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16:40 - 17:00	Discussion Jin-young Lee (Univ. of Inha)
17:00 - 17:10	Coffee Break
17:10 - 17:40	(4) Russian Policy Zatulin Konstantin (President, Russian Institute of diaspora and integration Member of Parliament)
17:40 - 18:00	Discussion Hyung-joo Kim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Korea)

주최 소개

□ KIN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지구촌동포청년연대)

KIN은 과거 일제 식민지 시기, 남북분단, 냉전의 시기를 거쳐 형성되었고, 170여 개국 70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들의 험난했던 역사와 거주국에서의 소수자로서의 인권적 현실에 초점을 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KIN은 수십 년 간의 역사적 소외를 감내하면서도, 민족교육, 동포인권, 민족문화,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 등의 문제에서 주체적 활동을 전개해온 각 재외동포 사회의 소중한 경험을 존중하며, 이들 재외동포와 함께 아래와 같은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 주요 활동
- 각 국 동포간 교류사업
 - 동포사회 및 지구촌공동체 관련 교육·홍보사업
 - 동포 관련 정책 연구 및 대안 개발
 - 동포지원 협력사업 및 국제연대활동

△ 사무국 (121-80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90-16번지
Tel. (02)706-5880 Fax. (02)706-5881
e-mail kin@kin.or.kr 인터넷 http://www.kin.or.kr

□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세계한상문화연구단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 인문사회분야 지원연구비와 전남대학교 특성화 지원연구비 및 연구공간 제공 등의 대응투자로 주관연구기관인 전남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원에 설립되었다. 이 과제는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지원과제에 제출하여 5단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다. 이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인원은 76명(연구책임자 1명, 공동연구자 37명, 전임연구자 13명, 연구보조 25명)이다. 이 분야에서 국내 최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제의 연구컨소시엄 참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인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산하 5개 연구소, 서울, 영호남지역 5개 대학연구소, 학회 및 민간연구소 4개, 그리고 일본 오사카시립대학교 국제경제연구소등 4개 해외연구협력기관 등이다.

이 연구의 중심내용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600만 재외한인을 중심으로 그들의 경제환경, 경영활동, 무역 등 한상 및 한상네트워크의 실태조사, 교육, NGO, 언론, 인권, 집거지사회문화, 정보자원, 여성 등 한민족문화공동체 조사이다. 이러한 연구는 중국 외자유치의 60~80%를 담당하고 있는 화상(華商)과 4억의 아랍국가들을 상대로 생존하고 있는 600만 유대인에서 보여주는 예와같이 재외한인의 민족자산을 위한 큰 토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기업의 대외무역활동에서 해외거점 확보 및 해외투자정보 제공, 한상자본의 유치를 통한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에 활용, 재외한인의 경제환경과 성공사례 및 해외투자에 대한 종합정보 DB제공, 한상포털사이트 제공 등에 활용될 것이다.

http://www.hansang.or.kr e-mail:kaenast@hanmail.net 전화 (062) 530-2701-5

□ 한민족평화네트워크

○ 목적

국회차원에서 전세계에 흩어져있는 한민족의 역량을 모아 민족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동북아시아에서 평화 경제 공동체의 건설에 기여한다.

○ 사업내용

1. 한민족 교류 및 협력
2. 남북관계 연구, 동북아평화시대 기반 마련
3. 동북아 에너지, 식량, 환경 문제 극복 방안 마련
4. 동북아 시대 준비할 기업 육성 및 지원
5. 외국 국회와의 에너지, 물류 수송 관련 공동연구
6. 동북아경제통합시대 준비

○ 의원구성

열린우리당(총9명)

이화영의원, 조정식의원, 김현미의원, 김형주의원,
민병두의원, 백원우의원, 서갑원의원, 이광재의원, 이기우의원

한나라당(총13명)

고진화의원, 배일도의원, 김영선의원, 김석준의원, 박계동의원, 박순자의원,
안명옥의원, 엄호성의원, 원희룡의원, 유기준의원, 이재웅의원, 주성용의원, 진수희의원

민주노동당(총2명): 심상정의원, 이영순의원

(공동대표: 이화영 열린우리당 의원,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 주요 현안 -

이 종 훈(정치학 박사, 국정경영원 원장)
rheehoon@naver.com, www.rheehoo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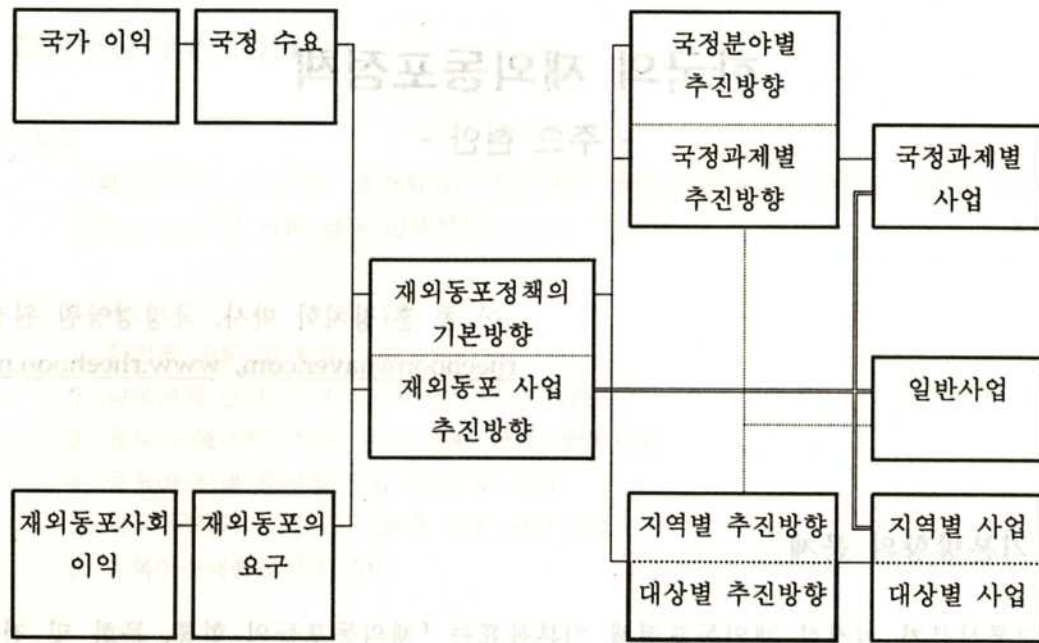
1. 기본방향의 문제

외교통상부가 설정한 재외동포정책 기본목표는 「재외동포들의 혈통, 문화 및 전통의 뿌리가 한국에 있음을 유념하면서 거주국 사회 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또한 존경받는 모범적인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법, 국내법 및 거주국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목표에 따라 설정한 기본 추진방향은 ①재외동포들의 자조노력을 권장·지원하고 ②재외동포들이 거주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거주지역 사회내에서 융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며 ③재외동포들의 요구에 기초하여 언어·전통문화·예술 등의 차원에서 지원하고 ④자유·민주·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재외동포 사회의 발전 지원하고 ⑤재외동포들의 거주국내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⑥재외동포들의 한국 내에서의 투자 등 경제활동의 장려와 재산권 행사 등 이익보호를 위한 국내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은 1996년 5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으로서 이후 특별한 방향조정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재외동포정책은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의 하나인 만큼 국가전략과 국정방향에 기초하여야 하며, 동시에 정책 수혜대상인 재외동포 사회의 요구도 반영하여야 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 사업의 추진방향 설정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종훈외, 1999, “주요 국정지표에 기초한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과 재외동포재단 중장기 사업계획”, 재외동포재단 : 37 참고).



이러한 구조를 참고로 할 때 현재의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은 (1)국익에 기초한 전략적 접근의 부재 (2)국정방향에 대한 연계성의 부족 (3)대상별 정책의 부재 (4)지역별 정책의 부적절성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장 먼저 재외동포정책이 정책으로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장기적인 국가전략이나 국정방향에 기초를 두어야 하지만, 이러한 측면에 대한 고려는 전무한 실정이다. 참여 정부는 (1)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2)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3)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국정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며, 12대 주요 국정과제로 (1)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2)부패 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3)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4)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5)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6)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7)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8)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9)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10)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11)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12)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재외동포와 관련하여서는 위의 국정과제 가운데 (5)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영역의 주요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인 '남북 경제교류협력 촉진 및 대외 환경 조성' 분야의 부분 과제로 '한상 네트워크 등 분야별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추진'을 포함시키고 있다.

참여 정부가 설정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영역과 재외동포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외동포는 상당히 광범위한 국정 영역과 관련성

을 맺고 있다. 재외동포 관련 법률과 시행령 기타 규칙이 총 457건, 관련 조문이 총 1148이라는 한 조사연구가 이것을 반증해주고 있다(백충현외, 1999, 재외동포관련 입법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검토, 재외동포재단). 향후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이라는 중장기 국가전략 목표는 물론 개별 국정과제와 연관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별 재외동포정책 추진도 필요한데, 여기에는 현지 정부의 소수민족정책, 현지 동포 사회의 실상과 요구 사항 같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나름대로 지역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보완할 여지가 많은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재외동포정책의 추진방향은 ①재외동포 사회의 미국 주류사회 진출 장려 ②재외 우수동포의 국내 적극 유치 등을 통해 세계화 추진에 대한 이들의 기여를 장려 ③재외동포 2세에 대한 정체성 유지 및 민족 전통문화 교육지원 ④국내활동 편의증진을 위한 국내법 및 제도의 지속개선 추진에 두고 있으며, 재외동포정책의 추진방향은 ①재외동포가 중국 국민이라는 인식의 바탕위에서 중국내에서 조선족 사회를 유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②정치적 색채가 없는 경제·교육·문화 등 분야에 중점을 두어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추진 ③건전한 우리 기업의 동북3성 등 재외동포 밀집지역 진출을 장려하고, 현지 기술연수도 강화 ④재외동포의 국내 밀입국 및 불법취업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⑤중국 당국과 마찰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외동포의 한국방문 연구, 학교 지원을 강화에 두고 있고, 재외동포정책의 추진방향은 ①우리 국적 보유 재외동포가 법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들의 일본내 법적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 ②재외동포 기업가의 한국경제에 대한 유대성 강화를 지원하고 이들이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 ③2, 3세를 중심으로 한 청년회 육성 지원, 한국어, 한국역사 교육 등 민족교육 강화 및 전통문화 계승 노력 지원에 두고 있으며, 재외동포가연합동포정책의 추진방향은 ①한국어 보급과 우리 전통문화, 민족교육을 통한 동질성 회복 정책에 중점을 두어 지원 ②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각종 협회, 문화센터, 한글학교 등 동포조직을 통해 간접지원 ③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시 현지 동포 우선 채용에 두고 있다.

이러한 지역별 정책 기본방향은 현재에도 유의미한 것이 적지 않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국정방향의 변화에 따라, 현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

재외동포는 사실 다양한 집단을 포괄하고 있는 까닭에 대상별 정책의 수립과 추진도 필요한데, 이러한 점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 재외동포를 크게 두 범주, 곧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있는데, 재외동포 가운데 약 1/3 정도가 재외국민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재외동포 대부분과 재외동포 가운데 절반가량이 여기에 속한다. 재외국민에는 주재원, 유학생 같은 해외 장기체류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우리는 또한 재외동포를 지역별로 재외동포, 재외동포, 재외동포, 재외동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정 집단별로 해외입양인, 해외이민자, 해외 장기체류자, 무국

적자, 역이민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컨대,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해외이민자와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한 정책이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별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의 정책 흐름을 보면 재외동포정책이 대상별로 특히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것으로 분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양자가 밀접한 상관관계 하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더욱 세분화 전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재외동포 관련 법 정비 문제

현재 국회에서는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이 동시에 추진 중인데, 두 법은 대상과 범주 면에서 차이가 있다. 재외동포기본법은 대상 면에서 재외국민은 물론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하며, 출입국, 경제활동, 각종 지원, 추진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에, 재외국민기본법은 대상 면에서 재외국민, 이 가운데에서도 영주권자를 제외한 순수한 해외 장기체류 국민을 주로 포함하며, 평시 영사보호나 지원보다는 비상사태 발생시에 긴급구난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재외국민보호법의 내용까지 통합하여 평시 영사보호는 물론 비상시 영사보호 그리고 지원까지 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재외동포기본법을 모범 형태로 하면서 재외국민보호법에서는 비상시 영사보호를 주로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해당 재외국민의 가족 가운데 국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향후 재외국민보호법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정을, 재외동포기본법에 대해서는 혈통주의 입법 반대 논리를 내세워 제정 반대 의견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는데, 재외동포법 제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

3.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 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 의견을 지난 총선거 직전에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선거행정 업무의 증가에 따른 부담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사관 직원도 재외국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한다. 더욱이 OECD 가입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만 참정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를 무조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

각한다.

외교부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이 이뤄진다면,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는 차기 선거 직전에 이뤄질 선거법 개정 협상에서 여야간에 특별한 이견 없이 합의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 가장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참정권 허용 범위이다. 곧 주민등록이 살아 있는 해외 장기체류민에 대해서만 허용 할 것인가 아니면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해외이민자에 대해서도 허용할 것인가가 그것이다. 일차적으로 해외 장기 체류민에 대해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어떨까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해외 장기체류민 →국내 장기체류 재외국민→해외 영주권자 순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해외 장기체류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를 전제로 선거일 현재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최고 8년 또는 10년까지 아니면 최고 2회까지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투표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투표권 행사 대상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로 하되,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일단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도록 하고, 투표방식은 재외공관투표와 우편투표 그리고 인터넷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

4. 재외동포정책 추진체계의 문제

재외동포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이다. 1996년 2월부터 기존의 「재외국민정책심의위원회」를 대신하여 활동을 시작한 이 위원회의 장은 국무총리이며, 15인 이내의 위원은 행정자치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같은 유관 부처 장관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이다.

이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①재외동포의 정착 지원 ②재외동포의 법적 사회적 지위 향상 ③재외동포에 대한 유대강화 ④재외동포의 국내외 경제활동 ⑤재외동포 관련 부처별 사업계획의 조정과 심의 ⑥기타 재외동포관련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여한 내용에 관한 심의·조정이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조직 이후 초기에 재외동포재단 설립 건과 재중동포에 대한 지원 대책 같은 현안을 처리하였으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외동포정책에 큰 전환점을 가져온 재외동포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현재까지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재외동포와 관련하여 처리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사실상 기능 정지는 문제가 아닐 수 없으므로 기능 정상

화와 강화 필요하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기능 정상화 또는 강화와 관련하여 결정사항을 강제할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은 이 위원회에 집행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 대만이나 중국의 화교교무위원회처럼 실무조직 형태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총리실 산하 위원회에 실무조직을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 대통령 직속의 독립행정위원회로 격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재외동포정책의 주무부처는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 재외국민이주과이다. 재외국민이주과에는 현재 5명의 직원이 재외동포 관련 업무와 해외이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은 영사업무를 외교업무로부터 분리하여, 재외국민영사국을 독립 조직 개념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재외국민영사국 직원과 각 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영사업무 전담요원을 일반 외교관과 별도로 채용하여 배치하도록 하며, 현지 요원 가운데 일부는 동포사회에서 충원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외무고시에 영사직 별도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적절한 수준의 관련 조직 확충 곧 재외국민해외이주과의 확대 또는 과 분리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곧 재외국민1과(정책총괄, 재외국민, 해외이주)와 재외국민2과(지역별정책, 외국국적동포)로 분리하거나, 과거와 같은 지역별로 나눠 재외국민1과(미국, 일본), 재외국민2과(중국, 러시아)로 분리하는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내의 사무국 설치 문제와 연관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내에 사무국을 설치할 경우에는 외교통상부 내 조직의 확충은 불필요하다.

재외동포 관련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1997년 10월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으로 발족한 「재외동포재단」이다. 재외동포재단은 설립 이후 많은 사업을 벌여 왔는데, 다양한 사업을 직접 시행함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초기에 설정한 기초 사업을 소홀히 함에 따른 악순환의 되풀이 같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장기적인 비전 제시 부족과 역대 이사장의 운영 역량 부족도 문제점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재검토하는 한편, 운영 면에서도 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다.

5. 재외동포 관련 사업과 예산 문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은 현재 여러 부처에서 분산 시행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다음

과 같다.

소관 부처	사 업 명	예 산	
		2002년	2003년(안)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	○ 재일민단 등 재외동포단체 지원	9,763,000	9,679,000
	○ 재외동포사회 실태조사 및 사이버교민청민원실 운영 등 조사연구사업	376,000	356,000
	○ 한민족문화제전 및 재외동포 문화예술지원사업 등 문화사업	982,000	1,254,000
	○ 홍보자료 발간사업 등 홍보사업 - 한국어뉴스 세계위성방송망 구축	482,000	1,450,000
	○ 재외동포사회 교류촉진 및 재외동포센터 건립사업 등 교류사업	2,449,000	1,790,000
	○ 민족교육지원 및 재외동포 초청 교육연수사업 등 교육사업	3,096,200	4,130,000
	○ 한상네트워크운영 등 경제사업	1,443,300	1,600,000
	○ 한민족네트워크운영 등 정보화사업	1,000,000	1,498,000
	소 계	19,591,500	21,757,000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진흥원)	○ 재외동포교육(재외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 운영 등)	26,436,692	29,611,474
	○ 재외동포 국내초청 교육과정 - 장단기 모국수학 등	499,876	1,399,412
	○ 중국 및 중남미 동포학생 국내연수 및 해외입양인 교육과정	193,082	153,043
	○ 재외동포 교육용 교재 개발·보급 - 한국어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등	969,395	1,159,926
	○ 재외동포 교육관계자 및 동포교육 전문교원 연수	97,732	149,020
	소 계	28,196,777	32,472,875
문화관광부	○ 세계한민족축전	658,933	669,000
	○ 한국어 전문과 파견 및 한국어 교사 초청 사업	54,000	33,000
	소 계	712,933	702,000
통일부	○ 재외동포 대상 통일정책 홍보 - 세계한민족 통일문제 대토론회, 미주지역 통일정책 포럼 등	183,599	184,572
	소 계	183,599	184,572
국가보훈처	○ 독립운동 관련인사 초청 교류행사 지원	39,700	40,000
	소 계	39,700	40,000
총 계		48,724,509	55,156,447

이러한 각 부처의 사업 가운데에는 재외동포재단 설립 당시 이관하기로 했던 사업

도 적지 않은데, 향후 이관의 적절성 판단을 전제로 필요할 경우 이관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분산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사업을 시행하는 부처는 외교부, 재외동포재단이다.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적절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가 이다. 둘째,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가 이다. 이 두 부분에서 모두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 아닌가 여겨진다(좀 더 자세한 평가 내용은,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2002, 12, "재외동포정책 평가결과", 참고 바람).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운영 역량과 관련한 것으로 예산 문제를 들 수 있다. 재외동포 사회의 폭발적인 요구 증가, 인구 대비 재외동포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재외동포 관련 예산의 증액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물론 재외동포재단 측의 신규 사업 발굴 노력 부족, 예산 증액의 합리적 근거 제시 능력 부족, 방만한 고 산만한 사업 운영, 외교부 본부 중심의 예산 운영으로 말미암아 적절한 예산 확보에 실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방만한 예산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는 차원에서 기획예산처는 각종 기금과 정부 산하기관의 통폐합을 추진 중인데, 이러한 조치의 사정권에 재외동포재단도 놓여 있다. 얼마 전 기획예산처는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예산을 외교부 내의 또 다른 기관인 국제교류재단의 예산 원천인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 할애 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정부 지원 예산을 줄이는 1차 조치에 해당한다. 이러한 1차 조치에 이어 얼마 전에는 각종 기금을 통폐합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국제교류기금은 우선 폐지 대상이다. 곧 폐지될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예산을 할애 받도록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기획예산처는 재외동포재단 설립 초기부터 예산 배정에 강력 반대해왔다. 또한, 외교부 산하의 3개 기관 곧 국제협력단,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의 통폐합에도 적극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교류기금의 폐지와 관련하여 국제교류재단은 물론 재외동포재단도 국제협력단으로 통폐합하려 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통폐합이 국익의 관점에서나 재외동포의 관점에서 타당한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헝가리의 재외동포정책 사례-

Bálint A. Theisz

Head of the Secretariat of the President,
Government Office for Hungarian Minorities Abroad
재외헝가리동포처 사무국장

헝가리의 재외동포 문제와 헝가리 민족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이 사례와 발달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현재 추구하고 있는 민족 정책을 국가와 사람과 연관 지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헝가리 공화국은 중부 유럽에 위치한다. 93 030 km²의 면적으로 남한 땅과 비슷한 크기이다. 천만이 조금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지금의 영토와 인구를 갖춘 헝가리는 제1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들이 오스트리안-헝가리 제국을 쪼개면서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로 구성된 기존의 중간규모의 정치적 경제적 연합국가 대신에, 승전국들은 나라를 다섯 개의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한 "반 국가" 들로 나누었으며 그 중 성공적인 국가는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가 있고, 상당수의 소수민족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다른 요인과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잘 알려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1920년 Trianon 평화조약에 의해 헝가리는 영토의 2/3을 잃었고 헝가리 민족의 1/3 을 잃었다. 평화조약에서의 가장 큰 손실을 본 사람들은 바로 헝가리 민족이었다. 위의 국가들에 약 4백만의 사람들을 내어주어야 했다. 헝가리 민족들은 예전부터 그들이 살던 곳에서 헝가리 시민권을 잃고 전혀 낯선, 대부분은 적대적인 환경에서 살아가야 했다.

1차대전과 2차대전 사이에 헝가리는 변경된 국경을 되찾고 헝가리의 민족적 영토의 수복하는 것이 정책의 주된 목적이었는데, 이는 주로 그 동안의 손상과 이후의 국제적 대외정책의 붕괴 혹은 국제연맹의 실패로 초래된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1938년과 1941년 사이에 부분적으로 성공했는데, 나라가 과거의 헝가리 영토의 헝가리 민족이 우세하게 많던 지역에 주권을 확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 제2차대전에서 패배한 이후로, 1947년 파리 평화조약에 따라 헝가리의 국경은 1938년 이전의 것으로 되돌려지고 고정되어, 헝가리는 되찾았던 영토를 다시 잃게 되었다. 지난 반 세기 동안, 공산주의 시기에는 대외민족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다루어지지 않았다. 1949년에 공산정권 수립 후 80년대 후반까지는 재외동포문제에 대해 말하거나 쓰거나 심지어 언급하는 것조차 당시 정치체제에 있어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이었다.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된 후 새롭게 세워진 민주주의 정부는 헝가리 대외민족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정립했다. 90년대 초반에 헝가리 대외 정책의 세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유럽-대서양을 아우르는 통합, NATO 와 EU 회원국 진입
- (2) 인접국과의 친밀한 유대관계
- (3) 민족 정책, 즉 영토 밖의 헝가리 소수 민족들에 대한 지원

위에서 언급한 대로, 헝가리 재외동포정책의 사례는 아주 복잡하다. 역사적 연유로 헝가리 민족은 헝가리 주변 국가에 대규모로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이산민(diaspora)으로서 분산되어 살고 있다. 주변국가에 살고 있는 헝가리 민족은 그들이 한번도 떠난 적 없는 고향에 살고 있는 셈이지만, 그들은 단지 국경에 의해 갈려 있을 뿐이다. 세계 곳곳에 -주로 서반구에- 흩어져 살고 있는 헝가리민족은 정치적, 경제적 이유 때문에 헝가리를 떠났거나 강제이주 된 사람들이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헝가리 민족의 1/3 이 헝가리 영토 바깥에서 살고 있다는 점이다.

헝가리 공동체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루마니아에 있다. 최근의 루마니아 공식 인구조사에 의하면 150만 헝가리 사람들이 트란실바니아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지역 헝가리 민족의 수는 180만에 달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국경지역에 살고 있다. 한편 고대부터의 헝가리 민족인 Sekler 민족은 70만명 정도가 헝가리와 루마니아를 잇는 국경에서 500 키로 떨어진 트란실바니아의 동쪽에 거주하고 있다.

슬로바키아의 남쪽에는 헝가리 국경을 따라서 60만명 정도의 헝가리 민족이 살고 있다. 헝가리 민족은 또한 Serbia-Montenegro 의 Voivodia 지역의 북쪽에도 30만명이 넘게 살고 있다. Ukraine와 헝가리와의 국경지역에도 비교적 큰 헝가리 민족 공동체가 존재한다. 우크라이나의 서쪽의 Transcarpathia 지역에는 18만명에 다다른 헝가리민족이 살고 있다.

크로아티아에는 2만명이, 슬로베니아에는 1만명이, 오스트리아의 동쪽에 위치한 Burgenland 지역에는 7000 명의 헝가리 민족들이 아직도 그들의 민족성을 유지하며 살고 있다.

또한 헝가리 민족은 Carpathian-basin, 즉 1920년대까지 존재했던 헝가리 왕국 영토의 지리적 단위의 바깥에서도 살고 있다. 지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은 250만명이 넘는다. 인구조사와 다양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럽에는 35만명이, 북아메리카에는 대략 190만명의 헝가리 민족이 살고 있다고 한다.

정책의 주목적

정책의 기본적인 목적으로 정부와 다른 비정부 기관과 재단들은 헝가리 국경밖에 살고 있는 헝가리 민족의 정체성의 보존을 추구한다.

헝가리의 대외민족정책의 주요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주변국가에 살고 있는 헝가리 민족에 있어서는 공동체의 보호와 유지, 그리고 재산권의 보호가 최우선
- (2) 헝가리 이산민(diaspora)에 있어서는 헝가리어를 쓰지 않는 환경에서의 정체성의

보존이 가장 큰 이슈

- (3) 위의 두 그룹에 있어서 민족 공동체나 민족 조직에 대한 문화적, 정신적, 재정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

이 원칙들은 공화국의 헌법에 의해 규정되었고, 공산주의로부터 다원적 민주주의로의 전환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주요한 사안으로 의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헝가리 공화국 헌법 (소수민족 정책과 관련된 부분)

"제 1장
일반 조항

.....
제 6조

(1) 헝가리공화국은 나라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전쟁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의 영토합병과 독립운동에 대항하여 무력을 쓰는 것을 자제한다. 또한 무력을 사용한 위협을 자제한다.

(2)헝가리공화국은 세계 모든 국가와 민족과 협력한다.

(3) 헝가리공화국은 국경 밖의 헝가리 민족들에게 생기는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들의 헝가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촉진한다.
....."

이러한 목표를 위해 헝가리는 인접국들과 우호정책을 펼치고 포괄적인 쌍방 협력관계를 계속하며 동시에 세계 곳곳의 재외동포들과 그들의 미래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헝가리는 특히 쌍방의 협력에 중점을 둔다. 헝가리는 주변 국가들과 서로의 영토에 있는 자국 민족들을 보호하기로 하는 여러 협정을 맺었다. 대부분의 경우 "정부간 공동 위원회" 라는 특별한 기구가 세워졌다. 이러한 국제 위원회들은 보통 일년에 한번 모임을 갖는데 이는 동포들의 보호라는 분야에 있어서 쌍방의 협력을 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임들은 헝가리 정부와 같은, 포괄적으로 정부 결의안을 제정하고 이를 의무화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상대방 국가들이 항상 헝가리의 관습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헝가리는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헝가리 재외동포 공동체와 민족 자체의 문제를 이슈화하고 가시화하는 것이 대외 정책 관계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최근에는 EU 의 Constitutional Treaty 에 동포 문제를 보고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헝가리 재외동포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일은 문화적 프로그램과 관련 기관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다. 헝가리는 문화와 교육적 이슈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협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헝가리와 주변국가에 살고 있는 헝가리 민족들 사이에서 복잡하고 다기능적인 공적 재단이 존재하고, 이 시스템이 부분적으로 국가예산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헝가리는 국가 예산 중에서 교육적, 문화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금을 확보하고 있다. 2003년에는 9 600 000 000 HUF / 48 000 000 USD, 2004에는 10 500 000 000 HUF / 52 500 000 USD 가 헝가리 재외동포 프로그램을 위해 쓰여졌다. 이는 헝가리 국가 예산의 0.2% 에 달하는 금액이다.

<참고자료>

인접국에 거주하는 헝가리인에 관한 법률

(Act on Hungarians Living in the Neighbouring States)

(Status or Benefit law)

헝가리는 국제적인 차원의 국가간의 활동에만 치중하고 있지 않다. 지도자들은 국내의 법률제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헝가리 의회가 2001년 6월 19일에 통과시킨 "인접국에 거주하는 헝가리인에 관한 법률" (Status Law 나 Benefit Law라고도 불리는) 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법은 명백하게 헝가리계 재외동포들에 대한 헝가리 공화국의 책임에 대해 밝히고 있고 이 법에 해당하는 헝가리 민족들에게 넓은 범위의 문화적, 교육적 이득을 보장하고 있다.

국회에서 받아들여진 이 법은 많은 헝가리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두 나라-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에 의해 비판 받게 되었다. 그들은 이 법안들을 차별적이고 소수자들에 대한 유럽의 법과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이는 헝가리 관료들에게는 다소 의외의 일이었다. 두 나라 모두 비슷한 법적 조항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헝가리의 목적은 주변국가의 헝가리 동포들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형식을 갖춘 법을 만드는 것이었다.

헝가리 관료라면 헝가리 재외동포들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상으로 명시된 의무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헝가리 공무원들은 국외의 헝가리 민족의 정치적 대변자라고는 결코 하지 않는데, 이는 그들은 다른 나라의 시민임으로 그 나라에 충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가지의 소속감, 즉 자기가 속한 국가(host state)와 문화적으로 속한 국가('cultural nation')에 대한 소속감이 모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헝가리의 동포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을 살펴보았다. 사실 유럽은 나라의 민족적 배경을 반영하는 다양한 정책과 법률들을 가지고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그들이 시민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범위가 좁혀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Benefit Law 에 대한 상반되는 두 가지 반응-수락과 거부-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해 준다. 넓은 의미에서 Benefit Law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

번째는 헝가리와 헝가리 주변의 헝가리민족 공동체와의 관계를 규제하는 것, 즉 헝가리 자체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1918년 이후 외부권력에 의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사실은 헝가리 국가의 존재 자체가,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면에서, 헝가리와 인접국에 사는 헝가리 동포와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친밀함은 스위스, 벨기에의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과 프랑스와의 관계에서처럼, 한 나라와 주변 국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언어를 씀으로써, 프랑스어를 쓰는 다른 국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공통되는 점이 있고, 그러므로 프랑스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헝가리 사람들과 헝가리어를 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의 목적은 이러한 관계를 명확히 함에 있다. 결국, 정치적인 힘에서 민족문화를 완전히 분리하기는 불가능하며, 일정의 정치적 힘은 그 국가 내에서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보다 넓은 맥락에서 이 법은 근대 국가로서의 문화적 요소를 갖춘 헝가리 민족의 새로운 정체성을 마련하기 위한 역사적 장치다. 1918년 헝가리 제국의 분열은 헝가리의 근대화에 큰 걸림돌이 되었고 그 이후 헝가리는 변화하는 정세에 걸맞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는 헝가리의 유럽으로의 복귀와 EU에서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은 민주주의와, 유럽의 정세와, 헝가리내의 요구 모두를 반영하고자 했다. 그러나 문제는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은데, 이는 헝가리와 주변국가의 헝가리 민족과의 관계를 명백하게 법적인 것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에 대한 반응들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들에 관련된 법규를 가지고 있지만 위에서 묘사한 것처럼 민족성에 그다지 중점을 안 두는 상황상 대부분이 가려지고 있다. Benefit Law 는 이러한 상태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자 했지만 이는 사람들을 당혹케 했다.

헝가리는 작은 나라로서 프랑스, 독일처럼 유럽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아니다. 결국, 어떠한 나라든지 개개인의 권리 보호와, 개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문화적 집단성의 재생 둘 다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집단적 규범은 인간 활동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데 이는 이러한 규범들이 개개인이 문화적인 무지상태가 아니라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 때 그 의미를 전달하는 같은 문화적 기반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확실케 해 주기 때문이다. 이 법은 헝가리 민족에게 문화적 재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을 구현할 뿐 아니라 국민적 체제 안에서 민족성을 규범화 하고자 하는 시도에도 적합하다.

사실상, 시민권을 민족적 정체성과 분리하고 헝가리 국민들과, 다른 나라의 국민이지만 헝가리 민족인 사람들을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헝가리 법은 시민권의 개념을 강화하고 있다. 이 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법을 민족적으로만 해석하여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 법은 2001년 봄의 베니스 위원회의 '혈연국에 의한 동포우대조치'(Preferential Treatment of National Minorities by their Kin-State)에 의거하여 수정되었고, 오랜

기간의 양자회담을 통해 모든 당에게 *modus vivendi* (만족스러운 협약) 을 이끌어냈다. 2003년 하반기 동안의 긴 조정과정을 거쳐 헝가리는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 모두와 이 법의 이행을 동의하는 협정을 맺었으며, 이 결과로 헝가리는 2년 동안이나 계속된 쓸모없는 두 나라와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재외헝가리동포처의 조직 구조

헝가리 동포정책의 조직적 시스템은 매우 구체적이다. 헝가리 동포정책의 핵심은 재외헝가리동포처로, 관련된 활동들을 조정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국외의 헝가리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각 부처들은 보통 조직 내에 특별 부서를 두는데, 이 부서는 헝가리 공동체와 관련된 여러 업무들을 전문으로 담당한다. 또한 앞서 말한 부서들과 담당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재외헝가리동포처의 업무이다. 다음에는 재외헝가리동포처와 조직 구조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재외헝가리동포처의 설립

재외헝가리동포처는 정부 법령90/1992 (V.29)에 의해, 국무총리실(Office of the Prime Minister)에서 재외헝가리인사무국(Secretariat for Hungarians Abroad) 와 별도로 설립되었다.

헝가리 공공 기관 내에서의 위치

재외헝가리동포처는 정부의 지휘와 국무총리실을 이끄는 각료의 감독 아래 전국을 관할하는 행정기구이다.

주요 업무

재외헝가리인 관련 정부활동의 조정

- 재외헝가리인 관련 정부의 정책 준비에 참여, 재외동포정책의 공식화와 정책의 실행을 추진
- 전국적인 정부 각부서의 재외헝가리인과 관련된 활동, 결정, 진술에의 협력
- 재외헝가리인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 작성, 위원회들과 의회의 deputy factin과의 지속적 연락과 입법안의 공식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 재외헝가리인에 영향을 미치는 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 국제 협약을 준비하는 것, 정당한 국제 협정의 개시
- 재외헝가리인의 예산 지원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제안의 수락, 이들을 지원하는 공공 재단 활동의 조정
- 재외헝가리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활동의 조정

현 정부는 각 정부 부처들의 협력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장관들은 Hungarian-Hungarian Ties 를 유지하는 것과, 특히 위에 언급된 과업들을 시행하도록 도울 공식적 의무가 있다.

Hungarian-Hungarian Ties의 유지

- 정치적, 사회적인 기관들, 조합들, 재외헝가리인의 교회와 함께
- 재외헝가리인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비정부 조직과 함께

재외헝가리동포처는 1999년 헝가리상설회의(Hungarian Standing Conference, HSC), 즉 헝가리인들간의 자문기관을 설립함으로써 큰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이 기관은 재외헝가리인 공동체와 헝가리의 정치적인 의회 권력 사이의 제도적 틀 안에서 활동한다. 회의는 일년에 한번 규칙적으로 열린다. 이는 재외헝가리인과 관련된 정부활동을 조정하고, 헝가리-헝가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이슈들을 재고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이다.

재외헝가리동포처는 주로 이 상설회의의 일정을 잡는다. 헝가리상설회의사무국(The Secretariat of the Hungarian Standing Conference) 또한 재외헝가리동포처의 기관 중 하나이다.

1999년 7월 정부 방침에 따라, 문화적, 교육적, 사회복지적, 경제적 시민권과 자치정부 문제를 논의하고, 유럽 통합적인 측면에서 현 상황에 바탕을 둔 제안들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기 위한 HSC 특별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특별위원회는 관련된 부처에 의해 운영되지만 조직업무의 일부는 재외헝가리동포처에 의해 수행되었다.

1999년 11월 HS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참여자들은 정부가 재외헝가리인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규제 마련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1999년 11월 이후로 전문가들은 장래 법안의 다양한 영역들을 어떻게 규제화 할것인지를 논의하였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재외헝가리동포처와 외무부에 의해 법문화 되었다. 이는 2000 12월 HSC 회의에서 논의되었고 이 때의 제안들도 초안에 포함되었다. 초안의 행정화는 2001년 1월에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부처들이 이와 관련된 각자의 입장을 제시하고 제안들을 내놓았다. 이어 2001년 3월 20일 정부에 이를 승인 받았으며 국회에 입법안을 올리게 되었다. 2001년 6월 19일 법은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인접국에 거주하는 헝가리인에 관한 법률'(Act LXII of 2001)이 개정되었고 재외헝가리동포처에 법의 집행이 일임되었다.

양자간 협정

- 재외동포문제에 있어 관련 국가에서 정부가 힘을 행사할 수 있도록
- 연합조약에 의거하여 세워진 상호정부협력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상호정부협력위원회는 지난 몇 년 간 문제들을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 왔지만, 모든 사례를 해결했다고는 볼 수 없다.

재외헝가리인문제에 국제적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

- 관련된 재외동포정책의 공식화 과정에 참여하는 것

무엇보다도 재외헝가리동포처는 EU의 지역주의 통합운동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는 데 정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또 다른 과제는 헝가리의 EU 참가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대외 헝가리 민족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사회 안전을 보장하려는 EU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국가의 삼백 오십만의 헝가리 민족들의 혈연적 유대를 그대로 지속시키는 것이다.

분석과 예상

- 위에 언급된 과업들과 관련해서 헝가리내 정치와 재외동포 이슈의 결합성에 주의를 기울인다.

- 재외헝가리인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트렌드를 분석한다.

대중화

- 정책을 알리는 언론홍보를 준비한다.

'인접국에 거주하는 헝가리인에 관한 법률'(Act LXII of 2001 on Hungarians Living in the Neighbouring States)에 포함된 조항의 실행

- 헝가리 id card와 헝가리 dependent id card의 발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운반하는 조직과 협력

- 공공기관 설립의 장려와 '인접국에 거주하는 헝가리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경합을 통해 가능한 지원비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협력을 위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는 것

- 도움을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구와 헝가리 공공 기관 참여의 지원정책

- 도움 지원 신청과 관련 결정의 중앙 등록

- '인접국에 거주하는 헝가리인에 관한 법률'의 조항들이 효과적으로 재외헝가리인의

문화와 언어, 정체성을 보존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그 결과에 의거한 변화에 착수

재외헝가리동포처의 구조와 방침

재외헝가리동포처장은 국무총리실장의 추천에 의해 임명하고 해임한다. 처장은 재외헝가리인과 관련된 활동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고 관련 정부 결정과 법적 규제를 실행하는 것을 책임지고 있다. 그는 내부 경영 상황과 결재과정을 주관하고, 기존 법 규제 내에서 재외헝가리동포처의 경영 상황과 일 진척도 등을 단속한다.

그는 재외헝가리동포처를 외부 부서, 언론에 대변하고 헝가리상설회의사무국(Secretariat for the Hungarian Standing Conference)의 업무와 부처장, 언론과 서류업무, 법률행정과 인적자원 업무, 경제부, 교육부, 문화 종교단체들과의 연락 등의 업무들을 직접 관리한다.

부처장은 총리실장이 처장의 추천에 따라 고용하고 해임하게 된다. 부처장은 처장의 부재시에 모든 권한을 받게 되고, 재외헝가리인과 관련된 정부결정을 준비하고, 재외헝가리인 공동체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 및 주 부서들과 전략과 평가 담당 부서를 직접 관리한다.

현재 85명이 재외헝가리동포처에서 일하고 있다. 역사적, 지리학적, 실질적으로 고려된 재외헝가리동포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지역에 따른 다섯개의 부서들 :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와 Carpathian Basin 밖의 지역들에서는 재외헝가리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들을 처리

○여섯개의 기능직무 부서들 : 전략과 평가부, 언론과 서류업무부, 법률행정과 인적자원부, 경제부, 문화교육부, 예산부

* 관련 법령 등 부록은 영문판 참조

이스라엘 국가와 유대인 디에스포라: 방향과 정책, 그리고 도전

Sergio Della Pergola

*The A. Harman Institute of Contemporary Jewry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and The Jewish People Policy Planning Institute
Jerusalem, Israel*

Yehezkel Dror, Amos Gilboa, Rami Tal,
Jerome Chanes, Michael Weil, Morton Weinfeld

*The Jewish People Policy Planning Institute
Jerusalem, Israel*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Seoul, September 10, 2004

이 보고서는 이스라엘과 유대 재외동포들과의 복잡한 관계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 이주자 관계에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을 다섯 개의 장과 부록들을 통해 소개하도록 한다.

제1장 이스라엘과 재외동포 유대인 에서는 이주민들의 공통되는 경향을 살펴보고, 이어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을 역사적 관점에서 조명한 후, 이스라엘의 특수성 즉 이스라엘이 유대인 민족의 나라와 이스라엘 국민들의 나라로서의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유대인 민족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의 주요 법정 조항들을 특히 시민권과 관련하여 대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제2장 세계 유대민족 인구통계 에서는 유대인 인구변화의 원인과 이에 따르는 특수한 현상들에 주목한다. 그리고 2004년 세계의 유대인 인구 규모와 지리학적 분포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을 통해 세계 속의 유대인을 조명하고, 앞으로의 총체적 전망을 소개한다.

제3장은 이스라엘과 재외동포들의 유대민족 공동체의 제도적이고 조직적 체계를 세밀히 분석한다. 이 장에서는 유대인 민족 사이에서의 일반적 조직관리의 원리를 알아보고 가장 큰 조직인 미국의 것을 포함하여 세계 곳곳의 국제적 유대인 단체들을 소개한다. 장의 끝부분에서는 이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한다.

제4장에서는 유대인 민족이 당면한 전략적 도전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유대민족과 유대주의에 대한 외부 환경의 영향을 자세히 분석한 후, 유대민족 내부의 중요한 이슈들을 이스라엘과 재외동포들과의 관계와 연관 지어 살펴본다.

제5장은 앞으로의 전망에 관한 장으로 특히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 결정 메커니즘을 어떻게 체계화 할 것인가에 주목한다. 이를 최근의 이스라엘과 유대인 재외동포들의 원활한 소통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Second House 생성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도전 받고 있는 유대민족성의 생존과 세계화의 흐름에의 성공적인 합류에 대해 다뤄지고 있다.

부록으로는 이스라엘의 독립 선언과, 큰 의의를 지닌 "귀환법", 이스라엘의 국적법, 이주자 흡수부에 의해 지정된, 적절한 조력의 범주들이 수록되어 있다.

Acknowledgements

이 보고서는 헤브루대학의 A. Harman 현대유대인연구소 인구통계부와 유대인정책개발연구소(JPPPI)에서의 저자의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JPPPI의 동료인 헤브루대학의 Uzi Rebhun와 Mark Tolts, 그리고 Avinoam Bar-Yosef, Avi Gil, Naftali Elimelech, Shalom Wald, Ita Alkalay, Nadav Anner, Zvika Arran, Avi Ifergan, Sebastian Klor, Liav Orgad, Sharon Pardo, Rafi Pizov, Israel Pupko, David Shapira, Ahava Zaremski의 도움에 감사하며, 보고서의 일부분은 JPPPI의 첫번째 연례평가서인 *Between Thriving and Decline: The Jewish People 2004* (Jerusalem: JPPPI, 2004)로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둔다. 이 보고서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목 차

1. 이스라엘과 제외동포 유대인

- 1.1 이주민들의 특이성과 공통성
- 1.2 역사적 관점에서 본 유대인과 이스라엘
- 1.3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나라, 시민들의 나라
- 1.4 이스라엘의 주요 법적 조항

2. 세계 유대민족 인구통계

- 2.1 유대인 인구변화의 요인들
- 2.2 개념적 기술적 이슈
- 2.3 세계 시스템 속에서의 유대민족
- 2.4 세계 유대민족 인구규모와 지리학적 분포현황 (2004)
- 2.5 총체적 상황과 전망

3. 제도적 조직적 체계

- 3.1 거버넌스의 원리
- 3.2 세계적이고 국제적인 유대인 기관들
- 3.3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주요 기관들
- 3.4 다른 나라의 유대인 기관들
- 3.5 분석과 결론

4. 전략적 도전

- 4.1 전체적 균형
- 4.2 유대민족과 유대주의에 외부환경이 미치는 영향
- 4.3 유대민족 내부의 주요 방향

5. 향후 전망

- 5.1 의사 결정 메커니즘: 제2의회?
- 5.2 세계화 시대의 민족 생존과 상호 작용

Appendices 부록 (영문판참조)

1. 이스라엘의 독립 선언
2. 이스라엘의 "귀환법"
3. 이스라엘의 국적법
4. 이주자 흡수부에 의한 적절한 지원의 범주들

1. 이스라엘과 재외동포 유대인

1.1 이주민들의 특이성과 공통성

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다른 나라에 흩어진 같은 민족이 고국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공존하는 것은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는 이런 일이 드문 편이었지만, 20세기의 후반 50년동안 대규모의 국제적 이주로 인해 많은 나라들 사이에서 이주 현상이 일어났다. 어떤 이주민들은 고국과 인접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들었고 다른 이주민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

이 보고서의 주제인 유대인 이주자들은 오랜 세월을 걸쳐 세계 곳곳에 널리 퍼져 있다. 유대인 이주자들이 가장 널리 알려지고 연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정확한 추측과 부정적인 선입견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유대인 이주자들의 구조적 평가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것으로 19세기의 유대주의에 대한 과학적 연구(유대종교와 문화에 관련된 복잡한 형식과 전통과 지식들에 관한), 그리고 유대인 사회(유대주의와 관련된 사람들과 조직들의 집합)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3000년이 넘도록 유대민족과 이주자들에 관한 역사적 인식은 존재해 왔다. 그러므로 Eretz Israel (이스라엘의 땅, 혹은 성스러운 땅, 후에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림) 을 둘러싼 유대민족과 추방당한 민족과의 대립은 모세5경과 예언서에서 조차 언급되고 있다.

유대인들은 중국, 미국, 인디안 이주자들과 더불어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이주민들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유대민족의 이주가 가장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시기는 19세기와 20세기로, 이탈리아와 아일랜드, 폴란드 민족과 함께 거대한 규모의 국제적 이주가 행해졌다. 또한 20세기 후반부에 와서는 세계화로 인한 이주도 급속하게 늘고 있다. 최근의 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 같은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유대민족은 누구보다 오래된 민족이지만 제대로 된 주권 국가의 틀을 갖추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보냈다. 이스라엘은 고대 유대종교에 상징적 의미가 큰 예루살렘의 Second Temple 이 붕괴된 70 C.E 이후, 1948년 5월 14일에 와서 유대민족을 위한 정치적 주권국가로서 처음으로 독립했다. 지난 56년동안 이스라엘에서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주운동이 일어나 이스라엘 이주자들이 생겨났지만, 이는 유대인 이주자들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이다¹⁾. 이번 장은 좀 더 오래 되고 복잡하며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띤 유대인 이주자들에 중점을 둘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이주자들 또한 연구의 중요한 대상으로 확장된 개념의 유대사회 안에서 부수적 민족으로서 언급될 것이다.

이주자들에 대한 연구는 한 국가에서 살고 있는 구성원과, 거기에서 떨어져 살고 있는 이주자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시작한다²⁾. 일반적으로 한 국가는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언어적, 역사적, 사회적으로 다른 개개인들이 정치적 일련과정으로 묶여있는 하나의 사회적 집단이다³⁾. 그러므로 국가는 사람들의 집단을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개인적 이해관계를

1) Gold, Steven J., *The Israeli Diaspora* (London: Routledge, 2002).
2) Sheffer, Gabriel, *Diaspora Politics: At Home Abroad*(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3) Schnapper, Dominique, *La communauté des citoyens: Sur l'idée moderne de nation* (Paris: NRF, 1994).

뛰어넘는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공동체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다. 이러한 "시민의 국가"에 바탕을 둔 모델은 현재 세계화와 개개인과 집단만의 이익추구로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가들은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민주주의는 각자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제도적 도구로서 전락하고 있다⁴⁾.

흥미롭게도 국가와 이주자들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불특정의 관심사와 사회적인 가치 시스템 둘 다의 관점에서 개개인과 정치공동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라 안의 거주자들에게 지리학적 근접성과 강제성은 공통의 관심사에 근거하여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이주자들에게는 이주운동과 지리적 분산에 거스르는 역할을 한다. 이주자들은 결과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 소수집단으로서 이주자들의 다수와의 갈등
- 소수집단으로서 이주자들의 다수로의 귀화

두 가지 모두의 경우 이주자들은 삶의 경험으로서나 가치관에 있어 공통되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같은 나라 출신 이거나 같은 언어를 쓰거나 같은 역사적 전통을 갖거나 혹은 공통의 문화적 관습을 갖고, 행동양식을 공유하는 것일 수도 있고, 넓은 의미에서 같은 혈통이란 공통점일 수도 있다. 동시에 사회적 소수자로서 갖는 어려움들을 공유함으로써 이주자들은 내부간의 결속을 더욱 더 강화하게 된다. 이는 그들의 공익을 보호하는 이주민 단체의 생성으로 이어진다. 그렇지만 어떤 이주자 단체의 경우에도 내부에서의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의 다름과 정체성의 다양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화 과정은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지만 언제나 주의 깊게 행해져야 한다.

1.2 역사적 관점에서 본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의 관계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케이스는 상당히 특수한데, 보통의 순서는 이러하다:

- 첫째로, 특정 영토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게 되고,
- 둘째로, 다른 영토로의 이민과 주거 분산으로 인한 이주현상이 일어난다.

근대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세계 곳곳의 재외동포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정되기 전부터 존재해 왔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축에 속하는 유대민족과 유대 문명은, 집단학살을 포함한 위협과 도전들에도 굴복하지 않았으며 다른 문명에 동화되지도 않았다. 그들의 인류에 대한 공헌은 개인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놀랄 만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유대주의와 유대사회의 역사적으로 명료하게 평가해 내기란 쉽지 않다. 현재와 미래의 유대민족에 대한 근래의 논쟁들에 있어서 큰 의의를 지니는 개념들의 정의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핵심적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유대민족은 다른 국가들을 포함한 하나의 문명적 패러다임인가, 아니면 그들 스스로의 문명으로서만 평가해야 하는가?
- 유대인 정체성의 핵심인 종교적 중요성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가?
- 이스라엘은 타 국가들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의 예외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문화와 구별되는 문명의 개념적 의미 탐구 없이도⁵⁾, 우리는 유대 민족은 단지 민족적, 종교적인 집단이 아닌, 하나의 문명을 형성한 민족임을 추론해 낼 수 있다⁶⁾.

4) Schnapper, *ibid.*
5) Huntington, Samuel P.,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96); Inglehart, Ronald,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사실 이스라엘과 유대인 디에스포라와의 관계와 같은 현상들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⁷⁾, 유대민족 근대국가의 형태가 형성되기 훨씬 전부터 2000년을 넘도록 나라 없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독특하고 혁신적인 사상들과 규범들과 가치체계와 민속학을 아우르는 "유대주의"를 형성하였다⁸⁾. 그러므로 종교적으로나 인종적으로만 유대민족을 분석하는 경향은 잘못된 것이다⁹⁾.

동시에 유대민족의 대다수와 서구 문명의 교차현상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계몽주의와 해방주의 시대 이후로 서유럽에서의 유대주의는 개인적인 종교 수준으로 축소화 되었고, 유대민족들은 각각의 나라의 시민들이 되어 사회 각 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동화현상과 달리 고유한 의식과 차별화 된 유대인 공동체는 존속되었다. 이는 주로 서유럽과 팽창하고 있는 미국의 대인 공동체에서 일어났고, 동유럽에서의 유대인 공동체들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다르게 변화해 나갔으며 북아프리카와 중부아시아의 유대인 공동체들은 미약하였다.

반유대주의는 해방과 진보를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유대민족의 생존과 부흥에 기여하였으며 시오니즘 혁명과 이스라엘 국가의 건설을 촉진시켰다¹⁰⁾.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유대주의의 핵심 교리인 "약속의 땅"에 대한 강한 신념 없이는 시오니즘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독립도 없었을 것이다.

유대민족은 세계 어디든 정착하여 살지만, 유대주의는 다른 종교와 문화와 대조적으로 수동적이거나 숙명론적이지 않았으며 유대민족은 역사적으로 외부의 압력과 변화하는 정세에 잘 적응해 왔다.

이스라엘 땅을 유대민족과 이스라엘 디에스포라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대민족과 유대문명의 번영과 미래를 점쳐보려면, 무엇보다도 그들에 대한 경제적, 문화적, 정신적 자료의 분석이 필요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위협과 약점의 냉정한 평가가 요구된다. 이를 완성한 후에야 미래를 위한 제안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1.3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나라, 시민들의 나라

이스라엘 독립 선언은 이스라엘 사회의 이중성을 명확히 드러낸다. 이스라엘은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종교적, 인종적, 문화적, 사회적 등 모든 차별을 배제하는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상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시민 모두에게 동일한 권리가 주어진다. 한편 이스라엘의 국가적 건지(*raison d'être*)에서는 역사적으로 동등한 기회뿐 아니라 기본적인 시민으로서의 권리마저도 주어지지 않았던 유대인 민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6) Dubnow, S. M., *Jewish History: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History* (Honolulu: University Press of the Pacific, 2003 [First edition 1903]); Kaplan, Mordecai M., *Judaism as a Civilization: Towards a Reconstruction of American-Jewish Life*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of America, 1981); Eisenstadt, S.N., *Jewish Civilization: The Jewish Historical Experience in Comparative Perspective* (Beer Sheva: Ben Gurion University Press, 2002) (Hebrew).

7) Sheffer, *Diaspora Politics: At Home Abroad*, cit..

8) Biale, David, ed., *Cultures of the Jews: A New History* (New York: Schocken, 2002).

9) Jacobson, Alexander, and Rubinstein, Amnon, *Israel and the Family of Nations: The Jewish National State and Human Rights* (Jerusalem: Schocken, 2003).

10) Gorny, Yosef, "Klal Yisrael: From Halakha to History," in Eliezer Ben-Rafael, Yosef Gorny, Yaacov Ro'i (eds.) *Contemporary Jewries: Convergence and Divergence* (Leiden and Boston: Brill, 2003) 13-22.

이스라엘의 민주주의, 즉 보편성을 지켜나가면서도 동시에 유대인 문제와 같은 특정 민족에 치우친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다음의 발췌된 이스라엘 독립 선언문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의 역사적이고 당연한 권리의 힘과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안에 의거하여, Eretz-Israel의 유대인 국가, 즉 이스라엘의 설립을 선언하는 바이다...

... 이스라엘은 유대인 이주와 망명자들의 귀환을 환영한다. 이는 나라안의 모든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나라발전의 촉진을 위함이며,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바탕으로 할 것이다. 또한 국민 모두에게 종교, 인종, 성별에 관계 없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교와 양심과 언어와 교육과 문화의 자유를 보장한다. 또한 모든 종교의 성지를 보호하며,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충실한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유대민족 이민을 개방했을 뿐 아니라,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 우리는 세계에 흩어진 유대민족이 이민을 통해 Eretz-Israel의 유대인들과 다시 결합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들의 오랜 바람인 이스라엘 상환을 위한 투쟁에 동참할 것이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내부적 좁은 시각으로 재외동포 유대인들과의 사회적, 정치적 현실을 바라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과의 상호 관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와 유대 국가 모두의 역할을 해내기가 쉽지 않으므로, 각각의 이해의 대립이 지속적인 논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¹¹⁾.

1.4 이스라엘의 주요 법적 조항

1.4.1 이스라엘의 귀환법

아마 이스라엘의 대외동포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귀환법" 일 것이다. (부록 2 참조) 이 법은 세계의 모든 유대인들과 그들의 3대 자손과 배우자(유대인이 아닐지라도)에게 거의 무제한적 이주의 권리와 시민권, 그리고 관련된 사회경제적 이권들을 인정하고 있다. 이 귀환법 자유로운 적용은 제 1장에 찾아볼 수 있다. "모든 유대인은 이스라엘로의 이주의 자유가 있다". 이는 대규모 이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스라엘 인구의 근간이 되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권리 부여의 측면에 있어 Laws of Nirenberg, 즉 독일계 유대인을 차별하고 권리를 빼앗는 법에 상응하는 법적 조항이 존재한다는 것과 재외동포 유대인들에게도 점차 그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귀환법은 1930년대와 40년대에 재외동포 유대인들이 이주의 자유를 빼앗기며 겪었던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비극을 바로 잡는 데에도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귀환법에 제기되는 주요 의문사항은 바로 "누가 유대인인가" 라는 문제이다. 1950년의 첫 승인 이후로 이 문제에 관한 여러 번에 걸친 수정이 있었지만 54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의 대법원의 감수 아래 있다. 결국 채택된 안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의 목적을 감안할 때 '유대인'은 유대인 모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과 개종하고 다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 단숨에 보이는 문구는 실제 생활에 적용되면서 또 다시 다수의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개

11) See, e.g., Gavison, Ruth, "Jewish and Democratic? A Rejoinder to the Ethnic Democracy Debate", *Israel Studies*, 4(1), 1999, 44-72.

종은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누가에게 개종의 권한을 주어야 하는가? 개종은 이주 전과 이주 후 어느때에 행해져야 하는가?" 와 같이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들에도 불구하고 귀환법은 이스라엘과 대외동포 유대인을 잇는 가장 중요한 법적, 인종적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1.4.2 이스라엘의 국적법

vis-à-vis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로의 이주와 국적 취득의 이점을 주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뿐 아니라 모든 잠재적 지원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바로 "국적법"이다. (부록 3 참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국적은 세가지 방법, 즉 출생과 거주와 귀화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귀환법이나 국적법은 지원자의 종교적, 인종적 정체성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한 정체성들은 특정 지원자들에게 특정 법을 적용할 시에만 관련이 있다. 귀환법이 모든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합법적 구성원들과 가족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달리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i) 유대민족에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ii) 공중도덕과 질서를 해치는 경우 (iii) 공공장소를 위협하게 한 전적이 있는 경우), 국적법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특정 조건과 제한 자격들을 지켜야 한다.

1.4.3 새로운 이민자 흡수 바스켓

성공적 대규모 이주를 위하여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민자들을 새로운 나라에 안전하게 흡수하기 위한 넓은 범위의 법적 조항들을 제정하였다. (부록 4참조) 이민자 흡수부가 지원하는 분야는 흡수 바스켓, 실업 수당, 관세 보조, 출판(히브리어 수업), 주택원조, 구직지원, 개인 사업 지원, 개인 사업지원, 교육비 지원, 군인 보조 등이 있다.

이러한 조항들의 대상으로는 이민자, 미성년 이민자, 시민 이민자, 어린이 이민자, 이민자 가족, 귀환한 미성년자, 귀환한 국적자 등으로, 이들이 이주 후 나라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주 목표이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공적인 이민 정책은 그들이 이민 후에도 나라에 영구적으로 머무르고 싶어 하는가와 이스라엘 사회에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동화되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2. 세계 유대민족 인구통계¹²⁾

2.1 유대인 인구 변화의 요인들

2004년 세계의 유대민족은 지난 해보다 4만명가량 증가한 1300만명으로 추정된다¹³⁾. 1999년에서 2002년 새에 유대 인구 비율이 많은 나라들에서의 유대 인구 조사의 덕택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들의 연구가 가능해졌다. 이 새로운 자료로 인해 기존에는 추정만 하던 것을 사실로 확인하고 고칠 수도 있게 되었다. 지난 십년 동안 두드러지게 확장된 데이터베이스가 세계의 유대

12) This section is largely based on this author's article "World Jewish Jewish Population 2004", *American Jewish Year Book 2004* (AJYB), 104 (New York: American Jewish Committee, 2004).

13) The previous estimates, as of January 1, 2003, were published in AJYB 2003, 103, 588-612. See also Sergio DellaPergola, Uzi Rebhun, and Mark Tolts, "Prospecting the Jewish Future: Population Projections 2000-2080," AJYB 2000, 100, 10346; and previous AJYB volumes for further details on earlier estimates.

민족의 인구통계를 보다 잘 산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인구 규모와 특징과 경향은 지역적, 국제적인 유대인 공동체를 이해하고 앞날을 내다 보는 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이다. 이 보고서에서 소개되는 주요 지역과 각각의 나라들의 유대인구의 측정은 현재 세계 유대인구 통계에 대한 오랜 기간의 과학적 연구로 뒷받침된 것이다¹⁴⁾. 자료의 수집과 연구는 많은 나라들의 기관과 학자들에게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 인구를 추정하는 작업은 많은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수반된다¹⁵⁾. 성공적이고 정확한 통계의 산출을 위해서는 이러한 어려움들과 본질적 한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1980년 후반 이후로 세계에 많은 정치적, 지리적, 사회경제적 변화가 진행되어 왔는데, 그 예로서는 소련연합의 붕괴, 독일의 통일, 25개국으로의 유럽 연합의 확장 (2004년 5월 1일 새로운 열 개의 가맹국을 포함한), 남아프리카의 체제변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불안한 사회양상, 그리고 이스라엘과 동부아시아의 급변하는 정세 등이 있다. 유대 인구는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USSR (FSU) 에서의 대규모 이주, 그리고 이스라엘의 급속한 인구 증가가 가장 가시적인 예이고, 다른 곳에서도 상당한 유대 인구 이동이 일어났다. 지리학적으로 이동성과 지속적인 분열현상, 그리고 세계화에 발맞추는 나라간의 연합으로 인해 80퍼센트가 넘는 유대민족이 미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에 살고 있고, 95퍼센트가 넘는 인구가 열 개의 강대국들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G8 국들 중 여섯 나라 (미국, 프랑스, 캐나다, 영국, 러시아 연합, 독일) ¹⁶⁾에 전체 이스라엘 유대인구의 87퍼센트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 이러한 집단들이 사실상 세계의 유대사회의 규모와 경향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유대 인구 통계의 역사를 살펴보기 전에, 유대 인구의 기원과 이동에 대한 일반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¹⁷⁾. 유대인 공동체는 종교적, 인종적, 문화적, 언어적인 특징을 공유하는 그룹 혹은 소수 집단을 뜻한다. 역사상 셀 수없이 많은 이러한 소수집단이 존재해 왔고 역사 속에 묻혀 사라져 갔다.

하나의 새로운 민족의 탄생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에 발생한다. (a) 새로운 영토로의 특정 집단의 이주 (b) 특정 집단이 살던 영토가 다른 독립적 영토와 결합할 때 (c) 기존의 집단의 분리나 정신적 개혁에 의해서 (d) 둘 이상의 기존 민족이 고유성을 지닌 채로 결합할 때. 반대의 경우인 민족의 멸종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경우가 있을 수 있다 (a) 어떤 집단의 외부로의 완전한 이주 (b) 집단 모든 구성원까지 포함한 영토의 양도 (c) 집단의 다른 집단으로의 완벽한 동화 (d) 과도한 인구의 사망에 출생 인구수가 미치지 못할 경우 (e) 학살. 유대인 인구는 오랜 세월 동안 위의 요인들 중 다수를 경험하며 변화해 왔다.

유대 인구나 다른 민족들이 공유하는 근본적 양상은 바로 변화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인구 규모와 구성원은 다음 세가지 요인들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반영한다. 이 중 두 가지 요소는 개

14) Many of these activities are carried out by, or in coordination with, the Division of Jewish Demography and Statistics at the A. Harman Institute of Contemporary Jewry (ICJ),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The collaboration of the many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in the different countries who have supplied information for this update is acknowledged with thanks.

15) For overviews of the subject matter and technical issues see Paul Ritterband, Barry A. Kosmin, and Jeffrey Scheckner, "Counting Jewish Populations: Methods and Problems," AJYB 1988, 88, 204221; Sergio DellaPergola, "Demography" in Martin Goodman, ed., *The Oxford Handbook of Jewish Studies* (Oxford, 2002), 797-823.

16) The eight leading economies in the world, also comprising Japan and Italy.

17) Sergio DellaPergola, "Some Fundamentals of Jewish Demographic History", in S. DellaPergola and J. Even (eds.) *Papers in Jewish Demography 1997* (Jerusalem: The Hebrew University, 2001) pp. 11-33.

개인의 인구 수의 증가와 감소 같은 통계학적 상태를 변화시킨다.

- 생명과 관련된 요인 (출생과 사망)
- 나라간의 이주에 의한 요인 (인구 유입과 반출)
- 세번째 요소는 정체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마치 어떤 민족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하고 이러한 요인은 유대인의 경우처럼 주로 문화적, 상징적 특수성을 지닌 소수집단에 주로 작용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민족의 통계수치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들 자신이 어떠한 종교적, 문화적 민족적 집단으로 인정 받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의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소개된 2004년의 자료는 위의 세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과거 몇 년간의 자료들을 참조하여 예상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진행되는 변화의 정확한 데이터가 없더라도 가능한 한 예측 가능한 변화의 방향을 반영하려 했으며 이전의 유대인구통계 자료도 참조하였다. 만약 과거와 예상이 균형을 이루면, 유대 인구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 이 방법은 과거에 효과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최근의 보고들은 우리가 과거에 AJYB 에서 예측했던 현상들이 정확했음을 입증해주고, 이는 나아가 현 유대민족의 인구통계 경향의 이해를 도와준다¹⁸⁾. 즉 이스라엘에서의 일련의 생명과 관련된 긍정적인 변화와(탄생과 사망과 같은) 다른 유대인 공동체에서의 부정적 변화간의 균형, 이스라엘과 미국, 독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몇몇 서부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긍정적 이주와 라틴아메리카, 남아프리카, 동부유럽, 무슬림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 이주간의 균형, 긍정적인 이스라엘로의 동화 혹은 분리와 부정적이고 불확실한 다른 곳에서의 변화간의 균형을 추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2004년 인구측정은 주로 사회인구학적인 과정과 정체성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인구의 규모를 추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국제적 이주 현상과 인구의 중복 체크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정확한 측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분석가들은 유대인구 측정은 영원히 일시적일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2.2 개념적 기술적 이슈

2.2.1 데이터 출처

보통 유대인 인구 규모와 그 사회적 특성에 대한 자료는 그 양도 적고 질도 떨어진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인구조사와 유대인이 스폰서가 된 사회인구통계 조사를 통해 몇몇 국가에서 중요한 새로운 데이터와 예측이 나왔다. 아일랜드, 체코공화국, 인도(1991), 루마니아, 불가리(1992), 러시아, 마케도니아(1994), 이스라엘(1995), 캐나다, 남아프리카, 호주, 뉴질랜드(1996년과 2001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1999), 브라질, 멕시코, 스위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타지키스탄(2000), 영국,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2001), 러시아, 조르지아, 헝가리(2002)에서 국가인구조사를 실시, 유대인구 데이터가 제공됐다. 유대 종교, 민족, 그룹에 대한 정보를 담은 영구보관용 국가인구기록부가 몇몇 유럽 국가(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이스라엘에서 유지되고 있다.

18) See Roberto Bachi, *Population Trends of World Jewry*(Jerusalem, 1976); U.O. Schmelz, "Jewish Survival: The Demographic Factors," AJYB 1981, 81, 61117; U.O. Schmelz, *Aging of World Jewry* (Jerusalem, 1984); Sergio DellaPergola, "Changing Cores and Peripheries: Fifty Years in Socio-demographic Perspective," in Robert S. Wistrich, ed., *Terms of Survival: The Jewish World since 1945* (London, 1995) 1343; Sergio DellaPergola, *World Jewry beyond 2000: Demographic Prospects* (Oxford, 1999).

또한, 독립적 사회인구통계 연구로 유대인 인구통계와 사회경제적 계층, 유대인 정체성에 대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지난 수 년 동안 남아프리카(1991년과 1998년), 멕시코(1991년과 2000년), 리투아니아(1993), 영국, 칠레(1995), 베네수엘라(1998-1999), 이스라엘, 헝가리, 네덜란드, 과테말라(1999), 몰도바, 스웨덴(2000), 프랑스와 터키(2002) 등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두 차례의 대규모 조사, 국가 유대 인구 조사(National Jewish Population Survey, NJPS, 2000-2000)와 미국 유대인 정체성 조사(American Jewish Identity Survey, AJIS, 2001) 결과 중요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외에도 미국 내 대도시(예: 2002년 뉴욕)와 다른 국가에서도 유대인구조사가 여러 건 더 별도로 이루어졌다. 회원등록부, 주요 통계, 이주기록을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유대사회 트렌드에 대한 추가 정보를 모을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은 영국, 독일, 이태리, 부에노스 아이레스, 상파울로 등 여러 국가와 도시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와 기타 유대인 조직에서 찾을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 꾸준히 모으고 있는 상세한 유대인 이주 데이터는 다른 국가에서 계속 변하는 유대인구 수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계속 진행 중인 유대인구조사는 세계 유대인구의 프로파일을 계속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여러 팀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¹⁹⁾.

2.2.2 정의

개인 학자나 유대인 조직이 정기적으로 배포하는 유대인 인구데이터와 관련된 주된 문제는 유대인 인구를 어떻게 정의할 지가 논의되지도 않고 논의되는 경우에도 그 정의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즉, 유대인 인구에 대한 양적 조사에서 규범적인 정의가 아닌 운영적 정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유대인 인구 조사결과가 비교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3가지 주요 개념을 고려해야만 한다.

주요 유대인인구(*core Jewish population*)²⁰⁾ 범주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스스로를 유대인으로 밝힌 사람들 모두, 또는 조사 응답자가 본인이 아니고 다른 가족 구성원이었을 때, 응답자가 유대인이라고 밝힌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유대인 인구에 대한 정보를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데이터 소스의 특성을 반영하는 실용적인 조사방법으로, 의도적으로 포괄적인 답을 얻도록 고안되었다. 이스라엘 이외의 국가에서 이러한 데이터는 보통 인구조사나 사회조사에서 나오게 되는데, 인구조사나 사회조사에서는 응답자가 종교나 민족적 선호 질문에 어떻게 응답할지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주관적 감정을 반영하는 이러한 개인의 유대인 정의는 할라카(halakhah: 유대인의 구체적인 실천 규범)나 다른 구속력 있는 규범 정의와 넓게는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꼭 같은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정체성 정의는 신앙심, 믿음, 지식, 공동체관계 등 유대인으로서 헌신이나 행동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다. 주요 유대인구는 절차와 상관없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과 스스로를 유대인으로 선언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유대인 혈통으로 현재 소속된

19) Following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Jewish Population Problems* held in Jerusalem in 1987, initiated by the late Roberto Bachi of the Hebrew University and sponsored by major Jewish organizations worldwide, an International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ISAC) was established. See Sergio DellaPergola, Leah Cohen, eds., *World Jewish Population: Trends and Policies* (Jerusalem, 1992). A new *Initiative on Jewish Demography*, sponsored by the Jewish Agency has resulted in an *International Conference* held in Jerusalem in 2002 and a plan of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The newly established *Jewish People Policy Planning Institute (JPPPI)*, chaired by Ambassador Dennis Ross, provides a framework for policy suggestions namely in relation to population issues. See Sergio DellaPergola, *Jewish Demography: Facts, Outlook, Challenges*, JPPPI Alert Paper 2 (Jerusalem, 2003).

20) The term *core Jewish population* was initially suggested by Barry A. Kosmin, Sidney Goldstein, Joseph Waksberg, Nava Lerer, Ariela Keysar, and Jeffrey Scheckner, *Highlights of the CJF 1990 National Jewish Population Survey* (New York, 1991).

종교나 민족이 없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하지만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유대혈통의 사람들은 제외되고,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비유대그룹 소속을 분명히 밝힌 사람들도 제외된다. 이스라엘에서는 내무부의 결정으로 개인의 지위가 결정되는데 내무부는 랍비지도부와 의논한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주요 유대인 인구는 주관적 정체성이 아니라 구체적 법률 즉, 할라카를 반영하게 된다.

주요 유대인 인구 소속 여부와 2000-2001년 NJPS 조사에 나타났던 다른 집합적 종교 정체성은 서로 배타적일 수 있고 배타적이어야만 한다. 이 경우 UJC 조사부에서 채택한 방법은, 물론 논쟁은 많았지만, 여러 종교적 정체성을 가진 유대인도 특정 경우에는 유대인구의 표준 정의에 포함시키는 것이었다²¹⁾. 유대배경을 가진 사람들(Persons of Jewish Background-PJBs)이라는 카테고리도 도입되었다: 이 중 일부는 유대인구에 포함되었고 일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여러 민족적 정체성을 가진 유대인도 캐나다의 표준 유대인구에 포함되었다. 조사팀이 이렇게 광의의 기준을 채택하게 되면, 과거조사에 비해 유대인구정의가 확대 해석되게 된다.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특정유대인구의 조사 결과를 비교 연구할 때는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이 **확대된 유대인 인구(enlarged Jewish population)**²²⁾ 개념에는 (a) 주요 유대인 인구 (b) 유대혈통이지만 현재(또는 조사 당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c) 비유대 가족구성원(배우자, 자녀 등)이 포함된다. 유대배경을 가진 비유대인 범주에는, 확인할 수 있는 한, (a) 최근 미국, 캐나다 데이터처럼, 민족이나 종교적 배경을 이유로 스스로를 유대인이라 주장하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b) 유대혈통이지만 스스로 유대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요 유대인 인구에 속하지 않는 PJB들이 이 확대(enlarged) 그룹에 속하게 된다²³⁾. 사회인구통계 조사에서는 보통 부모의 종교-민족적 정체성도 고려하고, 일부 조사에서는 먼 조상에 관해 묻기도 한다. 개념적, 실질적 이유로, 확대정의를 유대배경이 약하거나 유대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세대에 속한 비유대 친척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정부 이민수용의 법적 기반인 **귀환법(Law of Return)**은 새 유대인민에게 시민권과 기타 시민권리를 즉각 부여한다. 귀환법의 현 수정 버전에서 유대인의 정의는 유대인 모친에게서 태어났거나, 유대교(정통파, 보수파, 개혁파 등의 종파와는 관계없음)로 귀향했고 다른 종교적 정체성은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재 다른 종교를 믿는 일부 유대사람들의 경우처럼, 유대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경우는 귀환법에 따른 자격을 잃게 된다. 이 법은 앞서 밝혔듯, 이스라엘 내무부나 랍비 수뇌부의 결정에 달려 있는 개인의 유대인 지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귀환법은 현재 유대인인 사람들, 그들의 자녀, 손자, 그리고 유대인 및 비유대인 배우자들에게 모두 적용된다. 이렇게 3세대와 방계 적용으로 귀환법은 위에서 정의된 **주요, 확대 유대인구**보다도 훨씬 넓은 범위의 인구그룹을 갖는다²⁴⁾. 사실 **귀환법**

21) See Laurence Kotler-Berkowitz, Steven M. Cohen, Jonathon Ament, Vivian Klaff, Frank Mott, and Danyelle Peckerman-Neuman, with Lorraine Blass, Debbie Bursztyn, David Marker, *The National Jewish Population Survey 2000-01: Strength, Challenge and Diversity in the American Jewish Population* (New York: United Jewish Communities, 2003). See also the forthcoming volume of *Contemporary Jewry* (the scholarly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the Scientific Study of Jewry edited by Samuel Heilman) entirely devoted to critical essays and analyses of NJPS method and findings.

22) The term *enlarged Jewish population* was initially suggested by Sergio DellaPergola, "The Italian Jewish Population Stud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rends," in U.O. Schmelz, P. Glikson, and S.J. Gould, eds., *Studies in Jewish Demography: Survey for 1969/1971* (Jerusalem-London, 1975), 6097.

23) See Kotler-Berkowitz et al., 2003.

24) For a concise review of the rules of attribution of Jewish personal status in rabbinic and Israeli law,

인구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는 무척 어렵다. 이러한 수치를 이 보고서에서 체계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지만, 몇몇 주요 국가와 관련, 그 가능 범위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다.

다음에 나오는 대륙별(표1), 국가별(표5-12), 대도시별(표13) 유대인구분포에 대한 추정 수치는 주요 유대인구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2.2.3 데이터 제시와 데이터의 질

여기에 나와 있는 유대인구 추정수치는 본보고서가 출판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능한 한 최근 현황을 보고하려 했기에 수집정보의 확인과 수정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어서, 신뢰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 새로 발견된 정보에 따라 유대인구에 대한 기존 추정치를 바꾸기도 했다. 2004년 수치와 좀 더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 대규모 지역에 대한 2003년 수치를 소급적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약 100명 이상의 주요(core)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각각 별도의 수치가 제공된다. 기타 작은 공동체에 살고 있는 유대인 수치는 일부 대륙 총수에 더해졌다. 표 6-10에서 해당 국가마다 '2003년 중반 총 인구수 추정'²⁵⁾, '예상 2004년 1월 1일 인구', '총인구 1,000명당 유대인 비중', '유대인구예측 정확도'가 4개 열에 나와있다.

국가별 유대인 인구추정 정확도에는 차이가 크다. 많은 디아스포라(Diaspora) 국가에서, 유대인 수가 몇 명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최소-최대 범위를 정하는 편이 좋다. 하지만, 이렇게 범위들만 즉 나열되어 있으면 본 보고서의 독자들이 혼란스러워 할 것이면, 지역별 총수, 세계 총수도 복잡해 진다.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관한 수치들 대부분은 각 주요(core) 유대인구의 가능성 높은 최소-최대 범위의 평균값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범위의 비교적 중요도는 추정의 정확도에 반비례해서 변한다.

추정치의 정확도에 영향을 끼치는 3개의 주요 요소는 기본 데이터(base data)의 특성과 질, 기본 데이터가 얼마나 최근에 나왔는지, 그리고 업데이트 방법이다. 이들 요소를 아우르는 간단한 코드를 사용해서 본보고서의 상세 표에 나온 유대인구수치 신뢰도를 개괄적으로 평가한다. 이 코드는 추정치 데이터의 품질 수준을 나타낸다:

(A) 전국적 인구조사나 비교적 믿을 수 있는 유대인구조사에서 추출한 기본 수치 조사기간 동안 각 국가의 유대인구이동에 대한 완전한 또는 부분적 정보를 기반으로 업데이트 한다.

(B)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최근에 이루어진 전국적 유대인구조사에 추출한 기본 수치 조사기간 동안 인구이동에 대한 부분적 정보로 업데이트.

(C)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조사 그리고/또는 해당 국가 유대 인구의 부분적 내지 불충분한 커버리지에서 추출된 기본 데이터 지역인구 트렌드를 보여주는 인구통계적 정보에 따라 업데이트.

(D) 추측성 데이터 신뢰할 수 있는 업데이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A), (B), (C) 범주에서 해당 국가의 기본 데이터나 중요한 부분적 업데이트가 발생한 연도도 명시된다. 2004년 유대인구 추정치가 업데이트되고 또 새로운 정보의 발생으로 수정된 국가의 경우는 "X" 마크가 정확도 옆에 표시된다.

유대인구 추정치를 업데이트하는 또 한가지 방법은 예루살렘 헤브루 대학에서 최근 개발한 인구통계적 예측법이다²⁶⁾. 이러한 예측방법은 21세기 처음 몇 십 년 동안 가장 발생 확률이 높

including reference to Jewish sects, isolated communities, and apostates, see Michael Corinaldi, "Jewish Identity," chap. 2 in his *Jewish Identity: The Case of Ethiopian Jewry* (Jerusalem, 1998).

25) Data and estimates derived from Population Research Bureau, *2003 World Population Data Sheet* (New York, 2004).

은 유대 인구 트렌드를 외삽법(外挿法)에 의해 추정한다. 유대인구변화의 동적 요인에 대한 신뢰성 높은 정보를 구할 수 없을 때도, 인구의 연령구성과 이주 움직임 사이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긴밀한 연관관계로 단기간 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준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부족할 때는, 이러한 예측방법을 사용해서 이전 수치에 비해 2004년 추정치를 개량한다. 이러한 예측방법은 비교적 제한적인 가정을 모아 정의되었고 주기적으로 실제 인구통계발전상황에 따라 업데이트해야 한다.

2.3 세계시스템 속에서의 유대인

2.3.1 역사적 개관

표1은 지난 2000년 동안 세계유대인구와 주요 정착지역 별 유대인구의 발전 개요를 보여준다. 문학적, 고고학적 소스도 고대 유대인구 발전에 대한 추론 기반을 제공한다. 크게 일반화를 해서 보면, 20세기 전까지 전체 세계인구가 비교적 꾸준하고 천천히 발전하는데 비해, 유대인구가 크게 늘어났던 3번의 시기가 두드러진다²⁷⁾:

첫 번째 시기는 고대 이스라엘의 정치적 영향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왕들의 시대이다. 다윗왕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왕국의 국경 안에서 200-250만 명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대 지배 아래 살았던 비유대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B.C.E. 8세기 예루살렘 제1성전의 함락과 이스라엘인들의 바빌론 추방 후, 유대 디에스포라의 영구 기반이 형성되었다.

두 번째로 유대인구가 크게 늘어난 시기는 하스모니아(Hasmonean) (B.C.E. 3-2세기)시대 예루살렘의 제2 성전 건축 시기에 즈음한다. 이 두 번째 시기 인구 수에 대해서 다양한 추정치가 존재하지만 본보고서에는 B.C.E. 1세기 동안 약 450만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다. 몇몇 학자들은 당시 유대교 세력에 속했던 지중해 유역에 거주하고 있던 비 유대인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믿고 있다. 한편, 로마제국에 대항한 1,2세기 동안의 투쟁과 최종적 패배가 유대인구의 극적인 감소를 가져왔다. 100-150만 미만으로 감소한 것으로 믿어진다. 그 주된 원인으로 유대인 정체성의 상실과 그리스도교와 그 뒤를 이은 이슬람 헤게모니 아래서 주변 문화에 유대인 인구의 상당 부분이 융화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1. 주요 지역별 유대인 인구 추정치(단위:1,000명) - 2004년 1월

연도	수 (단위:1,000명)					세계총인구
	총	팔레스타인/기타	서유럽	동유럽, 미주	이스라엘/	

26) See DellaPergola, Rebhun, and Tolts, "Prospecting the Jewish Future."
 27) Baron, S.W., "Population". *Encyclopedia Judaica*, Vol. 13, 1971, pp. 866-903; de Tudela, B. (ca. 1170). *Sefer Massa'ot*. [The Itinerary of Benjamin of Tudela (Adler, M.N., ed.). London, 1907.]

	이스라엘	아시아 아프리카	발칸	오세아니아	팔레스타인의 %		
1	(3,000-6,000)	(1,000-2,500)	(2,000-3,500)	-	(33-42)		
500	(600-1,200)	(200-300)	(400-900)	-	(25-33)		
1170	1,200	5	1,045	103	47	-	0.4
1300	1,200	3	747	385	65	-	0.3
1490	1,300	5	695	510	90	-	0.4
1700	1,100	5	372	146	573	4	0.5
1825	3,281	7	533	458	2,272	11	0.2
1880	7,663	24	606	1,044	5,727	262	0.3
1939	16,500	445	1,155	1,350	8,150	5,400	2.7
1948	11,185	650	1,325	1,035	2,515	5,660	5.8
1970	12,633	2,582	693	1,119	1,969	6,270	20.4
2004	12,990	5,165	122	1,068	468	6,167	39.8

출처: Adapted from de Tudela (ca. 1170), Baron (1971), DellaPergola (1992, 1997, 2004).

이후 천년 이상의 긴 기간을 "불안정한 안정기"로 정의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큰 유대인 인구 변동은 거의 없었지만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변화가 계속 이어졌다. 내성적/외성적 요소가 결합되어 일부는 전체 인구에도 작용했고, 일부는 유대인 공동체에만 작용했다. 전염병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 전쟁, 자연재해, 특정 타깃을 겨냥한 추방, 대량학살, 강제개종이 보다 안정적인 시기에 늘어난 유대인구 증가분을 주기적으로 말소시켰다. 본 보고서에서 110만 명으로 추산되는 17세기 초반 유대인구는 12세기 말 인구 수와 비슷하거나 보다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3번째 시기는 근대 "인구통계적 변천"의 영향, 즉 사망률과 출생률의 전반적 감퇴라는 인구변화프로세스 근대화의 영향을 받던 시기이다. 대부분 동유럽에서 발생한, 18세기 후반, 19세기, 20세기 초반 동안의 유대인구 급상승은 사망률과 질병률이 다른 인구그룹보다 먼저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는 유대공동체와 주위 다른 인구그룹 사이의 사회문화적, 사회경제적 차이와도 연결 지을 수 있다. 유대인구의 높은 인구성장률은 백 년, 이백 년 후가 아니면 수십 년 후에나 발생하게 될 전체인구의 높은 성장률을 앞서 일어났다.

1650만 명까지 치솟았던 이 안정적 인구 팽창 시기는 이차세계대전 동안 600만 명이 학살된 쇼아(Shoah)로 급격히 그 끝을 맺게 된다. 전쟁 후 전세계적으로 남은 1100만 명이 현재 1300만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세계유대인구의 전체성장률은 0에 가깝다.

고대와 중세초기 동안 이루어진 이주가 유대인의 지리적 분포를 결정지었다. 이렇게 오래 전 이루어진 이주가 아주 최근까지 유대인구분포 주 패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인구의 유전적 특성과 관련된 이주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과거 인구 이산의 주요 단계를 요약해 볼 필요가 있다. 주요 이주 흐름과 정착지재정착지를 7개의 주요 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a) B.C.E.8세기 점령과 제1성전 몰락으로 시작된 *Eretz Israel*(이스라엘 영토)에서부터 *Bavel*(바빌론)으로는 첫 번째 디에스포라

(b) *Shivat Zion* (시온으로의 귀환-Return to Zion) 운동으로 바빌로니아 유배에서 4만 명의 유대인을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시켰다

(c) 제2 성전 몰락과 더불어 일어난 두 번째 디에스포라(C.E.1-2세기). 이탈리아 반도 남부, 북아프리카와 남유럽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유대공동체가 생겨났다

(d) 4세기부터 10세기까지로 추정되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남부에서 북쪽으로 향한 이주로 현재 동북 프랑스와 북서 독일 일부인 라인계곡 주변 지역에 아쉬케나지(Ashkenazi) 유대사회의 초기 중심부가 생겨났다

(e) *Babel*로부터 서쪽을 향해 아프리카 북쪽 해안과 유럽 남쪽 해안, 특히 이베리아 반도에 도달한 이주행렬은 이슬람 세력의 서쪽 확장(7-8 세기와 그 이후)과 더불어 그 정점을 맞았다

(f) 동유럽을 향한 유대인 아쉬케나지 정착지 팽창은 11세기 후 시작해서 16세기까지 계속됐다

(g) 예멘, 중앙아시아, 카프카스 산맥, 흑해의 북쪽 해안, 그리고 아마도 이디오피아에까지 이민 행렬이 이어졌다.

각 주요 유대인 이주 운동의 경우에서, 기존 유대인 공동체에서 일부만이 이주해 나갔고 대부분은 잔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장소에 유대인민 공동체를 정착시키고 개발하는 프로세스에 참여한 그룹은 제한적이고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편, 기존 지역에 남은 사람들은 종종 소멸이 아니면 심각한 인구 침식으로 이어진 변화 프로세스에 노출되었다.

벤하민 드 투델라(Benjamin de Tudela)(ca. 1170)의 여행기록만큼 중세시대 유대인구의 지리적 분포와 특성을 잘 보여주는 기록도 없을 것이다. 현대 들어 까다로운 역사 조사도 통과했고, (최소한 분명히 방문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믿을 수 있고 권위 있다고 평가되는 이 기록에서 드 투델라는 상당한 양의 통계적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 중 일부는 그대로 믿을 수 있고 일부는 어느 정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서유럽과 근동처럼 좀 더 상세한 기록을 남긴 지역에 대해, 투델라의 데이터를 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각 세대를 4.375명과 곱했다. 세대당 4.375명이라는 수치는 신중하게 선택되었다.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다른 지역에 관한 데이터는 전체 인구수로 해석했다.

그 결과 이전에는 약 975,000명으로 믿어졌던 인구 수가 1170년경 총 120만 명이 살았던 것으로 수정되었다. 이렇게 조정된 유대 인구의 80% 이상이 아시아 대륙에 거주했다. 투델라 수치 중 일부, 특히 아라비아 반도의 대규모 유대인 집단 등은 사실 신뢰성을 많이 떨어져 보이고 일부는 터무니없어 보이기까지 하다. 이에 반해, 콘스탄티노플과 바그다드의 대규모 공동체에 관한 정보는 믿을 수 있어 보이고 서유럽 국가들에서 방문한 작은 공동체들이나 인구밀도가 낮고 적막한 성지에 관한 벤하민의 방문 기록도 신뢰할 수 있다.

다른 수 많은 기록에서도 입증되었듯이, 중세시대 유대세계에 대해 투델라가 제공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 단계에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중동에 주로 거주했으며 동유럽 거주 인구는 극히 적었고 드문드문 산재해 있었다는 점이다. 이후 이,삼백 년 동안, 동남 지중해에서 서유럽으로, 그리고 서유럽에서 동유럽으로 향한 이주를 통해 세계유대사회의 지리적 구성이 변경되게 된

다. 이들 지역 공동체의 성장 또한 출생과 사망률의 차별적 효과로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한편,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드 투델라가 묘사했거나 최소한 언급했던 공동체 중 일부는 완전히 용화되어 사라졌고 그 결과 "사라진 부족"이라는 전설이 생겨나게 된다.

1170년에서 1700년까지 비교적 안정적 규모를 유지했던 세계유대인구에서도, 유럽유대인구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이 시대의 수치를 믿을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아시아와 아프리카 공동체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1170년에서 1490년까지 유대사회의 중심은 서쪽으로 이동해 유럽으로 옮겨 왔고 서유럽의 유대인구 중심은 몇 차례의 연속적인 추방으로 주기적으로 말소되었다. 특히 15,16세기 전환기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추방되었다. 하지만 이주의 분산 효과 이외에도, 주된 유대인구 변동은 동유럽 내에서 발생했다. 17세기 동안, 중반에 발생한 Chemelnitzky 학살에도 불구하고, 동유럽에서 유대인구성장이 주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근대 인구통계적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는 사망률이 줄어 들고, 그 뒤를 이어 출생률까지 줄어 들었다는 점이다. 이를 보통 "인구통계적 변천(demographic transition)"²⁸⁾이라고 부른다. 근대 유대인구와 세계인구의 성장을 보면, 인구변화 요소가 근대화 되는 시기가 서로 다르다. 동일지역에서 보통 유대인구가 비유대인구에 앞서서 이러한 인구통계적 변천을 겪었다. 이에 따라, 유대인구에서 가파른 인구성장이 먼저 시작되었고, 또 근대 인구성장의 둔화도 먼저 경험하게 되었다.

1700년과 1939년 사이 주요 지역별 유대인구 규모와 지리적 분포의 주된 변동이 표1에 나와 있다. 동유럽, 서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바다 건너 새로운 정착지, 미주와 오세아니아에서 서로 다른 유대인구 성장을 볼 수 있다. 미대륙에서 후반에 발생한 유대인구 급성장은 국제 이민으로 발생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전세계 유럽 공동체의 사회적, 문화적 프로파일 재형성에 이민이 큰 영향을 준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지리적 중심뿐 아니라 유대사회의 주된 초점과 특성이 대 규모이민운동의 결과로 여러 번 크게 변동되었다. 이주로 유대인 개개인과 공동체가 헤어지고 다시 만났고, 그 결과 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촉발되었다. 다른 민족종교나 사회문화 그룹의 이주 경험에서도 유사한 상호연결을 찾아 볼 수 있지만, 유대인의 경우 더 오래 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지리적으로 더 복잡하고 유기적 연관이 있다.

이 중에서도 동유럽 유대사회의 인구변화 프로세스 진행이 특히 관심을 끈다. 중세의 아쉬케나지 유대인 수천 세대가 18세기에 가서는 수십만 세대로 늘어났고 19세기 말에 즈음해서는 수 백만대로까지 늘어났다. 현재 남아 있는 인구조사와 필수문서에서 부분적인 인구통계자료를 얻을 수 있고, 여기에 인구변화의 주된 요인(예상수명, 출생률 등)에 대한 비교적 간단하고 가능성 높은 가정을 더해 보면, 유대 인구통계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이 단계를 재구성해 볼 수 있다. 우선 이 재구성에서, 지리적으로 유대인구성장의 중심이었던 폴란드-리투아니아 공동체 기점뿐만 아니라 동쪽의 보헤미아, 갈리시아, 헝가리, 루마니아, 우크라이나의 동남지역전체, 러시아까지 훨씬 넓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동유럽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아쉬케나지 이전의 소규모 유대인구를 포함하기 위함이고, 또한 이들 지역으로 이주해 오거나 이주해 나가는 지리적 이동성이 이후 찾아 올 동유럽 유대인구 통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포괄적인 동유럽 유대인구 지리적 분포의 정의에서 유대인구는 1300년 25,000명,

28) Bachi, Roberto, *Population Trends of World Jewry*. Jerusalem: The Institute of Contemporary Jewry, The Hebrew University, 1976); Sergio DellaPergola, "Major Demographic Trends of World Jewry: The Last Hundred Years." In: Bonné-Tamir, B. and Adam, A., eds. *Genetic Diversity among the Jews*, (New York: 1992), pp. 3-30.

1490년 5만 명, 17세기 중반 Chemelnitzky 학살 이후 25만 명, 폴란드 유대민족에 대한 대규모 인구조사가 이루어진 1765년의 91만 명²⁹⁾, 1825년에 225만 명, 1880년 550만 명 이상, 1900년 850만 명 이상으로 증가된 것으로 관찰 또는 추정된다. 이러한 발전과 병행해서 연간 인구성장률이 유대인 정착 초기단계(14-15세기) 동안의 0.3-0.4% 에서 19세기 말 2% 로 점진적으로 늘어났다. 초기에 보다 빠르게 유대인구가 늘어난 이유 중 하나로 비롯 실제 숫자는 비교적 작지만 이민도 있다. 폴란드/리투아니아 중심지에서의 유대인구 성장률이 여기서 고려된 전체 지역 평균보다 높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어느 정도 예상된 시기에 이런 높은 성장률이 자리잡았을 것이다. 이러한 유대인구 성장률은 일반적으로 전체인구 성장률보다 높았고, 전체 인구에서 유대인이 차지하는 부분이 꾸준히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당시 다른 인구집단의 비교적 낮은 평균수명에 비해, 유대인 수명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유대공동체가 전통적인 종교적 관습을 준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식품관리, 개인과 가족 위생 기준, 비교적 많은 유대의사의 조언, 전통적으로 유대빈곤층에 주어지는 사회적 지원 등이 이에 속한다. 후기에 가서는, 사회경제적 차이의 영향이 유대인과 비유대인 그룹 사이의 지속적인 사망률과 출생률 격차를 결정지은 것으로 보인다. 더 넓은 보급된 도시화, 교육수준과 직업군의 큰 차이가 생존률 면에서 유대인에게 비교적인 장점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예외적은 아니지만 비교적 높은 유대인 출생률은 유대공동체의 폐쇄적인 동족결혼 문화 환경에서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이루어지는 보편적 결혼과 홀아비의 잦은 재혼에 대한 전통적 지원과 활발한 공동체 동원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6-7명의 아이를 낳는 평균 총 출생률은 과거 인구그룹에서 통례적으로 발견되어왔음을 주지해야 한다. 결국, 유대인 사망률 조기감소에 기여한 사회적 요인의 대부분이 유대인 출생률 감소의 조기시작과 빠른 진행에도 책임이 있다.

19세기 인구통계적 근대화의 확산이 전반적 출생률 하락을 가져온 반면, 근대화 트렌드가 전체 유대인구에 동시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었다. 같은 장소에 있었던 유대인구도 전부 다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다. 각 유대인 공동체에서, 대부분이 근대화를 받아 들였지만, 여전히 소수 파가 좀 더 전통적인 가족 행동양식을 고수했다. 출생률 패턴에서도 보여지는 이러한 차이가 사회계층을 구분 짓기도 했다. 당시 동유럽 유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상류계층과 유대인구 중 엄격하게 종교관습을 준수하는 계층 사이의 중복이다. 이러한 경향은 유대공동체 간, 또 동일 공동체 안 서로 다른 그룹 간 다른 인구 성장을 의미한다.

20세기 들어 세계유대인구에 관련해, 2개의 일련의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차세계대전 동안의 쇼아(Shoah)와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독립이다. 표1에서 동유럽과 중부 유럽에 있었던 대규모 유대공동체가 급격히 사라져갔고 서쪽으로 세계유대인구의 중심이 계속 옮겨졌음을 볼 수 있다. 한편, 1948년 이후, 이스라엘은 절대적인 면과 상대적 면 양쪽에서 빠르게 유대인구 성장의 중심이 되었다. 이차세계대전 종전에서 2004년까지, 이스라엘의 유대인구는 10배 이상 늘어났고 전체 유대인구에서 차지하는 몫도 5%에서 40%로 늘어났다. 오랜 중간 기간 동안 고대 고향에서 살았던 유대인의 구성비율이 최소가 아니면 아주 작았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세계유대인구에서 이스라엘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약 2000년 전 상황과 비슷하다는 점이 놀랍다.

표 2. 주요 지역 별 유대인구, 1948-2004년

지역	수(단위:1,000명) ^a	% ^a	% 변동
----	---------------------------	----------------	------

29) Stampfer, Shaul, "The 1764 Census of Polish Jewry." *Bar Ilan Annual*. 24-25, 1989, pp. 41-147.

	1948 ^b	1970 ^c	2004 ^d	1948 ^b	1970 ^c	2004 ^d	1948 ^b -1970 ^c	1970 ^c -2004 ^d	1948 ^b -2004 ^d
세계 총계	11,185	12,633	12,990	100.0	100.0	100.0	+13	+4	+16
아시아	1,275	3,080	5,206	11.4	24.3	40.1	+142	+69	+308
아시아 내: 이스라엘	650	2,582	5,165	5.8	20.4	39.8	+297	+89	+695
아시아 내 前 소비에트 연방	350	394	21	3.1	3.1	0.2	+13	-92	-94
기타 ^e	275	104	20	2.5	0.8	0.2	-62	-80	-93
아프리카	700	195	81	6.2	1.6	0.6	-72	-58	-88
북아프리카 ^f	595	71	5	5.3	0.6	0.1	-88	-89	-99
남아프리카 ^g	105	124	76	0.9	1.0	0.6	+18	-33	-28
유럽	3,550	3,088	1,536	31.7	24.5	11.8	-13	-50	-57
서유럽 ^h	1,035	1,119	1,068	9.3	8.9	7.9	+8	-5	+3
동유럽과 발칸 ⁱ	665	212	94	5.9	1.7	0.7	-68	-56	-86
유럽 내 前 소비에트 연방 ^j	1,850	1,757	374	16.5	13.9	3.3	-5	-79	-80
미주	5,620	6,200	6,059	50.2	49.1	46.6	+10	-2	+8
북미 ^k	5,100	5,686	5,661	45.6	45.0	46.0	+11	-0	+11
남미	520	514	398	4.6	4.1	3.2	-1	-23	-23
오세아니아	40	70	108	0.4	0.5	0.8	+75	+46	+54

a 반올림으로 인한 작은 차이 존재. b 5월 15일. c 12월31일. d 1월1일. e 유럽에 속한 터키의 아시아 지역. f 이디오피아 포함. g 남아프리카, 짐바브웨, 기타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들. h 2004년 1월 5일 유럽연합 가입 국가 제외. i 2004년 1월 5일 유럽연합 가입국가 포함. j 러시아의 아시아지역 포함. k 미국, 캐나다. l 호주, 뉴질랜드.

20세기 후반기 세계유대인구 분포의 변화는 표 2에 상세히 나와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국가에서 유대인 인구가 거의 사라졌고, 남아프리카와 남미에서 크게 감소했으며, 서유럽과 북미에서 안정세를 나타냈고, 오세아니아와 이스라엘에서 크게 성장했음이 눈에 띈다.

2.3.2 21세기 초반 세계유대인 인구

21세기 전환기에, 국제 정치군사적 개입, 사회경제적 발전과 교역, 문화적 교류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로 진정한 글로벌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세계적인 영향을 끼친 획기적 사건들의 예로, 철의 장막의 붕괴와 최대강국으로서의 소비에트 연방의 몰락, 독일 통일, 종교적 근본주의 특히 이슬람 원리주의의 부활, 유럽과 아프리카 일부의 "인종청소"의 재발, 대규모 국제적 이민의 새로운 물결, 중동 지역 평화 프로세스의 시작과 중단, 카톨릭 교회의 쇼아(Shoah)와 유대민족에 대한 새로운 입장 표명과 역사적 이스라엘 국가 인정, 유럽연합의 팽창과 화폐통합, TV휴대폰인터넷 등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시작 등을 들 수 있다.

세계 정치, 경제, 통신의 변화로 시간과 물리적 공간이 줄어들었다는 인식이 생겨났고, 여러 그룹 간 상호작용이 빈발해졌고, 이전에는 교류가 없었던 지역 사이에도 상호의존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일상생활과 정체성에 뿌리깊은 영향을 빠르게 끼쳤고 세계 사회의 국가, 공동체, 개인 간 경계를 새로이 정의했다. 세계유대사회도 이러한 변동요인과 그 사회적, 역사적 영향에 무관할 수 없었다. 유대인구와 그 특성의 변화 정도와 속도는 생물적-인구통계적, 문화적-정체성적 결정요인을 양쪽 다 반영하면서, 현대 유대역사와 사회의 주요 전환기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전세계적으로 유대인구가 지리적으로 재 분포되었고, 서로 경쟁하기도 하는 문화, 사회경제적 중심지가 여럿 등장했다³⁰⁾.

인구 트렌드의 일반적인 사회적 배경을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³¹⁾. 1970년과 2003년 동안, 세

30) DellaPergola, Sergio, "Changing Cores and Peripheries: Fifty Years in Socio-demographic Perspective," in Robert S. Wistrich (ed.) *Terms of Survival: The Jewish World Since 1945*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5) 13-43.

계총인구는 70% 이상으로 거의 25억 명이 늘어났는데, 이에 비해, 총 유대인구는 2%, 25만 명이 늘어난 것이 고작이다. 유대인구성장률은 0에 가깝고, (위의 "주요(core)" 정의에 따라) 2004년 1300만 명으로 추정된다. 미국 20002001년 NJPS에서, "非 일신교 종교," 유대 부 또는 모를 가졌거나, 유대 양육을 받은 사람들도 유대인 인구에 포함되었다³²⁾.

전체 세계인구에서 유대인이 차지하는 부분은 여전히 매우 작다. 세계인구 천명당 2명 정도이지만, 미국 인구에서는 2%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캐나다와 프랑스에서는 약 1% 이다. 1970년과 2003년 사이 유대인구 감소율을 보면, 전 소비에트 연방(FSU)의 유럽 지역에서 거의 80%, FSU의 아시아 지역과 북아프리카에서 91%, 나머지 동유럽과 발칸 지역에서 56%, 남아프리카에서 36%, 남미에서 22%로 줄어 들었다. 이 만큼 크진 않지만 북미(-0.5%), 서유럽(-5%)에서도 유대인구는 감소했다. 이에 반해, 오세아니아와 이스라엘의 유대인구는 각각, 거의 53%, 97% 이상으로 늘어났다.

보다 나은 사회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정치적 안정과 법적 평등의 전통이 잘 유지된 국가에 유대인구가 집중되었다. 21세기 초, 총 유대인구의 92% 가 삶의 질이 높은 20% 상위 국가에서 살고 있었다. 한 국가의 유대인 수와 해당 국가의 주요 사회 지표(예:인간개발의 UNDP 인테스) 간의 관계가 점점 더 뚜렷해 지는 것으로 보인다³³⁾. 저개발국의 유대인구는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20세기 상반기까지의 근대역사 동안 내내 지배적이었던 상황과 크게 달라진 것이다.

2.3.3 국제 이주의 역할

국제이주패턴은 유대인 인구규모와 분포에 큰 영향을 끼쳐왔고 유대인 삶 발전의 배경을 제공했다³⁴⁾. 이차세계대전 이후, 약 480만 명 유대인이 국제이주에 참여했다: 1948년과 1968년 사이 190만 명 1969년과 1988년 사이 100만 명 1989년과 2003년 사이 190만 명. 1969년 이후 이스라엘은 290만 명 유대인 이주민의 59%를 받아 들였고 나머지 41%는 주요 서구 국가에 분포되었다(표 3참조).

총 유대 이주민의 55%가 동유럽에서, 16%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13%가 서구 국가, 16%가 이스라엘에서 발생했다. (출신국가의 유대인구에 비해) 외국으로의 이주 빈도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숫자적으로 고갈된 공동체에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동유럽이 잇고 있고, 이스라엘과

31) DellaPergola, Sergio, *Jewish Demography: Facts, Outlook, Challenges*. (Jerusalem: The Jewish People Policy Planning Institute, 2003) (Alert Paper No. 2); DellaPergola, Sergio, Rebhun, Uzi, and Tolts, Mark, "Contemporary Jewish Diaspora in Global Context: Human Development Correlates of Population Trends", *Israel Studies*, 2004.

32) Kotler-Berkowitz, Laurence, Cohen, Steven M., Ament, Jonathon, Klaff, Vivian, Mott, Frank, and Peckerman-Neuman, Danyelle, *The National Jewish Population Survey 2000-01: Strength, Challenge and Diversity in the American Jewish Population* (New York: United Jewish Communities, 2003).

33)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Report 2004: Cultural Liberty in Today's Diverse Wor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34) DellaPergola, Sergio, "Aliya and Other Jewish Migrations: Toward an Integrated Perspective," in Usiel O. Schmelz and Gad Nathan (eds) *Studies in the Population of Israel in Honor of Roberto Bachi*, Scripta Hierosolymitana 30, 1986 (Jerusalem: Magnes Press) 172-209; DellaPergola, Sergio, "The Global Context of Migration to Israel," in Elazar Leshem and Judith T. Shuval (eds.) *Immigration to Israel: Sociological Perspectives*, Studies of Israeli Society 8, 1998 (New Brunswick and London: Transaction) 51-92; DellaPergola, Sergio, Rebhun, Uzi, and Raicher, Rosa Perla, "The Six-Day War and Israel-Diaspora Relations: An Analysis of Quantitative Indicators," in Eli Lederhendler (ed.), *The Six-Day War and World Jewry* (Bethesda, MD: Maryland University Press, 2000) 11-50.

서구 국가에서 훨씬 낮은 비율로 이민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소한 이민목적지로서 이스라엘 선호도 측면에서 *알리아(aliyah)*-유대인의 이스라엘 이주와 다른 유대인 이주 형태 분석에 이론적 설명이 더해져야 한다³⁵⁾. 최근 몇 년 동안 일반적으로, *알리아* 비율은 인간개발지수와 같은 출신국가의 전반적 개발 정도와 크게 반비례했다. 일단 이주하기로 결정한 후, 이주대상국가의 상황도 이민자의 선택에 영향을 끼친다. 예상보다 알리아 경향이 낮은 국가로는 대표적 영어사용 국가들(미국, 캐나다, 호주)이 있다. 이곳의 높은 생활 수준이 이주를 망설이게 하고 또 유대인 이주 대상지로서 이스라엘의 경쟁대상이기도 하다. 몇몇 남미 국가에서부터 발생하는 유대인 이주도 생각보다 낮는데, 이곳에서 최소한 과거에는 해당 사회의 불안한 상황에 비해, 지역유대공동체의 직접적 환경이 유리했다. 프랑스에서 최근 발생한 반 유대주의 사건들도 지금까지는 몇몇 논평자가 예측한 바와는 반대로 이민의 물결을 촉발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주가 중간 수준과 경향에 머물고 있는 이유 중 하나³⁶⁾는 풍요롭고 세련된 프랑스 사회가 유대인구에 갖고 있는 강력한 장악력 때문이다.

표 3. 주요 출신지와 이주 목적지 별 유대인구의 국제 이민 절대 수치, % 분포, 출신국가 유대인구1000명당 연간 비율, 1969-2002년

	1969	1977	1989	1997	
출신지와 이주목적지	-	-	-	-	합계
	1976	1988	1996	2002	
절대 수치, 1,000명 단위					
총계	451	589	1,240	535	2,815
연평균	56	49	155	89	83
%					
총계	100	100	100	100	100
동유럽 출신지에서	39	41	64	62	55
서구 국가로 이주	8	29	23	25	22
이스라엘로 이주 a	32	12	41	36	33
아시아-아프리카 출신지에서 b	14	14	19	10	16
서구 국가로 이주	5	7	1	1	3
이스라엘로 이주 a	9	8	18	9	13
이스라엘에서 f 서구 국가로 이주	20	24	11	17	16

35) Israel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Immigration to Israel* (Jerusalem: 2004).

36) Cohen, Erik H. with Ifergan, Maurice, *Les Juifs de France: Valeurs et Identité* (Paris: Fonds Social Juif Unifié, 2002).

서구 국가에서 이스라엘 ^a 로 이주	27	20	5	12	13
지역 소계					
서구 국가로 이주	33	60	35	43	41
이스라엘로 이주 ^a	67	40	65	57	59
출신국가 유대인구 1000명당 연간 이주					
총계	4	4	12	7	6
동유럽 출신지에서	10	12	110	97	51
서구 국가로 이주	2	8	38	40	20
이스라엘로 이주 ^a	8	3	72	57	31
아시아-아프리카 출신지에서 ^b	44	73	146	134	97
서구 국가로 이주	14	32	42	13	27
이스라엘로 이주 ^c	30	40	94	121	70
이스라엘에서 ^f 서구 국가로 이주	4	3	4	3	4
서구 국가에서 이스라엘 ^a 로 이주	2	1	1	1	1

^a1970년 이후 이주 시민 포함(서구출신).

^b1990년 이후, FSU의 아시아 지역은 아시아-아프리카에 포함됨.

^c여기서는 이스라엘로부터의 모든 이민 포함.

출처: Sergio DellaPergola의 "The Global Context of Migration to Israel" (1998) 58에서 발췌. 이스라엘 중앙 통계 부처(Central Bureau of Statistics), HIAS, 기타 소스 데이터에 기반.

이스라엘로부터의 이주(*yeridah*) 빈도는 이스라엘과 등등한 사회경제적 개발 레벨을 가진 국가에서 기대되는 알리아(*aliyah*) 율과 똑 같다. 이와 유사하게, 유대인의 이민 의사결정은 이스라엘과 디에스포라 양쪽에서 다 라이프스타일, 사회경제적 제약과 기회, 개인안전 등 실질적인 고려사항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인구와 공동체 성장을 촉진하고자 한다면, 좀 더 많은 유대인 이주자를 유치하고 유대인 거주자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 창출 능력이 이스라엘이나 세계 어디서나 중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된다.

2.3.4 유대인 정체성 지표

유대인 정체성은 장기에 걸친 유대인 경험의 결정요소이자 강력하고 매력적인 동기부여요소이다³⁷. 유대인 정체성은 역사적 관점의 여러 변화와 현 유대인구 정주위치의 다양한 정치적, 문화적 정황을 반영한다³⁸. 유대인개인과 집단 정체성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지표는 없다. 유대인 정체성은 종교적 믿음과 행동양식, 민족, 사회생활, 지식, 사회 네트워크, 공동사회의 적극적 행동주의, 이스라엘에 대한 애착 등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다양한 국면 사이에 일정 상호관계가 존재하는 동시에 상호간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유대인 정체성은 고(高)에서 무(無)까지 강도가 다르고, 내용면에서 여러 다양한 차원을 지니는 등, 하나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유대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래 지표를 보면 국가별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식유대 교육(주간학교)을 받는 학생수가 디에스포라 전역 보다 이스라엘에서 예상대로 훨씬 높다. 이스라엘에서, 모든 취학연령 유대인구는 다양한 국가와 독립적(국가지원)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적 헤브루와 유대 교육을 받고 있다. 최근 발생한 비교적 적은 수의 중퇴자는 예외이다. 다른 국가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정식유대교육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취학연령 유대아동들의 퍼센트가 안정적이 되거나 들어났다. 이러한 증가는 주간유대학교의 영향이 낮았던 국가들의 경우 특히 의미가 있다. 프랑스에서 주간유대학교의 영향이 낮았고 미국에서는 매우 낮았고 前 소비에트 연방(FSU)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몇몇 남미국가, 남아프리카, 호주에서는 이전부터 유대교육설비를 잘 갖추고 있고 등록비율도 높다. 하지만 최근 유대주간학교의 출석률이 늘어난 만큼 방과후 학교나 일요일 학교와 같은 다른 유대교육프로그램이 타격을 입었다.

타민족과의 결혼은 유대인 정체성이 약해지는 지표로 여겨진다. 타민족 결혼의 범위로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의 정기적 상호교류와 상호수용 정도를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유대소수민족 측면에서는 공동체 체제와 배타적 가치의 깊이와 정도, 사회 대다수 측면에서는 개방성과 사회적 친화도를 나타낸다. 국가별 타민족과의 결혼 빈도는 크게 차이가 난다. 역사적 융합 패턴 차이와 유대인구 수에 따른 유대인 배우자선택기회 등을 반영한다. 최근까지 유대인과 비유대인간의 결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서는, 최근 귀환법 체제 안에서 비유대인 이민이 늘어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처음으로 이루어진 타민족과의 결혼 통계조사에서 비유대인 배우자가 총 배우자의 5%에 육박하는 것을 나타냈다. 이스라엘 밖에서는, 유대주간학교 재적율이 늘어난 반면 타민족과의 결혼 비율을 떨어지고 있다. 최근 결혼에서 30% 이하의 비교적 낮은 빈도를 보인 나라로는 멕시코, 남아프리카, 호주 등이 있다. 이에 반해 60-80%의 높은 빈도를 보인 나라로는 FSU, 기타 중앙동유럽 국가, 유대인구 수가 적은 기타 서구 국가 등이 있다. 미국의 현재 50% 보다 훨씬 높은 타민족과의 결혼률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구 수만 많다고 유대 그룹 내 상호교류, 사회생활, 결혼이 활발해지지 않는음을 보여준다.

이스라엘로의 이주는 이스라엘 사회 구축에 중심역할을 할 뿐 아니라 디에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느끼는 정신적, 물리적 친근함의 지표이기도 하다. 2003년, 1989년 FSU로부터의 대형 엑소더스 시작 이후 가장 낮은 알리아(*aliyah*) 귀환이 기록되었다. 23,000명의 새로운 이민이 이스라엘에 도착했고 그 중 80%는 이스라엘보다 개발 정도가 낮은 국가에서 이민 왔다. 앞서 밝혔듯, 알리아 결정에 있어, 이스라엘에 대해 느끼는 문화적, 경제적 애착은 물리적 위험, 정치적 제약, 사회경제적 기회 등 실질적 고려사항에 크게 좌우된다.

이스라엘 방문은 유대인 정체성의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 유대인 대다수가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미국에서 예외로 오직 3분의 1만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하지

37) Herman, Simon, *Jewish Identity: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Beverly Hills and London: Sage Publications, 1977).

38) Liebman, Charles S., Cohen, Steven, M., *Two Worlds of Judaism: The Israeli and American Experienc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0); Horowitz, Bethamie, "Reframing the Study of Contemporary American Jewish Identity". *Contemporary Jewry*, 23, 2002, 14-34; Gitelman, Zvi, Kosmin, Barry, Kovács András, *New Jewish Identities: Contemporary Europe and Beyond* (Budapest and New York: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2003).

만, 지난 20년 동안 총 방문자수는 계속 크게 늘어났고 특히 장년층이상에 방문이 늘어났다. 이전에는 FSU에서 오는 방문자 수가 크게 적었는데 이는 과거 고립과 여행비용 때문이었다.

표4에서 전세계 주요 국가와 지역에서 삶의 질과 관련된 유대인 정체성의 주요 지표를 보여 준다.

Country	Jewish Population (Core Definition)			Index of Human Development 2002 ^d		Jewish Day-school Attendance Rate (%) ^a	Recent Out-marriage Rate (%) ^a	Aliyah 2003 ^e	Ever Visited Israel (%) ^a
	1970 ^a	2003 ^b	Projected 2020 ^c	Value	World Rank				
World	12,633,000	12,950,000	13,558,000	.956-.273	1-177			23,226 ^f	
Israel	2,582,000	5,094,000	6,228,000	.908	22	97	5	-	-
North America	5,686,000	5,671,000	5,581,000	.939-.943	4-8			1,873	
United States	5,400,000	5,300,000	5,200,000 ^g	.939	8	29 ^h	54	1,687	35
Canada	286,000	371,000	381,000	.943	4	55	35	186	66
Latin America	514,000	401,000	364,000	.888-.463	29-153			2,493	
Argentina	282,000	187,000	149,000	.853	34	50-55	45	1,371	>50
Brazil	90,000	97,000	87,000	.775	72	71	45	205	>50
Mexico	35,000	41,000	42,000	.802	53	85	10	72	>70
Other countries	107,000	76,000	86,000	.888-.463	29-153	75	15-95	845	>50
Europe non-FSU	1,331,000	1,161,000	1,030,000	.956-.734	1-88			2,691	
France	530,000	498,000	482,000	.925	16	40	40-45	1,789	>70
United Kingdom	390,000	300,000	238,000	.930	12	67	40-45	330	78
Germany	30,000	108,000	108,000	.921	19	<20	>60	57	>50
Hungary	70,000	50,000	34,000	.837	38	<15	60	37	..
Other EU ⁱ	171,000	151,000	134,000	.946-.842	2-42	10-25	33-67	253	>50
Other non-EU	140,000	54,000	34,000	.956-.751	1-88	5-20	50-80	225	..
FSU^j	2,151,000	413,000	173,000	.853-.671	36-116			12,383	
Russia	808,000	252,000	130,000	.795	57	<15	80	4,824	..
Ukraine	777,000	95,000	25,000	.777	70	<15	80	3,853	..
Rest FSU	312,000	43,000	15,000	.853-.681	36-113	<15	65-75	1,209	..
Europe	254,000	23,000	3,000	.766-.671	78-116	<15	50-75	2,497	..
Other FSU Asia	104,000	19,000	21,000	.938-.482	9-149			370	..
Asia (rest)^k	195,000	84,000	60,000	.853-.273	35-177			3,342	
Thereof South Africa	118,000	75,000	57,000	.666	119	85	20	88	70
Oceania	70,000	107,000	101,000	.946-.542	3-133			61	
Thereof Australia	65,000	100,000	95,000	.946	3	65	22	60	79

a Source: Division of Jewish Demography and Statistics, The A. Harman Institute of Contemporary Jewry,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b Source: DellaPergola (2003a).
c Source: adapted from DellaPergola, Rebhun, Tolts (2000), medium variant.
d A measure of a country's public health, educational attainment, and economic standard of living. Sourc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04).
e Israel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04).
f Including country not reported.
g After downward reduction following NJPS 2001.
h Based on incomplete sample from NJPS 2001.
i Without Baltic states.
j With Baltic states. Revised population projections for 2020.
k Without Israel and FSU.

Table 4. Selected Indicators on World Jewry

2.4 세계 유대인 인구규모와 지리학적 분포현황(2004)

2.4.1 세계적인 현황

2004년 초기 세계 유대인 인구의 수는 약 12,989,700으로 추산된다. 세계 유대인은 세계 총인구 6십3억1천4백만 인구 중 1000명당 2.06명 정도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새로운 통계에 따르면 2003년 1월 1일과 2004년 사이, 유대인 인구는 약 4만 1천 5백명까지 증가했고, 이는 약 0.3 퍼센트 증가한 것이다. 이는 1.3퍼센트의 총 세계전체인구의 증가와 비교된다. (더 발전된 국가에서는 0.1퍼센트, 덜 발전된 국가에서는 1.6퍼센트). 이 통계는 불완전한 것이지만, 세계 유대인 인구는 이스라엘에서의 인구성장과 더불어 디에스포라에서의 인구감소를 서서히 극복하면서 제로성장률에 가까운 증가율(-1.4%) 을 보여오고 있다.

이스라엘에서의 유대인인구의 수는 2003년 5,094,200에서 2004년 초기 5,165,400까지 증가했고, 이는1.4%에 해당하는 71,200명이 증가한 셈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디에스포라에 있어서 추정되는 유대인 인구는 7,854,000에서 7,824,300으로 0.4%에 해당하는 25,700명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FSU와 다른 나라로부터 지속적인 유대인의 이민과 디에스포라 유대인 집단의 내부적인 감소추세를 반영한다. 2003년, 추정되는 이스라엘 디에스포라 총 이주 합계(이민 들어 온 인구-이민나간 인구)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5,200명 유대인의 증가를 의미한다³⁹⁾. 이 계산에는 처음에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외국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인구를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내부적인 인구학적 증가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인구의 증가와 디에스포라에서의 인구감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유대주의에의 접근과 귀환에 대한 예들은 동유럽과 에디오피아로부터의 인구의 통합과 이민, 그리고 귀환에 대한 이스라엘 법의 포괄적인 제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인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개인들의 유대주의로의 귀환은 적절한 디에스포라 유대인 인구들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였고 이스라엘에서의 인구의 증가와 연결되었다.

주목하다시피, 이 변화들은 유효하게 된 새로운 정보의 측면에서 볼 때 이전에 발표되었던 유대인인구의 수치에서 나타난다. 표5는 1945년부터 2004년까지 기간과 관련된 모든 통계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한 것이고, 이는 세계 유대인 인구 추정에 대한 개요이다. 이 보완된 정보는, 때로는 중요하게, 1980년까지는 다른 국가들에 의해서, 1981년부터는 우리에게 의해서 발표된 통계들을 수정한 것이다. 데이터 베이스에 추가된 년도들 덕분에, 이 새로운 정보는 AJYB에서 매년 출간된 보완된 통계들과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추가 보완된 통계들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연구를 반영해야할 필요가 있다.

표5에서의 통계들은 명백하게 2차 세계대전 이래로 유대인 인구가 전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후기 쇼아 세계에 근거해서, 유대인 인구는 11,000,000 인데 이는 1945년부터 1960년 사이에 1,079,000의 성장을, 1970년에는 234,000명의 증가를, 1980년에는 49,000명, 1990년에는 32,000명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세계 유대인의 전후 인구가 백만명 증가하는데 13년이 걸리는 동안, 그 다음 45년은 또 다른 백만명이 증가하는데 충분하지 않았다. 표5는 또한 유대인 인구의 느린 증가에 대하여 총 세계 인구의 비율과 세계인구중 감소하고 있는 유대인 인구의 수를 보여준다. 2004년에, 세계인구 1000명당 유대인 인구는 1945년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약 47퍼센트의 유대인인구가 미국에 거주하고 북아메리카에는 약 44퍼센트가 거주하

39) Israel,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Jerusalem, 2004).

고 있다. 구소련의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하여, 아시아에서는 약 40퍼센트(그러나 러시아 공화국과 터키는 아시아의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스라엘에 거주한다. 유럽과 러시아와 터키를 포함한 아시아 영토는 총 유대인 인구의 12퍼센트가 거주하고 있다. 세계 유대인 인구의 2퍼센트 미만이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에 살고 있다.

표3에서 제시된 주요한 지리적 영역 중, 이스라엘에서의 유대인 숫자와 총 아시아에서, 2004년에 증가하였다. 완만한 유대인 인구의 증가는 또한 25개국을 포함한 유럽연합과 오세아니아에서도 발견된다. 우리는 유대인 인구의 수가 북, 중앙, 남미,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구소련과 아프리카에서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들의 변화는 각 주요한 국가에서 유대인 인구들에 대한 분명한 추세를 반영한다. 우리는 지금 가장 큰 유대인 인구 중 최근의 추세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표5. 세계 유대인구와 전체인구, 1945-2004

Year	Jewish Population		World Population		Jews per 1,000 of World Pop.
	Total Estimate ^a	Yearly % Change	Total (Millions)	Yearly % Change	
1945, May 1	11,000,000		2,315		4.75
1950, Jan. 1	11,297,000	0.57	2,524	1.87	4.48
1960, Jan. 1	12,079,000	0.67	3,027	1.83	3.99
1970, Jan. 1	12,585,000	0.41	3,702	2.03	3.40
1980, Jan. 1	12,819,000	0.18	4,447	1.85	2.88
1990, Jan. 1	12,868,000	0.04	5,282	1.74	2.44
2000, Jan. 1	12,900,000	0.02	6,010	1.30	2.15
2004, Jan. 1	12,989,700	0.17	6,314 ^b	1.42	2.06

^a Based on updated, revised, or otherwise improved information. Source: The A. Harman Institute of Contemporary Jewry,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b Mid-year estimate of preceding year. Source: Population Reference Bureau.

2.4.2 북아메리카

표6에서 보듯이, 이 중요한 연구는 2000-2001 전국 유대인 인구조사(National Jewish Population Survey (NJPS))⁴⁰⁾와 2001 미국 유대인 정체성 조사(American Jewish Identity Survey (AJIS))⁴¹⁾를 통하여 수행되었다. 2001 NJPS는 the United Jewish Communities (UJC)에 의하여 후원 받았고, National Technical Advisory Committee의

40) Kotler-Berkowitz et al., 2003.

41) Egon Mayer, Barry Kosmin, Ariela Keysar, *American Jewish Identity Survey 2001 - AJIS Report - An Exploration in the Demography and Outlook of a People*(New York, Center for Jewish Studies, The Graduate Center of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2002). See also Barry A. Kosmin, Egon Mayer, Ariela Keysar, *American Religious Identification Survey 2001* (New York: Graduate Center of City University of New York, 2001).

대표인 Frank Mott and Vivian Klaff에 의하여 감수되었다. Random Digit Dialing (RDD) 표본은 유대인 인구의 밀도에 관한 이전의 조사에 근거하여 미국을 일곱 개의 하위 그룹으로 나누었고, 이는 각 계층에서 유대인 인구의 밀도에 비례하여 추측한 표본들이다.

175,000이 넘는 가구들은 다음의 네가지 질문에 근거하여 분류되었다. 1) 종교가 있다면, 당신이나 다른 성인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2) 당신이나 다른 성인은 유대인 어머니나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3) 당신과 다른 성인들은 유대인으로 길러졌습니까 4) 당신이나 다른 성인들은 당신, 그, 그녀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예 또는 아니오 이상의 답변을 포함하며, 유대인 인구의 정의에 대한 비이분법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1990년 NJPS 와 엄격하게 비교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출된 범주는 처음부터 알려져 왔다. 마지막의 부분별한 표본은 4,523명의 유대인 가구에 대하여 4,220의 유대인 답변자와 유대인 배경을 가진 303명, 625명의 유대인 배경을 가진 비유대인, 9,175의 답변 가구에 대하여 4,027명의 비유대인을 포함한다. 그 4,207명의 비유대인 가구들은 유대인 인구의 크기를 측정하고 유대인 인구와 전국 종교와 에스니시티에 관한 연구(National Survey of Religion and Ethnicity (NSRE))를 위하여 인터뷰 되었다. 이 인터뷰는 유대인 인구의 규모를 측정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회인구학적 주제에 대한 유대인과 PJB에 대한 비교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수행된 인터뷰의 응답률은 28퍼센트였다. 비율은 가구에 연결된 성공한 통화의 수에 따라 측정되었고, 표본 가구와 응답자의 정보는 미국으로 가져왔다. 계층, 연령, 젠더, 종교를 구분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하였다⁴²⁾. 다음의 극도로 낮은 응답률, 선택적인 인구 누락, 그리고 현장조사과정 동안의 다른 부적절한 과정들이 있었다는 주장에 따라, NJPS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에 실시하였다. 낮은 응답률, 절절한 하위인구의 비일관적인 포함, 정부의 손실등과 같은 방법론적인 단점들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면서, 이 연구는 전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의 기준과 편견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⁴³⁾.

총 유대인 인구는 4백3십만으로, 분명하게 유대인과 연결된 사람들과 덜 직접적으로 유대인 배경과 관련 있는 8십만의 사람들, 그리고 기관들에 십만이 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5백 2십만으로 추정된다. 첫 번째 그룹으로부터의 응답자들은 조사의 변수들의 제한되고 선택적인 변수들을 포함하는 긴 형태의 질문지에 응답했다. 최소한 한명의 유대인을 가진 2백 9십만의 가구들 중 총 개인들은 8백 7십만으로 추정되며 1990년에는 좀 더 증가하였다.

주요한 전국의 유대인 인구조사가 수행되는 동안 2001년 AJIS 와 같은 유대인 기관과 연구 단체안에서 중요한 이의가 제기되었다. AJIS는 전국적인 RDD 표본에 근거하고 있다. 모든 성공적인 접촉들 중에서, 50,238의 응답자들의 모두는 인터뷰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 일련의 질문들을 추출한 후, 1990년 NJPS 에서와 같이, 1,668의 응답자들은 미국 유대인 가구의 연구에 포함될 자격을 갖추었고, 이는 18퍼센트의 응답률을 보였다⁴⁴⁾. 이 추정된 핵심 유대인 인구들은 종교가 없고 유대인을 자의적으로 선택한 유대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의 유대인들은 5,340,000이다. 이들 중 3,460,000명은 태생적으로 유대교를 가지며, 170,000은 자발적 선택에 의하여 유대교로 개종하였고, 1,710,000명은 종교 없

42) Kotler-Berkowitz et al., 2003.

43) Schulman, M., "National Jewish Population Survey 2000-2001: Study Review Memo" (New York: United Jewish Communities) 2003.

44) Mayer, Kosmin, Keysar, 2002, and Barry Kosmin, personal communication.

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유대인과 다른 유대인 배경을 가진 이들은 총 7,690,000이다. 현재 핵심적인 유대인적인 특성을 갖지 않은 가구를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AJIS 정보는 개념적으로 NJPS의 통계와 일치한다.

이 두개의 주요한 조사는 5백 2십만에서 5백3십5만 정도로 유대인 인구가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NJPS는 5백 10만 이하일 것이다. 하지만, 각 기관들에서의 사람들과 연령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다면, 약 5백 2십만에 달할 것이다. 5백 3십만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를 가정해 볼 때, 개정된 2001년의 수치는, 이전의 NJPS로부터 나온 1990년대 중반의 보고 된 5백5십만 1천 5백명에 기반 한 2002년의 5백 7십만중 적어도 4십만이 적은 수치다⁴⁵⁾. 유대인 인구의 증가는 적어도 2십만의 새로운 이민자들의 1990년대 동안 구소련, 이스라엘, 라틴아메리카, 남아프리카, 이란과 서유럽으로부터의 유입을 반영한다. 그러나 유대인구의 저출산률이 계속되면서, 인구구성에 있어서의 결과적인 노령화 그리고 비교적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약한 유대인 정체성에 대한 경향은 명백하게 총 유대인 인구의 수를 심각하게 감소시켰다. 지난 50년 동안 미국에서 수행된 유대인 인구에 대한 연구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불충분한 정부의 조합보다는 현실적인 인구적인 추세에 대하여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⁴⁶⁾.

2002년의 뉴욕과 미국의 주요 대 도시에 있는 유대인 인구에 대한 연구는 8개의 borough 의 확장된 지역에서 1백 4십만의 안정적인 유대인 인구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⁴⁷⁾. 그러나 이 세기의 처음 3/4 기간동안, 뉴욕의 5개 borough에서 백만명 이하였다.

표 6. ESTIMATED CORE JEWISH POPULATION DISTRIBUTION IN THE AMERICAS, 1/1/2004

Country	Total Population	Jewish Population	Jews per 1,000 Population	Accuracy Rating
Canada	31,600,000	371,000	11.7	B 2001
United States	291,500,000	5,290,000	18.1	B 2001
Total North America*	323,227,000	5,661,000	17.5	
Bahamas	300,000	300	1.0	D
Costa Rica	4,200,000	2,500	0.6	C 1993
Cuba	11,300,000	600	0.1	C 1990

45) See Kosmin et al. *Highlights of the CJF 1990 National Jewish Population Survey*, cit.

46) Sergio DellaPergola, "Was It the Demography? A Reassessment of U.S. Jewish Population Estimates, 1945-2001", *Contemporary Jewry*, 2004 (forthcoming).

47) See <http://www.ujafedny.org/site/PageServer?pagename=jewishcommunitystudy>

Dominican Republic	8,700,000	100	0.0	D
El Salvador	6,600,000	100	0.0	C
				1993
Guatemala	12,400,000	900	0.1	A
				1999
Jamaica	2,600,000	300	0.1	B
				1995
Mexico	104,900,000	39,900	0.4	B
				2001
Netherlands Antilles	215,000	200	0.9	B
				1998
Panama	3,000,000	5,000	1.7	C
				1990
Puerto Rico	3,900,000	1,500	0.4	C
				1990
Virgin Islands	115,000	300	2.6	C
				1986
Other	23,300,000	300	0.0	D
Total Central America	181,530,000	52,000	0.3	
				0
Argentina	36,900,000	185,000	5.0	C
				2002
Bolivia	8,600,000	500	0.1	C
				1999
Brazil	176,500,000	96,800	0.5	B
				2001
Chile	15,800,000	20,800	1.3	C
				1995
Colombia	44,200,000	3,300	0.1	C
				1996
Ecuador	12,600,000	900	0.1	C
				1985
Paraguay	6,200,000	900	0.1	B
				1997
Peru	27,100,000	2,400	0.1	C
				1993
Suriname	420,000	200	0.5	C
				1986
Uruguay	3,400,000	19,600	5.8	C
				2001
Venezuela	25,700,000	15,600	0.6	B
				1999
Total South America^a	358,420,000	346,000	1.0	
				0
Total	863,177,000	6,059,000	7.0	
				0

a Including countries not listed separately.

2004년에 대한 전 미국에 대한 통계는 2001년의 조사를 통해서 발표된 계속되는 이민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성의 고령화와 유대인 출산률 수준이 (결혼의 출산된 아동을 포함해서도) 인구학적 기대 이하에 이르는 것이 사실상 고정된 추세임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인구인 유대인은 5백만 2십 9만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한다.

캐나다에서는, 유대교를 가지지 않는 이들을 포함하여, 1991년 369,565에서 2001년 348,605명의 유대인 인구가 있는데, 이는 유대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⁴⁸⁾. 2001년

48) See <http://www.statcan.ca>

에 조사된 이들 중 186,475명은 그들 자신을 단일한 민족으로서 유대인으로 밝히고 있으며, 162,130명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그들이 가진 여러 민족정체성중의 하나라고 여기고 있다. 2001년 유대민족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1981년의 90퍼센트에서, 1991년의 66퍼센트, 53퍼센트까지 감소하고 있다. 다른 한편, 종교에 따르면 캐나다의 유대인수는 1991년 318,070명에서 2001년 329,995명까지 증가되었다. 후자의 총합에서, 22,365명의 유대인들은 두 개의 인구조사기간, 10년 동안 이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 이민이 없다면, 유대인 인구는 10,440(3.3%)까지 감소하였을 것이다.

어떤 유대인 민족은 종교에 의하여 유대인이 아니고, 많은 유대인들이 종교가 유대민족성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1991년에 356,315명과 비교해 볼 때 4%가 증가한, 370,520명의 수치는 캐나다의 유대인 인구에 대한 증가이다⁴⁹⁾. 이 숫자는 유대인이 다양한 민족 정체성 중에 단지 하나라고 생각하는 개인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유대인 인구의 개념과 비교해 볼 때 엄격하게 적용될 수 없다. 이들 중 일부는 더 포괄적인 유대 인구를 포함할 수도 있다. 캐나다로의 지속적인 이민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2004년 캐나다에서의 유대인 인구를 371,000명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인구 집단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

2.4.3 라틴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유대인구는 경제적, 지역적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일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위기가 감소하면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민에 관한 특별한 인센티브가 중단됨에 따라, 2002년 약 6,000명이 이스라엘로 돌아간데 반해, (그 세기로부터 단일해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03년에는 1,500명이 이스라엘로 이민 나갔다⁵⁰⁾. 하지만, 공식적인 증거들은 이스라엘로의 지속적인 높은 이민 비율을 지적한다. 첫 세해 동안 약 10퍼센트로 유대인구가 감소했으며⁵¹⁾, 결과적으로 현재 아르헨티나의 유대인 인구는 2004년에 185,000명에 해당하며 이는 세계에서 7번째로 큰 규모이다.

브라질의 200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1991년의 86,416명에 비해서 86,828명으로 다소 안정적인 유대인 인구수를 보이고 있다⁵²⁾. 종교와 상관없이 유대인 인구를 고려해 볼 때, 우리는 브라질의 인구를 2003년에 97,000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 그리고, 2004년에 96,800 명의 완만한 이민을 고려해 볼 때, 세계의 열 번째 큰 인구집단이다. 이것은 상파울로의 유대인 연합에 의하여 수행된 체계적인 자료화의 노력으로 일관적으로 보이고⁵³⁾, 브라질의 유대인의 반은 그 도시에 살고 있다.

멕시코에서의 2000년 인구조사는 5세 이상의 개인 45,260명의 유대인 인구를 포함하고 있다⁵⁴⁾. 이들 중 32,464 명은 수도나 대도시 지역에서 사는 반면, 과거 인구조사에서

49) Charles Shahrar, *The Jewish Community of Canada* (Toronto, 2004).

50) See Israel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http://www.cbs.gov.il>

51) Shmuel Adler, *Emigration among Immigrants from Argentina that Arrived During the Period 1.1.89-31.12.02* (Jerusalem: State of Israel Ministry of Immigrants Absorption, Division of Planning and Research, 2004).

52) See <http://www.ibge.br>; Rene D. Decol, "Brazilian Jews: a Demographic Profil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Jewish Demography (Jerusalem, 2002).

53) FISESP - Federao Israelita do Estado de Sao Paulo, Recadastramento comunitario 2000-2001 (Sao Paulo, 2002).

특이하게 일관적으로 대부분의 12,796명들은 멕시코 주와 연방영역보다 States에 사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2000년 유대인 조사에 근거하여, 0세에서 4세에 해당하는 그룹은 거대한 멕시코시티에서 약5,00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전국적으로는 40,000명이다. 2004년에는 소수의 이주자를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세계의 14번째로 큰 유대인 인구집단으로 멕시코를 추정할 수 있다.

남아메리카에서의 다른 주요 유대인 커뮤니티는 칠레에 위치해 있으며⁵⁵⁾ 현재 인구 규모는 우르과이나 베네수엘라보다 더 크다⁵⁶⁾. 베네수엘라는 최근, 많은 유대인들이 이민을 나가고 있다.

2.4.4 유럽연합

유럽에서의 유대인 인구(표7)는 점차적으로 대륙의 서쪽 부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2004년 5월1일, 유럽연합은 구소련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동유럽의 체코공화국,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그리고 두 개의 남유럽 국가 사이프러스와 말타를 포함하여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2004년 늘어났다. 따라서, 유럽연합에서의 유대인 인구는 1,121,500명에 도달하게 되었고, 이는 유럽의 총 유대인구의 73퍼센트를 구성하고 있다. 유럽에서 다른 구소련의 공화국들에는 54,200명의 유대인들이 있다.

유럽에서의 가장 큰 유대인 커뮤니티는 프랑스에 있다. 프랑스에서는 2002년 초 수행된 새로운 국가범위의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이 연구는 500,000명의 유대인과 유대인 가구 중 75,000명의 비유대인들을 포함하고 있다⁵⁷⁾. 이 유대인 인구에 대한 이전의 조사에서 유대인구는 519,000명으로 추정된다. 몇 년 동안 정리된 차이점들은 약 1800명에 해당하는 프랑스 유대인인구의 이스라엘로의 이주가 증가하였고, 캐나다와 다른 나라로의 이민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른 나라로의 이민은 신체적인 폭력을 포함한 반 유대주의의 증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유대인에 대한 2004년의 조사에서는 유대인 인구가 496,000명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에 해당한다.

영국에서의 이루어진 2000년 전국적인 인구조사는 종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⁵⁸⁾. 영국, 웨일즈, 스코트랜드, 그리고 북 아일랜드에는 266,741명의 총 유대인 인구가, 2002년에는 273,500명의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영국인구의 22.8퍼센트가 종교가 없다고 언급했고 다른 7.3퍼센트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조직화된 유대인 커뮤니티가 인구조사에서의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이 수치는 300,000명까지 증가될 수 있다고 보인다. 스코트랜드에 대한 인구조사로부터 얻게 된 자세한 정보들은 현재 유대종교를 가진 6,448명과 유대인으로서 성장한 7,446명을 가리

54) See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Geografía e Informática, XII Censo General de Población y Vivienda 2000(Mexico City, 2002).

55) Gabriel Berger et al., *Estudio Socio-Demográfico de la Comunidad Juíva de Chile* (Santiago-Buenos Aires, 1995).

56) Sergio DellaPergola, Salomon Benzaquen, and Tony Beker de Weinraub, *Perfil sociodemográfico y cultural de la comunidad judía de Caracas* (Caracas, 2000). The survey was sponsored by the Asociación Israelita de Venezuela, the Union Israelita de Caracas, and the Asociación de Amigos de la Universidad Hebrea de Jerusalén.

57) See Erik H. Cohen with Maurice Ifergan, *Les Juifs de France: Valeurs et identité* (Paris, 2002).

58) See <http://www.ons.gov.uk>. See also Barry Kosmin, Stanley Waterman, "Commentary on Census Religion Question" (London: JPR, 2002).

킨다⁵⁹⁾. Board of Deputies Community Research Unit 에 의하여 수집된 중요한 통계는 유대인 출생률에 대한 (2002년 2,665) 유대인 사망률(2002년 3,670명, 2003년 3,592명)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준다.⁶⁰⁾ 지속적인 유대인 인구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는 영국의 총 유대인인구(2004년 299,000명)는 세계의 5번째로 큰 그룹으로 추정된다.

독일에서는 유대인 인구의 경미하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3년, 6,224명의 유대인이 구소련으로부터의 독일로 들어왔고, 2002년 6,597명은 독일의 유대인 커뮤니티의 멤버로서 기록되었다⁶¹⁾. 2002년 이래로, FSU로부터 온 확장된 개념의 유대인과 비유대인 가족들은 이스라엘로 반복적으로 이주해 나간 숫자보다 더 크다. 중앙의 유대인 커뮤니티에 등록된 핵심적인 유대인의 총수는 한해 이전에 98,335명으로 보고된데에 반해, 2004년 초에는 102,594명으로 증가하였다. 현재의 합계 중, 13,000명 이하가 1990년 말에 존재했던 28,081명의 초기 생존자 그룹이며, 나머지는 최근의 이주민들이다. 예전의 유대인과 새로 정착한 유대인들의 연령구성은 과도하게 고령화되어 있다. 2003년 독일에서는 164명의 유대인들이 출생하였고, 1,188명이 사망하였다. 이는 왜 유대인 커뮤니티의 총인구가 심각하게 새로운 이민자들의 총수보다 적은지를 설명해 준다. 조직화된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이 지연되고, 구성원들이 고유한 소수자로서의 특성이 희석화 되어 가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독일의 핵심적인 유대인인구가 112,000명으로 세계의 8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표 7. 유럽에서 핵심적인 유대인구의 분포에 대한 추정, 1/1/2004

Country	Jews per			Accuracy Rating
	Total Population	Jewish Population	1,000 Population	
Austria	8,200,000	9,000	1.1	B 2001
Belgium	10,400,000	31,300	3.0	C 2002
Denmark	5,400,000	6,400	1.2	C 2001
Finland	5,200,000	1,100	0.2	B 1999
France ^a	59,800,000	496,000	8.3	B 2002
Germany	82,600,000	112,000	1.4	B 2002
Greece	11,000,000	4,500	0.4	B 1995
Ireland	4,000,000	1,200	0.3	B 2001
Italy	57,200,000	28,800	0.5	B

59) United Kingdom, Scotland, General Register Office (Edinburgh, 2002).

60) The Board of Deputies of British Jews, Community Research Unit, *Report on Community Vital Statistics 2003*(London, 2004). See also Stephen Miller, Marlana Schmol, and Antony Lerman,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of British Jews: Some Key Findings of the JPR Survey* (London, 1996).

61) Zentralwohlfahrtsstelle der Juden in Deutschland, *Mitgliederstatistik: Der Einzelnen Jüdischen Gemeinden und Landesverbände in Deutschland* (Frankfurt a. M., 2004). We acknowledge the kind assistance of Ms. Ellen Rubinstein of ZWJD in making these data available.

Luxembourg	450,000	600	1.3	2002
Netherlands	16,200,000	30,000	1.9	B 2000
Portugal	10,400,000	500	0.0	B 2000
Spain	41,300,000	12,000	0.3	C 1999
Sweden	9,000,000	15,000	1.7	D 2000
United Kingdom	59,400,000	299,000	5.0	C 1999
[Total European Union 15]	[380,550,000]	[1,047,400]	[2.8]	D 2001
Estonia	1,400,000	1,700	1.2	B 2001
Latvia	2,300,000	8,900	3.9	B 2001
Lithuania	3,500,000	3,400	1.0	B 2001
Czech Republic	10,200,000	4,000	0.4	C 2001
Hungary	10,100,000	50,000	5.0	C 2001
Poland	38,600,000	3,300	0.1	C 2001
Slovakia	5,400,000	2,700	0.5	C 2001
Slovenia	2,000,000	100	0.1	C 1996
Other ^b	1,300,000	100	0.1	D
Total European Union 25	455,350,000	1,121,600	2.5	
Gibraltar	25,000	600	24.0	B 1991
Norway	4,600,000	1,200	0.3	B 1995
Switzerland	7,300,000	18,000	2.5	A 2000
Total other West Europe^c	12,385,000	19,800	1.6	
Belarus	9,900,000	22,000	2.2	B 1999
Moldova	4,300,000	5,000	1.2	C 2000
Russia ^d	145,500,000	244,000	1.7	B 2002
Ukraine	47,800,000	89,000	1.9	B 2001
Total FSU Republics	207,500,000	360,000	1.7	
[Total FSU in Europe]	[214,700,000]	[374,000]	[1.7]	
Bosnia-Herzegovina	3,900,000	500	0.1	C 2001
Bulgaria	7,500,000	2,200	0.3	C 2001
Croatia	4,300,000	1,700	0.4	C 2001
Macedonia (FYR)	2,100,000	100	0.0	C

Romania	21,600,000	10,500	0.5	1996
Serbia-Montenegro	10,700,000	1,500	0.1	B 2001
Turkey ^d	71,200,000	17,900	0.3	C 2001
Total other East Europe and Balkans^c	124,400,000	34,400	0.5	B 2002
Total	799,635,000	1,535,800	1.9	

- a Including Monaco.
- b Cyprus and Malta.
- c Including countries not listed separately.
- d Including Asian regions.

헝가리에서는 50,000명의 핵심적인 유대인 인구의 분포는 유대인 출생률과 사망률 사이의 피할 수 없는 불균형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총 인구의 균형적인 성장이 몇 년 동안 불균형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1999년에 유대인에 관한 연구⁶²⁾는 이상하게도 확대된 개념의 유대인 인구를 포함한 반면, 보통 홀로코스트 이후 통계에 근거한 인구학적인 자료들과 1945년 이후 출생, 사망, 다른나라로 이민 간 이들을 측정할 수치에 대한 설명은 우리의 조사와 거의 일치한다. 2002년 헝가리에서의 인구조사에서 13,000명이라는 소수가 유대교를 가졌다고 보고한 것은 주목되어야만 한다.

벨기에의 유대인 인구는 30,000명이상이며 이는 세계적으로 15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 비교적 안정적인 인구는 Antwerp에서의 전통적인 커뮤니티의 존재와 뷔르셀의 큰 유럽 행정적인 센터에서의 성장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다. 지역적인 유대인 인구는 다른 유럽연합국과들과 비교해서 적다. 유럽연합에서 이 다음으로 큰 유대인 커뮤니티는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에 있다. 네덜란드에서의 수행된 2000년 연구는 이스라엘로부터 온 이주민의 1/3인 30,000명과 45,000명에 해당하는 확대된 개념의 유대인 인구를 포함하고 있다⁶³⁾. 이탈리아에서는 총 유대인 커뮤니티의 멤버들은 1995년 26,706명에서 2001년 25,143명으로 감소하였다⁶⁴⁾.

2.4.5 Former Soviet Union

구소련에서의 급속한 유대인 인구의 감소는 유대인인구의 출산률과 사망률간의 심각한 불균형, 타종족간 높은 결혼비율, 희박해져가는 유대인 정체성에 의하여 지속되고 있다. 15개국 구소비에트 공화국의 총 유대인 인구에 대한 2004년의 통계는 395,000명이다. 이는 유럽에서 374,000명, 아시아에서 21,300명을 포함한 것이다. 많은 비유대 가족구성원들이 반복적으로 확대가족에 포함되었다. 계속되는 인구의 감소는 유대인 문화와 종교활동에

62) András Kovács, Zsidók és Zsidóság a Mai Magyarországon: Egy szociológiai kutatás eredményei (Budapest, 2002) (*Jews and Jewry in Contemporary Hungary: Results of a Sociological Survey*).

63) The survey was undertaken in collaboration between the Stichting Joods Maatschappelijk Werk, and NIDI. See also C. Kooyman and J. Almagor, *Israelis in Holland: A Sociodemographic Study of Israelis and Former Israelis in Holland* (Amsterdam, 1996).

64) Unione delle comunità ebraiche italiane, *IV Congresso, relazione del consiglio* (Roma, 2002) 162 ff.

의해서만 어느 정도 보충될 수 있다⁶⁵⁾.

러시아공화국에서의 2002년 10월 연구는 252,000명의 유대인 인구 추정과는 달리 233,000명의 유대인 인구가 있다고 발표했다.(이는 1994년 러시아의 408,000명의 유대인에 대한 인구조사에서 유래된 것이다)⁶⁶⁾. 신분과 관련된 문서들에 민족에 관하여 강제적으로 기입하게 한 이후 어떤 인구들의 누락을 고려해 수 있다, 세계에서 6번째이다. 러시아 유대인 인구의 규모는 다른 구소련 공화국과 비교해서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는 다양한 공화국들 사이의 유대인 인구의 이동과 모스크바와 다른 주요도시지역들로부터 낮은 이주경향 때문이다⁶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인구의 출생률과 사망률에 대한 심각한 불균형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야기했다. 한 유대인 부모에 대한 출생률에 있어서의 감소는 사망률의 감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이러한 중요한 현상의 심각한 불균형은 1998년에는 5800명 감소한 반면, 1998년 6900명까지 감소하고 있다⁶⁸⁾.

우크라이나에서 2001년 12월 5일에 실시된 인구조사는 103,600명의 유대인 인구가 있다고 발표했고, 반면 2002년 1월 1일의 조사는 100,000명을 예상했다. 2002년의 조사통계에서 1989년 1월의 이전의 인구조사에서 486,000명의 유대인 인구가 있다고 발표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예상수치와 실제 결과사이의 일치는 아주 주목할 만 했다⁶⁹⁾. 1989년 이래로 두드러지게 이주해나가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고, 2003년에 지속적인 다른 국가로의 이주를 고려해 볼 때, 우크라이나의 유대인구는 89,000명으로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규모이다.

유럽에 위치한 구소련의 다른 국가들 중에서, 세계의 발틱 국가가 유럽연합에 가입한 후, 유대인 인구는 베라루스에서 약 22,000명으로 추산된다. 새로운 인구조사를 고려해 볼 때 몰도바에 대한 조사는 약 5,000명이며, 보다 확대된 개념의 유대인 인구는 9,240명에 해당한다⁷⁰⁾.

2.4.6 Rest of Europe

중앙 유럽과 동유럽의 폴란드, 헝가리의 유대인 집단 다음, 체코, 슬로바키아 그리고 슬로베니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였다. 현재, 단지 34,400명의 유대인인구가 비 유럽연합국가와 발칸 지역 특히 주요하게 터키지역에 남아있다. 이스탄불에서의 조사는 과거에 이주를 경험한 커뮤니티에서 아주 심각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스탄불에서

65) Zvi Gitelman, "Becoming Jewish in Russia and Ukraine" in Zvi Gitelman, Barry Kosmin, András Kovács (eds.) *New Jewish Identities: Contemporary Europe and Beyond* (Budapest/New York: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2003) 105-137.

66) Mark Tolts, "Demographic Trends among the Jews of the Former Soviet Union",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in Honor of Professor Mordechai Altshuler on Soviet and Post-Soviet Jewry* (Jerusalem, 2003). German translation forthcoming in: *Menora* (Bodenheim/Berlin: Philo Verlag, 2004).

67) Mark Tolts, "Mass *Aliyah* and Jewish Emigration from Russia: Dynamics and Factors," *East European Jewish Affairs*, 33, 2, 71-96.

68) Tolts, "Demographic Trends", cit.

69) Ukraine Goskomstat, *Population Census 2001* (Kiev, 2002); Mark Tolts, *Main Demographic Trends of the Jews in Russia and the FSU* (Jerusalem: The Hebrew University, The A. Harman Institute of Contemporary Jewry, Division of Jewish Demography and Statistics, 2002).

70) Malka Korazim and Esther Katz, "Patterns of Jewish Identity in Moldova: The Behavioral Dimension" in Zvi Gitelman, Barry Kosmin, András Kovács (eds.) *New Jewish Identities: Contemporary Europe and Beyond* (Budapest/New York: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2003) 159-170.

는 유대인구의 14퍼센트가 18세 이하이며, 65세 이상이 18퍼센트이다⁷¹⁾.

2.4.7 아시아

아시아에서의 유대인구는 대부분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는다(표8). 2004년 초기, 이스라엘에서의 핵심적인 유대인 인구는 5,165,400명이며, 이는 281,400명의 비유대인 가족과 함께 5,446,800명의 확대된 개념의 유대인 인구로 구성되어 있다⁷²⁾. 비유대인 그룹들중 유대교로 개종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디오피아로부터 이민 온 사람들이며 반면, 수백명은 FSU로부터 이민해왔다. 2003년에는 26,100명의 새로운 이민자들이 이스라엘에 도착했고 이들 중 16,800명은 유대인들이다⁷³⁾. 이스라엘의 유대인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이고 한명의 여성이 평균 2.6명의 아이를 출산한다. 이는 다른 선진국들의 출산률을 능가하며 아마도 디에스포라에 있어서 유대인 공동체중 실질적인 출산률은 두배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이다. 5,165,400명의 유대인중 2004년 4,040,000명은 1967년 이전의 동 예루살렘과 골란 사이트의 경계지역에 살며, 225,400명은 West Bank와 Gaza에 살고 있다.

유대인 인구는 FSU의 여덟개의 아시아 공화국에서 빠르게 쇠퇴하고 있고, 7,200명의 유대인을 가진 아제르바이잔이 가장 큰 규모의 유대인 인구를 가지고 있다⁷⁴⁾. 2002년의 인구조사에서 의하면 코카시안 국가들에서 유대인 인구를 3,800명 데리고 왔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아시아의 단일국가로서의 가장 큰 유대인 인구집단은 이란에 있다. 우리의 추정 은 1970년 후기의 이슬람 혁명 이래로 이주에 대한 조사의 노력을 반영한다.

표 8. 아시아에서의 핵심 유대인 인구의 분포에 대한 추정, 1/1/2004

Country	Total Population	Jewish Population	Jews per 1,000 Population	Accuracy Rating
Israel ^a	6,523,000	4,940,000	757.3	A
West Bank and Gaza ^b	3,755,400	225,400	60.0	A
Total Israel and Palestine	10,278,400	5,165,400	502.5	2004
Azerbaijan	8,200,000	7,200	0.9	B
Georgia	4,700,000	3,800	0.8	B
Kazakhstan	14,800,000	4,000	0.3	B
Kyrgyzstan	5,000,000	700	0.1	B
Turkmenistan	5,700,000	400	0.1	C

71) Data kindly provided by Ms. Lina Filiba of the Jewish Community Council.

72) See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Statistical Abstract of Israel*, 55, 2004. See also <http://www.cbs.gov.il>

73) These data include about 3,000 immigrant citizens, the foreign-born children of Israelis on their first-time entrance in the country. Not included are foreign workers and illegal residents.

74) Tolts, "Demographic trends", cit.

Uzbekistan	25,700,000	5,200	0.2	C
Total FSU in Asia^c	73,900,000	21,300	0.3	2000
China ^d	1,295,900,000	1,000	0.0	D
India	1,068,600,000	5,100	0.0	B
Iran	66,600,000	10,900	0.2	C
Japan	127,500,000	1,000	0.0	1986
Korea, South	47,900,000	100	0.0	C
Philippines	81,600,000	100	0.0	1993
Singapore	4,200,000	300	0.1	C
Syria	17,500,000	100	0.0	1998
Thailand	63,100,000	200	0.0	D
Yemen	19,400,000	200	0.0	C
Other	881,421,600	300	0.0	1995
Total other Asia	3,673,721,600	19,300	0.0	D
Total	3,757,900,000	5,206,000	1.4	

a Total population of Israel, including Jews in West Bank and Gaza, 1.1.2004: 6,748,400.

b Total Palestinian population in West Bank and Gaza: 3,530,000.

c Including Armenia and Tadzhikistan. Not including Asian regions of Russian Republic.

d Including Hong Kong and Macao.

2.4.8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유대인 인구는 대부분 남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다. 200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⁷⁵⁾ 백인 유대 인구는 51,675명에 해당한다. 14퍼센트의 비응답률을 보인 조사 이후, 72,000명으로 유대인 인구는 증가하였다. 비백인들중 보고된 유대인구의 특정한 비율을 고려해 볼때, 우리는 전체 유대인구가 75,000명에 해당한다고 추정한다. 지속적인 다른 국가로의 이주를 고려해볼때 우리는 남아프리카의 유대인 인구가 2004년 74,000명에 해당하며 전 세계적으로는 12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고 본다.

북아프리카에 대한 수정된 수치는 모로코와 튀니지에 남아 있는 작은 유대인 인구에서의 지속적인 작은 인구에서의 감소를 보여준다. 현재 이 지역의 유대인 인구는 5,200명 정도이다.

2.4.9 Oceania

지속적인 오세아니아로의 이민으로 오세아니아에서 유대인 인구는 증가하였다. 오스

75) See David Sacks, in *Jewish Report*, 2003. See also Barry A. Kosmin, Jaqueline Goldberg, Milton Shain, Shirley Bruk, *Jews of the New South Africa: Highlights of the 1998 National Survey of South African Jews* (London: Jewish Policy Research Institute, 1999).

트레일리아의 2001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1996년 이래도 약 4천명이 증가하여, 83,500명의 유대인 인구가 있다고 추정된다⁷⁶⁾. 비응답자와 커뮤니티의 고령화 현상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2004년 유대인 인구가 101,000명에 해당한다고 추정하고 이는 세계에서 9번째로 큰 규모이다. 2001년 인구조사는 또한 뉴질랜드에서의 유대인 인구의 증가를 보여준다.

표 9. 아프리카에서의 핵심적인 유대인 인구의 분포에 대한 추정, 1/1/2004

Country	Total Population	Jewish Population	Jews per 1,000 Population	Accuracy Rating
Egypt	72,100,000	100	0.0	C
Ethiopia	70,700,000	100	0.0	1998 C
Morocco	30,400,000	4,000	0.1	1998 C X
Tunisia	9,900,000	1,200	0.1	2003 C
Total North Africa^a	258,700,000	5,400	0.0	2003
Botswana	1,600,000	100	0.1	C
Congo D.R.	56,600,000	100	0.0	1993 C
Kenya	31,600,000	400	0.0	1993 C
Namibia	1,900,000	100	0.1	1990 C
Nigeria	133,900,000	100	0.0	1993 D
South Africa	44,400,000	74,000	1.7	B
Zimbabwe	12,600,000	500	0.0	2001 B
Other	319,700,000	300	0.0	2001 D
Total other Africa	602,300,000	75,600	0.1	
Total	861,000,000	81,000	0.1	

a Including countries not listed separately.

표 10. 오세아니아에서의 핵심적인 유대인구의 분포에 대한 추정, 1/1/2004

Country	Total Population	Jewish Population	Jews per 1,000 Population	Accuracy Rating
Australia	19,900,000	101,000	5.1	B
				2001

76)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Population Census 2001* (Canberra, 2002). See also Gary Eckstein, *Demography of the Sydney Jewish Community 2001* (Sydney: Jewish Communal Appeal, 2003).

New Zealand	4,000,000	6,800	1.7	A
				2001
Other	8,400,000	100	0.0	D
Total	32,300,000	107,900	3.3	

2.5 총체적 상황과 전망

2.5.1 분포와 집중

몇몇 국가에서의 유대인 인구는 집중적인 증가와 더불어 전세계 유대인 인구의 정체를 반영하면서, 세계 유대인의 97.3퍼센트는 가장 큰 15개의 커뮤니티에 살고 있고 95.6퍼센트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14개의 가장 큰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들에 살고 있다. (표11)

2004년에는, 93개 국가에서 적어도 100명의 유대인들이 있다(표12). 미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에는 각각 5백만이 넘는 유대인 인구가 있으며, 다른 7개국은 십만명의 이상의, 4개국은 50명에서 10만, 4개국은 25명에서 5만, 10개국은 1만에서 2만5천, 그리고 66개국은 1만명 이하의 유대인이 있다. 단지 이스라엘을 제외한 아홉 개의 커뮤니티들은 적어도 그 나라의 전체인구의 1천명당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의 유대인 인구의 상대적인 비중을 따라 나열하면, 지브롤터(거주민 1000명당 24명의 유대인), 미국 18.1, 캐나다, 11.7, 프랑스, 8.3, 우르과이, 5.8, 오스트레일리아 5.1, 아르헨티나 5.0 영국 5.0 헝가리 5.0이다.

유대인 인구의 규모와 밀도의 두 범주를 조합함으로써 우리는 1000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26개의 유대인 커뮤니티를 찾아볼 수 있다. (이스라엘 제외). 10만명 이상의 유대인과 총인구 1000명당 적어도 5명의 유대인을 가진 나라는 6개국이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영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인구 1천명당 적어도 1명의 유대인과 10만명 이상의 유대인을 가진 나라는 2개국: 러시아, 독일. 인구 1천명당 적어도 5명의 유대인을 가지고 10명에서 10만명의 유대인을 가진 나라 2개국: 헝가리, 우르과이. 인구 1천명당 적어도 한명의 유대인이 있고 10명에서 10만명의 유대인을 가진 나라는 8개국: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 벨기에, 네덜란드, 칠레, 베를루스, 스위스 그리고 스웨덴. 총인구 중 1000명당 1명 이하의 유대인이 있고 10명에서 10만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는 8개국: 브라질, 멕시코, 이탈리아, 터키, 베네수엘라, 스페인, 이란, 루마니아 이다.

표11. 가장 큰 핵심적인 유대인 인구를 가진 국가, 1/1/2004

Rank	Country	Jewish Population	% of Total Jewish Population			
			In the World		In the Diaspora	
			%	Cumulative %	%	Cumulative %
1	United States	5,290,000	40.7	40.7	67.6	67.6
2	Israel	5,165,400	39.8	80.5	=	=
3	France	496,000	3.8	84.3	6.3	73.9
4	Canada	371,000	2.9	87.2	4.7	78.7
5	United Kingdom	299,000	2.3	89.5	3.8	82.5

6	Russia	244,000	1.9	91.3	3.1	85.6
7	Argentina	185,000	1.4	92.8	2.4	88.0
8	Germany	112,000	0.9	93.6	1.4	89.4
9	Australia	101,000	0.8	94.4	1.3	90.7
10	Brazil	96,800	0.7	95.2	1.2	92.0
11	Ukraine	89,000	0.7	95.8	1.1	93.1
12	South Africa	74,000	0.6	96.4	0.9	94.0
13	Hungary	50,000	0.4	96.8	0.6	94.7
14	Mexico	39,900	0.3	97.1	0.5	95.2
15	Belgium	31,300	0.2	97.3	0.4	95.6

Jews represented 765.4 per 1,000 inhabitants in the State of Israel, including East

유대인들은 동예루살렘, Golan Heights, West Bank, Gaza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에는 1000명 거주민 당 765.4명의 유대인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West Bank 와 Gaza 에는 유대인이 1000명당 60명에 해당한다. 이스라엘, West Bank, Gaza에 있는 총 법적 거주민구를 고려해 볼 때 유대인들은 1000명당 502.5명이거나 그 이상이다. 모든 통계들은 핵심 유대인 인구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만약 유대인 가구의 비유대인 구성원이 설명되어야 한다면, 확장된 유대인 인구는 이스라엘 인구의 1000명당 807.1명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영역의 총인구에 대해서는 1000명당 529.9명이다.

유대인 인구의 과도한 도시집중화는 2004년 전체 세계 유대인 인구의 51.5퍼센트가 단지 5개의 대도시 지역(Tel Aviv, New York, Los Angeles, Haifa, and Jerusalem)에 살고 있으며 다른 25퍼센트는 15개의 대도시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입증된다(표13). 유대인 거주지역의 22개의 대도시중, 12개 도시는 미국, 4개는 이스라엘, 2개는 캐나다, 그리고 하나는 프랑스, 영국, 아르헨티나, 러시아이다.

2.5.2 Jewish Population Prospects

신뢰할만한 인구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비 인구학적인 사회 환경등 다양한 배경에서의 설명을 제한하고 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77).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두 세대 앞서 인구조사를 함으로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소련의 붕괴와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새로운 환경요인들이 설명되어져야만 하며, 유대인의 인구이동 및 유대인의 삶의 기회에 대한 추구는 계속되고 있다.

77) Lutz, Wolfgang, ed., *The Future Population of the World: What Can We Assume Today?* (London: Earthscan Publications, 1996).

표 12. 세계 각국에서의 유대인들의 분포, 그 수와 비율(천명당 인구수), 1/1/2004

Number of Jews in Country	Jews per 1,000 Population						
	Total	0.0-0.9	1.0-4.9	5.0-9.9	10.0-24.9	25.0+	
		Number of Countries					
Total ^a	93	61	22	6	3	1	
100-900	35	31	3	-	1	-	
1,000-4,900	22	19	3	-	-	-	
5,000-9,900	9	3	6	-	-	-	
10,000-24,900	10	5	4	1	-	-	
25,000-49,900	4	2	2	-	-	-	
50,000-99,900	4	1	2	1	-	-	
100,000-999,900	7	-	2	4	1	-	
1,000,000 or more	2	-	-	-	1	1	
	Jewish Population Distribution (Absolute Numbers)						
Total ^a	12,989,700	303,700	707,300	1,150,600	5,661,600	5,165,400	
100-900	11,300	9,500	1,200	-	600	-	
1,000-4,900	53,200	44,300	8,900	-	-	-	
5,000-9,900	58,600	17,500	41,100	-	-	-	
10,000-24,900	162,300	66,900	75,800	19,600	-	-	
25,000-49,900	130,000	68,700	61,300	-	-	-	
50,000-99,900	309,800	96,800	163,000	50,000	-	-	
100,000-999,900	1,808,000	-	356,000	1,081,000	371,000	-	
1,000,000 or more	10,455,400	-	-	-	5,290,000	5,165,400	
	Jewish Population Distribution (Percent of World's Jews)						
Total ^a	100.0	2.3	5.4	8.9	43.6	39.8	
100-900	0.1	0.1	0.0	0.0	0.0	0.0	
1,000-4,900	0.4	0.3	0.1	0.0	0.0	0.0	
5,000-9,900	0.5	0.1	0.3	0.0	0.0	0.0	
10,000-24,900	1.2	0.5	0.6	0.2	0.0	0.0	
25,000-49,900	1.0	0.5	0.5	0.0	0.0	0.0	
50,000-99,900	2.4	0.7	1.3	0.4	0.0	0.0	
100,000-999,900	13.9	0.0	2.7	8.3	2.9	0.0	
1,000,000 or more	80.5	0.0	0.0	0.0	40.7	39.8	

a Grand total includes countries with fewer than 100 Jews, for a total of 1,100 Jews. Minor discrepancies due to rounding. Israel includes West Bank and Gaza.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다양한 한계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현재 인구학적 경향에서 지속되고 있는 경향, 즉 이스라엘에서의 자연증가의 지속과 대부분의 디에스포라 커뮤니티에서의 낮은 유대인 출생률과 노령화 경향을 고려한다면, 유대인 인구는 2020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곧 세계적으로 가장 큰 유대인 커뮤니티가 될 것이며, 몇 십년 뒤, 유대인 인구의 다수가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국제적인 이동의 방향과 이동정도는 유대인 규모와 지리학적 분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대인 출생률은 2020년까지 세계적으로 백만까지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다⁷⁸⁾. 이러한 대안적인 시나리오는 유대인의 미래를 위하여 중요하다.

표 13. 핵심적인 유대인인구를 가진 대도시 지역, 1/1/2004

Rank	Metro Area ^a	Country	Jewish Population	Share of World's Jews	
				%	Cumulative %
1	Tel Aviv ^{b,c}	Israel	2,663,000	20.5	20.5
2	New York ^d	U.S.	2,051,000	15.8	36.3
3	Los Angeles ^d	U.S.	668,000	5.1	41.4
4	Haifa ^b	Israel	663,000	5.1	46.5
5	Jerusalem ^e	Israel	647,000	5.0	51.5
6	Southeast Florida ^{d,f}	U.S.	498,000	3.8	55.4
7	Be'er Sheva ^b	Israel	347,000	2.7	58.0
8	Philadelphia ^d	U.S.	285,000	2.2	60.2
9	Paris ^g	France	284,000	2.2	62.4
10	Chicago ^d	U.S.	265,000	2.0	64.4
11	Boston ^d	U.S.	254,000	2.0	66.4
12	San Francisco ^d	U.S.	218,000	1.7	68.1
13	London ^h	United Kingdom	195,000	1.5	69.6
14	Toronto ⁱ	Canada	180,000	1.4	71.0
15	Washington ^j	U.S.	166,000	1.3	72.2
16	Buenos Aires ^k	Argentina	165,000	1.3	73.5
17	Baltimore ^j	U.S.	106,000	0.8	74.3
18	Detroit ^d	U.S.	103,000	0.8	75.1
19	Moscow ^j	Russia	95,000	0.7	75.9
20	Montreal ⁱ	Canada	93,000	0.7	76.6
21	Cleveland ^d	U.S.	86,000	0.7	77.2
22	Atlanta ^j	U.S.	86,000	0.7	77.9

a Most metropolitan areas include extended inhabited territory and several municipal authorities around central city. Definitions vary by country. Some of the estimates may include non-core Jews.

b As newly defined in the 1995 Census.

c Includes Ramat Gan, Bene Beraq, Petach Tikwa, Bat Yam, Holon, Rishon LeZiyon, Netanya and Ashdod, each with a Jewish population above 100,000.

d Consolidated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CMSA).

e Revised estimate. Includes the whole Jerusalem District and parts of Judea and Samaria District.

f Miami-Ft. Lauderdale and West Palm Beach-Boca Raton CMSA.

g Departments 75,77,78,91,92,93,94,95.

h Greater London and contiguous postcode areas.

i Census Metropolitan Area.

j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MSA).

k Capital Federal and Gran Buenos Aires Partidos.

78) DellaPergola, Sergio, Rebhun, Uzi, and Tolts, Mark, "Prospecting the Jewish Future: Population Projections 2000-2080". *American Jewish Year Book*, 100, 2000, 103-146

Table 1. Jewish population in various countries, 1939-1945

Country	1939	1945
U.S. - Ashkenazi	750,000	750,000
U.S. - Sephardic	100,000	100,000
U.S. - Total	850,000	850,000
Canada	100,000	100,000
U.S. - Total	950,000	950,000
U.S. - Total	1,000,000	1,000,000
U.S. - Total	1,050,000	1,050,000
U.S. - Total	1,100,000	1,100,000
U.S. - Total	1,150,000	1,150,000
U.S. - Total	1,200,000	1,200,000
U.S. - Total	1,250,000	1,250,000
U.S. - Total	1,300,000	1,300,000
U.S. - Total	1,350,000	1,350,000
U.S. - Total	1,400,000	1,400,000
U.S. - Total	1,450,000	1,450,000
U.S. - Total	1,500,000	1,500,000
U.S. - Total	1,550,000	1,550,000
U.S. - Total	1,600,000	1,600,000
U.S. - Total	1,650,000	1,650,000
U.S. - Total	1,700,000	1,700,000
U.S. - Total	1,750,000	1,750,000
U.S. - Total	1,800,000	1,800,000
U.S. - Total	1,850,000	1,850,000
U.S. - Total	1,900,000	1,900,000
U.S. - Total	1,950,000	1,950,000
U.S. - Total	2,000,000	2,000,000
U.S. - Total	2,050,000	2,050,000
U.S. - Total	2,100,000	2,100,000
U.S. - Total	2,150,000	2,150,000
U.S. - Total	2,200,000	2,200,000
U.S. - Total	2,250,000	2,250,000
U.S. - Total	2,300,000	2,300,000
U.S. - Total	2,350,000	2,350,000
U.S. - Total	2,400,000	2,400,000
U.S. - Total	2,450,000	2,450,000
U.S. - Total	2,500,000	2,500,000
U.S. - Total	2,550,000	2,550,000
U.S. - Total	2,600,000	2,600,000
U.S. - Total	2,650,000	2,650,000
U.S. - Total	2,700,000	2,700,000
U.S. - Total	2,750,000	2,750,000
U.S. - Total	2,800,000	2,800,000
U.S. - Total	2,850,000	2,850,000
U.S. - Total	2,900,000	2,900,000
U.S. - Total	2,950,000	2,950,000
U.S. - Total	3,000,000	3,000,000
U.S. - Total	3,050,000	3,050,000
U.S. - Total	3,100,000	3,100,000
U.S. - Total	3,150,000	3,150,000
U.S. - Total	3,200,000	3,200,000
U.S. - Total	3,250,000	3,250,000
U.S. - Total	3,300,000	3,300,000
U.S. - Total	3,350,000	3,350,000
U.S. - Total	3,400,000	3,400,000
U.S. - Total	3,450,000	3,450,000
U.S. - Total	3,500,000	3,500,000
U.S. - Total	3,550,000	3,550,000
U.S. - Total	3,600,000	3,600,000
U.S. - Total	3,650,000	3,650,000
U.S. - Total	3,700,000	3,700,000
U.S. - Total	3,750,000	3,750,000
U.S. - Total	3,800,000	3,800,000
U.S. - Total	3,850,000	3,850,000
U.S. - Total	3,900,000	3,900,000
U.S. - Total	3,950,000	3,950,000
U.S. - Total	4,000,000	4,000,000
U.S. - Total	4,050,000	4,050,000
U.S. - Total	4,100,000	4,100,000
U.S. - Total	4,150,000	4,150,000
U.S. - Total	4,200,000	4,200,000
U.S. - Total	4,250,000	4,250,000
U.S. - Total	4,300,000	4,300,000
U.S. - Total	4,350,000	4,350,000
U.S. - Total	4,400,000	4,400,000
U.S. - Total	4,450,000	4,450,000
U.S. - Total	4,500,000	4,500,000
U.S. - Total	4,550,000	4,550,000
U.S. - Total	4,600,000	4,600,000
U.S. - Total	4,650,000	4,650,000
U.S. - Total	4,700,000	4,700,000
U.S. - Total	4,750,000	4,750,000
U.S. - Total	4,800,000	4,800,000
U.S. - Total	4,850,000	4,850,000
U.S. - Total	4,900,000	4,900,000
U.S. - Total	4,950,000	4,950,000
U.S. - Total	5,000,000	5,000,000

3. 제도적 조직적 체계⁷⁹⁾

3.1 거버넌스의 원리

유대계 공동체는 지역, 국가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의 유대계의 세력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유대 집단들이 한 번에 한 장소에 모이는 기회는 많지 않기 때문에 기관 별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제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가와 지역의 경계를 초월하는 거버넌스가 있고 그 안에 여러 역학관계가 존재하며 변화라는 틀 안에서 거버넌스를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석에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유대인들의 디에스포라 기관 네트워크가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이미 오래 전에 등장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적인 국가센터와 디에스포라 간의 역학관계에서 어젠다가 이미 디에스포라 내에서 오래 전에 설립되었고 이스라엘은 중심에서 어젠다를 명령하고 계획하기 보다는 기존의 패턴을 인정하는 것 밖에 할 수 없었다. 유대인의 조직화에서 또 한가지 흥미로운 요소는 조직이 뿌리에서 시작되어서 점점 위로 성장해 나갔다는 것이다. 헌신적인 유대인들은 특정 니즈나 공동의 어젠다를 중심으로 조직을 만들고 이에 따라 기관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이와 유사하게 협력이 필요하고 규모의 경제나 정치의 힘을 이용하는 게 편리할 때는 한 기관이라는 지붕아래에 기관들끼리도 자신들을 그룹화 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피라미드 구조가 유럽과 특히 남아프리카에서 생겨났고 북미의 경우에는 단순한 피라미드의 형태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복잡한 공동체 조직 인프라가 효과적으로 유대인들의 니즈나 어젠다를 모두 반영하고 있는 가이다.

거버넌스는 전통적으로 4가지 정치통제 도구인 독재, 과두정치, 다두정치 및 민주주의를 통해서 발휘되어 왔다⁸⁰⁾. 독재의 모델인 한 개인이나 독점력을 행사하는 기업체는 수백 년간 많은 유대인 공동체의 모델이었다. 케힐라(히브리어로 공동체를 뜻함) 지도력과 게마인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과두정치는 의사결정을 소규모의 폐쇄적인 집단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초기 유대인 공동체의 모델이 되었다. 다두정치는 당면한 문제와 문제에 대한 그들의 관계 등에 따라 여러 이익 집단들이 의사결정에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멜버른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가 이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여러 정치모델 중에서 가장 덜 알려진 형태이다. 민주주의는 참여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유대인 공동체 조직에서 가장 비 실용적인 모델이었다. 대부분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민주주의는 대표 민주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다.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 공동체는 모든 시민이 자동적으로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전통적인 그리스 정치를 따르고 있지 않다.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모든 사람이 천부인권을 가지지만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위가 개인이 공동체의 일부분이 되기 위한 의식적인 결정을 상징하는 명목상의 행위에 불과한 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의 자발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유대인 공동체가 대표성을 띠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선거를 치르고 있는 가가 아니라 다른 기준을 사용하였다. 즉 구성원들이 표현의 수단이 있다고 느끼는 가와 (가입을 통한) 그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정치 문제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라는 기준을 제시했을 때 그 답이 "그렇다" 이면 그 공동체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일 적합한 사례가 다원주의적인 미국인데 다양한 유대계 기관들이 미국의 유대인 공동체의 짐이 아니라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 아닌 모델 중에서는 영국과 남아프리카가 중앙 대표제를 가

79) 이장은 Jerome A. Chanes, Michael Weil and Ahava Zarembski 가 쓴 원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80) Daniel J. Elazar, *Community and Polity*, pp. 320-327 참조.

지고 있는 좋은 사례들이지만 완전민주주의는 아니고 다원적인 대표성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례 대표제는 아니다.

이 연방적인 이상이 여러 제도⁸¹⁾에 내재되어 있으며 유대계 정치 문화에 뿌리 박혀 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론적인 개념의 거버넌스는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미국의 다원주의는 자주 논의되어 왔는데 미국식 다원주의에서는 공동체의 연합기반이 순수한 자발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의 음악단체에 가입하는 것처럼 종교집단의 회원이 되는 데에 아무런 강요가 없다. 그리고 미국의 비 이익단체에서의 거버넌스 구조는 다원주의 이상에서 직접적으로 흘러 나온 것이다. "연방"이라는 아이디어는 미국의 정치와 사회의 내재적인 것으로 개인과 기관이 자발적으로 서로를 연계하는 계약으로 이를 통해서 모든 참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파트너십이 형성된다. 연방의 이상은 기관에 내재되어 있고 유대 정치문화에 뿌리깊게 박히게 되었다.

대부분의 공동체는 Keren Hayesod와 연계된 Unified Appeal for Israel과 시오니스트 연방을 보유하고 있다. 유럽과 다른 지역은 미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유럽의 모델은 지역적이고 수직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영국의 Jewish Care와 노르우드 레비브스우드 (Norwood Ravenswood)와 같은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들과 프랑스의 문화를 담당하는 Fonds Social Juif Unifié처럼 특정 기구들이 특정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에서는 유대인 공동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명목상 기구가 있는 데, 예를 들어 영국에는 영국 유대계 대표 위원회가 있고 프랑스에는 Conseil Representatif des Institutions Juives de France가 독일에는 Zentralrat der Juden in Deutschland가 있다. 종교분야에서는 한 명의 대표 랍비가 있고, 다양한 종파들을 대표하는 하나 나 두 개 이상의 유대 법정과 교회당이 있으나 통합이 잘 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의 공동체는 케렌 하이소드와 연계되어 있는 Unified Appeal for Israel과 시오니스트 연방을 보유하고 있다.

안보가 유럽에서는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됨에 따라 안보기구도 중앙 공동기구의 일부로써 설립되거나 영국의 Communities Securities Trust나 남아프리카의 CSO 처럼 별도의 기관으로 설립이 되었다.

과거 회원기구가 보편화 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회원중심보다는 활동 중심의 연합으로 나아감에 따라 WIZO, Na'amat, ORT, Bnei Brith 등은 여전히 활동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디에스포라에서 점차 활동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기관들인데 이 중 대부분이 기관의 "친구"로써 자금모집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이스라엘의 정당 및 시오니스트 운동과 연계되어 있는 기관들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Bnei Akiva, Habonim, Hashomer Hazair 등과 같은 청년운동과 연계되어서 주로 중간급이나 대규모 공동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 유대 학생 연합 (World Union of Jewish Students, WUJS)의 소속 학생단체가 대부분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유대 정치의 조직역학은 문제를 보여왔으며 오랫동안 당연시 여겨졌던 가정들이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심지어 "누가 무엇을 하는가"라는 질문에도 쉽게 대답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권력, 권력의 흐름(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하는 가)에 대한 질문들은 급진적인 변화가 지난 20년간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준다.

최근 몇 년간 조직의 이사회에서 제기된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 기득권층 기관들이 유대 선거인단을 대표하는 가는 대표적인 논쟁거리가 되었고 때때로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유

81) 미국의 "연방"이 가장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연방은 독립기구의 이익 공동체 안에서 지역 기관이 탄생하는 제도이며 이 독립 기구들이 특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연합을 형성하는 계약을 맺는 제도이다.

대인 공동체 안에서 인구분포가 변화하면서 거버넌스, 연합, 자금모집 패턴 등에 관한 보다 날카로운 질문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전문 지도자와 자발적인 지도계층 간의 관계도 현재 재검토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유대인 공동체 기구의 기능과 서비스의 복제 문제도 중요해지고 있다. 공동체 내부의 담화에서 사용되는 어구들은 공동체 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주요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의견 일치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의문시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유대계 기관의 목소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정 지역, 대륙 혹은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 공동체를 위한 목소리가 있는가? 단일화된 목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다양한 이데올로기, 관점 및 니즈를 대변하면서 유대인의 안보와 생존에 대한 문제에 직접 연관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은 다양한 틀 안에서 논쟁을 벌여야 한다. 미국에서 이런 문제들은 미국의 유대인 공동체의 자발적이고 연합적인 성격에 대비시켜 비추어진다. 공동체의 조합적인 기반과 연방적인 구조는 교회당, 연방, 공동체기구, 시오니스트 기구에 소속되게 했고 사실 그 소속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유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유대계 기관과의 모든 연계는 자발적인 소속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소속 정도가 미국 유대인 기관 구조를 결정하고 정의 내리고 성격을 형성한다. 이 논문에서는 수천 개에 달하는 미국 기관들 중에서 일부 주요 기관들만 다루고 있다.

유럽과 다른 지역에서도 중앙화 된 구조는 공동체가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왔다. 지역차원에서 공백이 있고 유럽 기구들이 확장된 EU와 EU의 유대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조인트와 미국 유대인 위원회와 같은 외부 기관들로 하여금 유럽에서 권력과 거버넌스를 행사하려는 시도를 받게 되었다.

유대인들이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틀인 기관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보편적인 활동분야가 있다. 사회적 활동, 지역사회와의 관계 도모 및 공공활동, 이스라엘과 기타 국제정책 분야, 교육과 문화 및 종교이다. 거버넌스는 이 다섯 가지 분야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명확하게 그 안에서 드러난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단일한 유대 어젠다가 있는 가 혹은 지방 및 지역의 니즈에 비추어 볼 때 각각의 유대 정치가 상황이 발생할 때 마다 그 상황들을 잘 해결하고 있는가 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 유대 안보⁸²⁾와 어느 정도로 연관되어 있는 가를 기준으로 문제를 선택한다고 답한다면 그것은 이 질문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접근 방식이다.

3.2 세계적 국제적 기구들

여기서 제시되는 국제 기구들은 영향력이나 중요성의 순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로 소개되는 기구들은 보다 세계적이고 광범위한 활동 영역을 보유한 기관들이고 그 다음은 특정인들에게 봉사하며 구체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들이다.

거버넌스 논쟁의 중심이 되는 것은 세계 시오니스트 기구(WZO)와 이스라엘을 위한 유대기구(JAFI)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다. WZO는 처음에는 시오니스트 기구(Zionist Organization)로 알려졌는데 (역사는 일차 시오니스트 총회(1987)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에 다시 재조직되었다. WZO의 회원은 단체 기구 중의 하나로 국한된다.

82) 확실히 유대인 기관(자금모집과 같은)의 제도적 필수요건을 이행하는 것은 오랫동안 유대인들의 삶과 함께 해온 현실이다. 이는 광범위한 논쟁의 주제이며 이 논문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한 유대기구는 비정부(준 정부) 기구이며 예루살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이주를 조직하고 촉진하였으며, 처음에는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후에는 이스라엘 정착을 주도하였다. 이스라엘 경제의 발전을 이끌고 사회 및 교육 서비스를 개발했다. JAFI/WZO의 준 국가기능은(디에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국가건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자 했던 지역들에서) 일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JAFI/WZO 내부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1971년 이래로 유대기구가 이스라엘 안에서 활동을 하고 WZO가 디에스포라 시오니스트 활동과 이스라엘 안의 행정구역의 정착활동에만 영역을 국한시키면서 JAFI와 WZO의 기능은 분리가 되었다. 1971년 합의로 JAFI는 다시 완벽한 파트너로 부활했다. 한동안 새로운 시스템이 잘 운영되었지만 더 강한 통제를 원하는 미국인 기부자들이 등장하면서 2004년에는 권력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실상 WZO는 완전히 몰려나게 되었다. 과거에는 권력이 시오니스트 기구에서 나왔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WZO와 미국 시스템에서는 JAFI를 유대기구의 어젠다를 세우는 도구로 이용했다. 현재는 미국 유대인들로부터 권력이 흐르고 있다. JAFI는 한 때 미국 시스템의 강력한 핵심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시스템의 외부요소 정도에 불과하다. 전미 연합유대위원회(UJC)을 통해 연방에서 JAFI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은 약 2억 달러에 달하는 데 이는 연방시스템에서 내는 단일 기부금 중에 최고 액이지만 줄어든 금액이기도 하다. 분석가들은 한 때 권력 기구였던 JAFI가 아직 규모가 제일 크기는 하지만 미국 유대연방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10년 동안에 주도권이 미국의 대도시 연방의 지도자들에게로 넘어가게 되면서 약 20여 년에 걸친 미국인들이 완전한 파트너가 되는 프로세스가 절정에 달했다.

JAFI의 2004년 예산은 2억 9천 7백만 달러이며 이 중에서 1억 9천 5백만 달러가 연방에서 나온 것이다. WZO의 예산은 약 2천 5백만 달러이다. WZO는 유대기구의 명목상 의사결정기구이지만 권력을 잃어가는 JAFI의 끝에 달린 퇴화해 가는 꼬리와 같은 존재로 변했다. WZO는 점차 제한을 받게 되었고 계속해서 존재를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되게 되었다. 서류상으로 WZO는 여전히 JAFI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Keren Hayesod와 UJC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했던 JAFI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외부에서 교육과 같은 분야의 거대 기업들과 연계를 지어 활동하고 있으며 WZO의 존재는 약해지고 있다.

JAFI(그리고 아래에서 논의될 공동배분위원회)의 자금모집 기구는 미국에 있는 연합유대위원회(UJC)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자금모집활동을 벌이는 Keren Hayesod가 있다.

Keren-Hayesod United Israel Appeal은 전 세계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위한 중앙 자금모집 기관이다(미국은 제외). 57개의 캠페인을 통해서 각 대륙의 45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Keren Hayesod** (문자 그대로 "재단기금")는 1920년에 런던의 세계 시오니스트 회의에서 설립되었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 위원회는 Keren Hayesod 라는 이름 아래서 각 지역별로 캠페인을 벌였으며 종종 그 지역의 이름을 사용하였다 (UIA, UJIA, IUA, CJA, and AUJF). 이스라엘을 위한 유대기구의 재건협정에 의하면 Keren Hayesod는 이스라엘을 위한 유대기구의 삼대 헌법기관(세계 시오니스트 기구(WZO)와 미국의 연합유대위원회와함께) 중의 하나이며 도지사 및 총회 이사회의 대표 중의 20%가 Keren Hayesod에서 나온다.

1901년에 설립된 이래로 **Jewish National Fund (Keren Kayemet Lelsrael)**는 시오니스트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일부가 되어 왔으며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토지를 구입하고, 구입한 토지를 번영하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이스라엘의 환경을 보호해 왔다. 전 세계 기부자들의 지원을 통하여 JNF는 20세기를 끝내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그 시작보다 더 많은 뿌리를 가진 유일한 국가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JNF는 소유주(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다. <http://www.jnf.org/site/PageServer?pagename=history>

세계 유대인 회의(WJC)는 국제기구로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기구의 이익을 도모하고 니즈를 충족시키는 임무를 띠고 있다. 1936년 제네바에서 유대인들을 결집시키고 전 세계에 나치의 학살을 알리기 위해 설립된 WJC는 6개 대륙에 걸쳐서 아르헨티나에서 짐바브웨에 이르기까지 100여 개국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와 기관들을 대표하는 기구이다. WJC는 통일과 유대인의 생존을 도모하며 동시에 정신적, 문화적 및 사회적 유산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뉴욕에 본부를 둔 WJC는 브뤼셀, 부다페스트, 부에노스 아이레스, 제네바, 요하네스버그, 모스크바, 오타와, 파리, 시드니와 예루살렘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예루살렘에는 WJC의 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다. 세계유대인 총회는 유럽연합으로부터 많은 인정과 신뢰를 받으면서 여러 다양한 기관들 중에서 독특한 기관이 되었고 유엔과 그 소속 기관, 위원회, 부속단체에서 외교관 지위를 부여 받고 있다.

WJC는 세계2차대전이 끝난 후에 평화조약, 나치 전범의 기소 및 재판, 홀로코스트의 유대인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계획 채택, 2차 대전 이후 유대인들의 삶의 재건계획 채택에 대한 유대정책을 수립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유명해지게 되었다. 최근 몇 년간 WJC는 공격적인 전략과 전술을 채택해 왔고 Kurt Waldheim의 전쟁기록과 홀로코스트 때 스위스와 다른 국가들에 있었던 유대인 재산 처분문제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미국 유대인 공동 배분 위원회(**American Jewish Joint Distribution Committee, JDC or "Joint"**)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사회복지 서비스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구이다. JDC의 1914년 설립은 위기상황에 대한 유대인들의 공동 대응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1914년의 경우는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보고(기근을 포함)가 있었다. 위기 상황에서 Joint는 세 개의 각각 다른 기관들의 자금모집과 구호활동을 떠맡았다(JDC의 설치하는 유대 그룹들이 설립되는 방법, Joint의 경우처럼 기존의 기구에서 떨어져 나가는 형태나 외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들을 한데 모으는 경우 등을 연구하는 데 있어 사례가 된다.)

JDC의 임무는 디에스포라 공동체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JDC는 직접서비스(동유럽의 가난한 공동체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를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1980년대에 JDC는 많은 동유럽 국가에 돌아가서 지역사회의 가난한 노인층과 공동체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것을 지원하였다. 1988년에 JDC는 소련에 돌아가서 문화 및 종교 재건 프로그램을 담당할 공동체 기관 설립을 지원했다. 오늘 날 JDC가 후원하는 복지프로그램은 거의 2천 6백 여 개 도시와 마을에서 2십5만 여 명의 가난한 노인들을 돕고 있다.

작지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는 주로 유럽에서 활동하는 기관에는 **Conference on Jewish Material Claims against Germany**가 있다. Claims Conference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기관은 1951년 설치되었고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다. 독일과 체결한 여러 재건 및 배상협정은 주로 Claims Conference의 결과였다. 최근 몇 년간 컨퍼런스는 독일에 있는 자산처분으로 인한 수입과 다른 문제들로 논쟁에 휩싸여 왔다.

1881년 유럽에서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피난을 온 일련의 유대 이민자 집단이 뉴욕에서 설립한 히브루 이민자 지원 협회 (**Hebrew Immigrant Aid Society, HIAS**)는 수많은 이민자들에게 음식, 잠자리와 다른 지원을 제공했다. 이에는 HIAS가 이스라엘 이주(이스라엘을 위한 유대 기구와의 협력 하에)를 지원한 백만에 달하는 유대인 피난민들과 캐나다, 남미, 호주, 뉴질랜드와 다른 지역으로 정착을 지원한 수 천명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역사가 오래된 국제 이민 및 난

민정착기구로써 HIAS는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들과 모로코, 이디오피아, 이집트 및 동구유럽 공산 국가들의 유대인들의 구호 및 정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최근에는 70년대 중반 이후로 3십만 명의 유대 난민들을 구 소련과 구 연방 국가들에서 구출, 박해 탈출 및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지원했다. 미국 유대공동체의 이민기구로써 HIAS는 국제,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난민들과 이민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또한 담당하고 있다.

World ORT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비 정부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써 100여 개 국가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비영리 및 비 정치 단체로써 ORT의 목적은 전 세계에 있는 유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및 직업훈련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현재 ORT는 프로그램, 트레이닝 센터 및 학교를 통하여 연간 2십8만 명의 학생들에게 교육이나 훈련을 시키고 있으며 특히 구 소련, 남미와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World ORT는 5대륙을 포괄하는 각 국 ORT기구의 국제활동을 조율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ORT는 UJC의 ONAD 프로세스를 통하여 주요 자금을 공급 받는다. ORT의 지역본부는 자금모집 활동을 하고 회원기관 중에서 가장 저명한 기관이 미국여성 ORT이다.

Alliance Israélite Universelle 는 교육과 문화기반의 기관으로 2만 명의 학생이 포함된 학교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동을 하며 정부 및 국제기관에서 인권옹호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이란, 모로코, 스페인 및 미국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본부는 파리에 위치하고 있다.

WIZO (the Women's International Zionist Organization)는 유럽에서 오랫동안 국가별로 활동을 해 왔으며 많은 유럽국가에 지부가 있다. 그러나 WIZO는 거버넌스문제에는 사실상 발언권이 없다⁸³⁾.

유대 여성 국제 위원회 (International Council for Jewish Women)는 47개국의 52개 유대여성기구로 구성되어 있고 유대인들의 거의 모든 활동영역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업무의 주안점은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ICJW의 주 목적은 모든 유대 여성들을 단결시켜서 모든 인종과 민족에게 사회정의 실현하는 것이다. ICJW는 유엔에서 ECOSOC와 자문위치에 있으며 런던에 본부가 위치하고 있다.

Bnei Brith는 1843년 설립되어서 오늘 날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대인권, 박해 및 공동체 활동 단체로써 전 세계 58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워싱턴 DC에 본부가 위치하고 있으며 뉴욕의 유엔에서는 NGO 위치를 부여 받고 있으며 브뤼셀의 유럽연합에 사무실이 있고 예루살렘에 세계본부가 있다. Bnei Brith는 빈민, 억압 받는 사람들을 돕는 공익을 위해 일하며 문화 및 인권 프로젝트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유대학생세계연맹(World Union of Jewish Students)은 1924년 반유대주의를 타파하고 국가 유대학생기구의 대표기구로써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교육 프로그램과 지도력 훈련 세미나를 조직하고 디에스포라 공동체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WUJS는 7십만 명의 학생을 대표하는 51개의 국가연합을 대표한다. WUJS는 UNESCO의 NGO회원이며 예루살렘에 본부를 두고 있다.

Chabad-Lubavitch movement(차바드 루바비치 운동)은 하시디즘의 일부로써 250년 전에 시작된 이래로 러시아와 주변국가로 전파되어 나갔다. 오늘날 차바드 루바비치 기관의 기원은 1940년대 초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데 당시에 6대 Rabbi 인 Yosef Yitzchak Schneersohn가 후에 계승자가 된 사위 Rabbi Menachem Mendel을 새롭게 설치된 교육 및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을 대표하도록 임명을 했다.

83) 여기에서는 하다사.

종교에 관한 가르침 이외에도 기관으로써 차바드는 4천 명의 정규 회원을 파견해서 3천 3백 개의 기관(직원 수는 수만에 달함)을 관리케 하고 있으며 이 기관들은 유대인들의 복지에 헌신하고 있다. 차바드는 특히 FSU와 동유럽의 종교 및 교육재건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또한 극동지방에서 여행하는 젊은 유대인들을 끌어들이고자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로널드 로더 재단(Ronald Lauder Foundation)은 유럽지역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로더 재단은 특히 동유럽에서 교육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세계 무대에서의 활약이 가장 미미하다는 것인데 현재 소수의 주요 기관들만 활동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을 위해 의견을 내고 행동을 취할 정도로 강력하고 권한이 있는 기관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미국기반의 기구들이 국제적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미국유대위원회(AJC, American Jewish Committee), ADL 및 유대문화기념재단이 있으며 이 기구들은 미국 섹션에서 자세히 소개될 것이다.

3.3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주요 기관들

미국 유대인 기관의 모델은 민주적이고 문화적으로 다원적이며 시간과 장소라는 상황에서 역동적인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 미국사회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자발성을 띠고 있고 연방주의라는 원칙과 결합되어서 유대 역사 그 어느 때보다도 연합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오늘날 기관들은 미국에서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개인주의라는 배경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미국 유대인 기관의 매트릭스는 국가적이나 지역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한 의견을 내는 기관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체 관계라는 영역에서 누가 미국 유대인 공동체를 위한 목소리로 활동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명령을 통해 임무를 부여 받는 것에 행복해 했던 다원적인 유대공동체에서 특히 민감한 사안이 될 수 밖에 없다.

미국 유대인에게 있어 핵심적인 조직화 원칙은 공동체의 합의가 있는 유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다⁸⁴⁾. 최근 몇 년간 물리적인 안보나 생존 같은 외부 어젠다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유대계 영속성에 관한 내부 어젠다가(감소하는 출산율, 만연한 기능적 문맹률, 이민족과의 결혼 등) 등장하면서 전반적으로 어젠다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3.3.1 대표 및 국가 기관들

Presidents Conference-미국 유대계 삶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확실히 가장 덜 알려진 기관 중의 하나가 전미 주요 유대인 기구 장 회의(Conference of Presidents of Major American Jewish Organizations, the Presidents Conference)이다. 1954년 설립된 Presidents Conference의 공식적인 임무는 국제사회에서 미국 유대인 기관의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워싱턴에 있는 미국 행정부에 단합된 의견을 내는 것이다. 미국 행정부와 이스라엘 정부간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회의는 50개이상의 미국 유대 기구로 구성되어 있고 이 기구들은 다양한 공동체 활동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공격적인 지도자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Presidents Conference의 임무가 확대되었다. Presidents Conference가 이스라엘 정부 관료, 국가 유대인 기구와 주요 연방 지도자들과 누리고 있는 관계는 Conference의 원래 임무인 "대변인"을 뛰어 넘은 거버넌스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conference의 활동과 그 역할간의 관계는 불분명해졌다. 그러

84) 이는 미국 유대인 공동체 어젠다에서 민권이 왜 등장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민권은 자유 문제가 아니라 유대 안보에 핵심적인 문제로 간주되어 왔으며 미국 유대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민권운동에 참여하고 사실 운동을 일으키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

나 Presidents Conference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전략이나 정책을 만들지는 않으며 대표 기구로써 구성 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는다.

연합유대위원회(UJC) - UJC는 국내외 국제적인 유대인들의 니즈 충족을 위해서 자금을 모집 및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주요 시스템이다. UJC의 기능은 4가지 필라(Pillar)로 나뉘는데 휴먼 서비스, 사회정책, 이스라엘과 해외, 개발(자금모집), 르네상스와 부흥이다(유대계의 정체성과 영속성에 대해 최근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로 교육과 문화를 상징한다). 해외 니즈, 평가와 지불 위원회 (Overseas Needs, Assessments, and Disbursements Committee, ONAD)는 UJC의 해외 펀드를 이스라엘과 다른 지역으로 배분한다. ONAD는 유대기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연방이 통제하고, 해외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JAFI와 JDC와 같은 계약자들을 찾아내고 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역 공동체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ONAD는 JDC와 JAFI에 있어서 핵심 자금을 결정하고 JAFI와 JDC를 선택 자금에 있어서는 경쟁에 붙인다.

1999년에 기관이 바뀌게 된다. 수십 년 간 United Jewish Appeal (UJA) 캠페인으로 알려졌던 운동이 지역(연방)으로 흡수가 되고 시스템은 지역 및 국가(1980년대와 1990년대에 연방 지도자들의 전략적 사고에 있어서 통용되기 시작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대륙" 별로도 적용이 됨) 제도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유대인연방위원회(CJF)는 200개 연방의 연합으로 연방이 예산과 공동체 계획 수립 시 지침을 제공했다. UJA/연방 시스템⁸⁵⁾ 혹은 CJF 프로세스는 수십 년 동안 비상사태에 대응을 하면서 성장하게 되었고 UJA와 연방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유례가 없는 규모로 정치 및 금융자원을 쏟아 부으면서 오퍼레이션 엑소더스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다⁸⁶⁾. 1999년에 UJC는 국가에서 지역(즉 연방)으로 의사결정의 소유권이 옮겨가는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대변하며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 안에서 UJA와 같은 매개역할을 하는 기구들은 불필요하게 되었다. 미국의 엄청난 거액 기부자들과 가족 재단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UJC가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고 말한다. UJC가 당면한 두 가지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구조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연방 시스템의 전반적인 재무상황에 관한 것이다. 첫째로 연합 유대공동체(United Jewish Communities)는 일부 프로그램을 조율하지만 실제 해야 하는 어젠다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는 종속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니셔티브는 일부 거대 도시 연방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2004년 적어도 4건의 중요하거나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아르헨티나 유대계의 빈곤화, FSU의 빈곤한 유대인들, 미국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로 많은 미국 유대인 공동체가 당면한 경제적 위기, 차세대 교육의 실패 및 젊은 층을 끌어들이지 못한 실패("영속성"의 위기) 상황에서 UJC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 수립과 같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개별 연방이나 거대 연방의 집단이 동원세력으로써 거버넌스를 발휘하거나 개별 박애주의자들이 (혹은 가족재단이) 그들의 독특한 헌신에 의해서 활동을 개시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 문제는 시스템의 재정을 관리하는 것인데 이 영역에서 UJC는 상황을 외면하고 자금모집 활동분야를 재 정립하지 않고 있다. 연방은 "유대 자금"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명확하게 수학적 질문을 제기해 보면 유대 자금의 비율이 어느 정도 인가를 질문해 보면 비율은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에서 유대계가 성장한 것만큼 유대자금이 증가하지 않았다.

85) 1970년대 시작되어서 198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지역 연방과 UJA 캠페인은 통합이 되었다. 그 결과로 UJA/위대한 뉴욕연방과 같은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

86) 1990년대에 있었던 긴급 모금활동은 미국에서의 전형적인 모금활동 패턴을 보여준다. 공동체의 인구수와 이전 캠페인 결과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배분" 공식을 사용한다.

B'nai B'rith B'nai B'rith는 국제적인 친목 및 사회단체로 지난 30년간 공동체 관계에 있어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국제 어젠다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1843년 독일계 유대인이 미국으로 이민하면서 설립된 B'nai B'rith는 교회당 이외의 결속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계속해서 친목을 도모하는 사회서비스 촉진제 및 공동체 관계 기구로 성장했다. 20세기 마지막 25년부터 21세기까지 B'nai B'rith는 명확하게 목표 및 임무를 설정하고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기간 중에 또 하나 등장했던 문제는 공공분야에서는 부각되지 않았었는데 그 하위 단체인 ADL이 공격적으로 독립을 추구하고 독자적인 거버넌스를 추구했던 일이다.

3.3.2 공동체

"공동체 관계"라는 항목은 공공분야와 공공정책이라는 틀 안에 해당되는 모든 문제를 담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어떻게 유대인 공동체가 외부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항상 특히 공공정책 분야에서는 국가기구, 연방 및 조율기구 간에 긴장이 존재한다. 이 긴장은 근본적으로 나쁜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긴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긴장 때문에 미국 유대 다원주의적 활동의 승리 중 하나가 국가와 지역기구간의 조율된 활동을 이루어 낸 것이기 때문이다.

연방과 연방시스템. 연방은 지역 차원에서 유대계 활동을 조율하는 중요 기구이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미국에서 유대인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개인으로써 사회와 관계를 맺는다. "집단의 권리"라는 개념은 민주주의 및 문화 다원주의 원칙으로 형성된 사회에게는 낯선 것이다. "연방적인" 아이디어는 계약과 같은데 계약을 통해서 개인과 기관이 자발적으로 서로를 연계 시키게 되며 모든 참여 당사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된다. 연방에는 우선 유대인 자선단체 보스턴 연방(Boston Federation of Jewish Charities)이 있는데 1895년 설립되어서 공동체 기획, 사회서비스 조율, 모금 및 지역 니즈 충족을 위한 기금 할당을 담당하고 있다. 기능의 집중으로 연방과 연방의 지도자들은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되며 공동체 내에서 연방이 유대계의 주소처럼 인식되는 정도까지 권한이 막강해진다. 연방은 때때로 4번째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데 즉 연방이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에 대한 공공분야 자금모집 활동을 옹호하는 것이다. 1999년 이전에 연방 시스템은 두개의 상위 기관인 유대인 연방위원회(Council of Jewish Federations, CJF)와 United Jewish Appeal (UJA)로 구성되어 있었다. 1999년 이래로 CJF와 UJA는 한데 합쳐져서 단일 대표 기구인 연합유대위원회가 되었다. 이 통합으로 지역 연방이 자금 배분에 더 많은 통제권을 갖게 되었고 특히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거액기부와 가족 재단의 역할이 늘어나게 되었다.

공공문제 유대인위원회(The Jewish Council for Public Affairs) 국가 및 지역 유대인 공동체 관계를 대표하는 기구는 공공문제 유대위원회(JCPA)가 있다. 수십 년 간 국가 유대인 공동체 관계 자문 위원회(NJCRAC)로 알려져 왔는데 JCPA의 임무는 공동체 차원에서 보안을 다루는 공동체 관계 위원회(CRC)의 기능을 국가별로 조율하는 것이다. CRC 대표들은 국가 기구와 함께 JCPA에서 조율과 기획 위원회에서 활동을 한다. 수년간 공공정책과 공동체 관계 문제와 같은 복잡한 논의뿐만 아니라 유대공동체의 메시지를 권력의 핵심지인 미국 의회에 전달하기 위해 기구 네트워크를 동원하는 데도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동해 왔으며 사용하는 수단에는 입법 옹호론과 연방 법정에서는 법정 조언자의 의견제출을 이용해서 참여해 왔다. JCPA는 4개의 국가기구와 14개의 공동체 기구에서 13개 국가기구 및 120여 개 지역 공동체 기구로 크게 성장했다⁸⁷⁾. 연방 시스템(특히 거대도시 연방)으로부터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JCPA

87) 4개의 기존 NJCRAC 회원기구는 미국 유대인 총회, B'nai B'rith/Anti-Defamation League와 유대 노동 위원회였으며 이들은 일반유대인 위원회의 회원 기구들이었다. 1951년 LCBC가 주관한 보고서 권고안에 대한 심한 의견 불일치로 미국 유대인 위원회와 ADL/B'nai B'rith이 NJCRAC에서 탈퇴하게 된다. 그 연구는 컬럼비아 대학 정치

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JCPA가 연방에 의해서 시스템으로 통합되고 기존의 시스템 구조를 채택해서 연방의 특정 니즈를 충족시키게 될 수도 있다.

3.3.3 국방과 안보

미국에 있어서 유대인 공공문제(전통적으로 국방으로 알려졌으나 이제는 공동체 관계) 주요 도구는 일련의 자발적인 기구들로서 20세기 초반에 설립된 기구들이다. 세 개의 기구가 있는 데 미국유대위원회(American Jewish Committee), Anti-Defamation League, 와 전미 유대인 총회로 이 분야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다른 많은 기관들도(적어도 한 개의 시오니스트 단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범위의 공공문제와 공동체 관계에 대한 어젠다를 가지고 있다.

미국 유대위원회(American Jewish Committee, AJC)는 국방기구로서는 가장 오래되었으며 1906년 설립되어서 1943년 후에 확대되었으며 인종, 다원주의 및 그룹간 관계에 관심을 가진 저명한 기관이다. 1990년대의 기관 내부점점 기간을 거쳐서 미국 유대위원회의 주안점과 방향이 국제분야로 바뀌게 되었다. AJC는 지금은 Presidents Conference의 회원이며 유럽 정부들에게 미국 유대계를 대표해 왔고 유럽 무대에서 다양한 관계를 수립해 왔다. "think-tank" 인기 관의 관점에 위원회는 미국 유대인 연감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연구부서는 그룹간 관계, 반유대주의 및 유대계 정체성에 대한 가치 있는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전미유대인 총회(American Jewish Congress, AJCongress)는 1918년 설립되어서 미국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회와 주 및 인권의 분리를 다룬 기념비적인 미국 대법원이 다룬 사건에 참여한 바 있다.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고 홍보를 하며, 반유대주의, 차별 및 인종주의에 대항하며, 주, 연방 및 대법원 차원에서 사건을 제시하며 다원주의, 교회와 주의 분리 및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개인과 지역사회에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AJCongress의 기원을 보면 미국 유대계의 역학관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미국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실망한 한 집단에 의해 세워졌으며 그 집단은 일차대전 후 평화회의에서 미국 유대계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임시 총회를 만들었다. AJC와 다른 기관들은 AJCongress가 해체되기를 바랬고 실제로 1920년 공식적으로 해체가 되었으나 영구적인 대표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압력에 의해 현재의 AJCongress가 탄생하게 되었다.

The Anti-Defamation League (ADL)은 1913년 조지아에서 있었던 레오 프랭크 구타사건에 대응해 B'nai B'rith의 위원회로 설치되었으며 다양한 형태로 위장한 반유대주의를 타파하는 것이 주 역할이다. ADL은 반유대주의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어서 미국과 유럽에서의 반유대주의적 태도에 대한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후원하고 편견퇴치 프로그램⁸⁸⁾, 반 이스라엘 활동, 좌파 및 우파 극우주의 및 1981년 이래 주와 교회의 분리 위반, 홀로코스트 교육과 타 종교 관련 업무에 초점을 두고 있다.

ADL이 오랫동안 명목상으로 모 기관인 B'nai B'rith와 연계되어 왔지만 수 십년간 완전히 독립

과학자인 Robert MacIver가 수행한 유대인 공동체 관계 기구 보고서로써 기구의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쓰인다(활동의 중복 포함)고 지적하면서 특정기구의 전문력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협력관계 수정안을 권고했다. 탈퇴했던 2기구는 다시 NJCRAC에 1965년과 1966년 가입하게 된다. NJCRAC/JCPA의 국가회원기구는 미국 유대인 위원회, 전미 유대인 총회, B'nai B'rith의 Anti-Defamation League, B'nai B'rith, 하다사, 유대 노동위원회, 미국 유대계 퇴역군인 협회, 전미 유대 여성 위원회, 구 전미 히브루 집회연맹, Union of Orthodox Jewish Congregations of America, 보수파 유대주의 교회당 연합, 전미 여성 ORT와 보수파 유대주의 여성 리그가 있다.

88) ADL의 예산 중의 상당액이 "다른 세상" 프로그램에 할당된다. 반유대주의 분석 기관은 아직 편견퇴치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는 못하고 있지만 ADL은 아직 "다른 세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지는 않고 있다.

립을 유지해 왔고 독자적인 이사회 및 모금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유대위원회와 전미 유대인 총회와는 달리 ADL은 회원제 기관이 아니고 직원들은 정책수립에 참여를 한다. 또한 ADL의 거버넌스는 전통적으로 일반 회원들이 아니라 전문 인력들을 통해서 행사된다.

이 모든 활동에 대한 자금 원은 동일하다. 각자 회원 및 기구의 임무를 지지하는 개인들로부터 지원을 후원을 받는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최근 몇 십 년 전부터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별 프로젝트를 위한 일부 개인 재단의 자금이 국가 유대기구에 제공되고 있으며 국가로부터의 지원은 줄어들고 있다. 1980년대 초까지 미국 유대위원회는 미국 유대계 공동체에서 저명한 기관으로 간주되었고 예산은 2개의 국방기구를 합친 것보다 많았었다. 이는 1980년 경에 바뀌어서 ADL은 AJC와 예산이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3.3.4 정치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 위원회(American-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 AIPAC)는 1950년 설치되어서 워싱턴 정가에서 이스라엘 관련 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AIPAC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로비 단체로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지역사무소 네트워크는 점차 규모가 커져 가고 있으며 지역 사무소의 기능은 미국 행정부 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도모하는 것이다(로비 단체이기 때문에 AIPAC에 대한 기부는 세금공제가 되지 않는다). 활동에는 연구, 입법 활동, 대중 홍보 등이 있다. AIPAC는 다른 유대계 미국 기관들과는 달리 단일 문제를 다룬다. AIPAC의 어젠다는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로 제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을 제시하며 미 행정부와 의회도 AIPAC의 기술을 인정하고 있다. AIPAC는 또한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친 유대 및 친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얻고자 하고 있다. 전문성과 효율성에 있어서 최고의 로비단체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PAC 정치행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s, PACs)는 후보자나 관료들의 선거전에 자금을 지원하여 후원하는 정치가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친 이스라엘 PAC는 1980년에 의회의 반 이스라엘 관료들을 몰아내기 위해 설치되었다. 오늘 날 친 이스라엘 PAC는 친 이스라엘 파로 간주되는 후보의 당선과 재선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국가 유대 민주주의 위원회(National Jewish Democratic Council, NJDC)는 1990년에 설립되었으며 민주당에서의 유대계의 참여와 개입을 늘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임무에 더해서 어떤 이들은 NJDC가 반유대/반 이스라엘 행동을 민주당에서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특히 1988년 7개의 민주당 주 전당대회에서 팔레스타인의 자결주의를 지지하는 관계를 채택하고 이 문제를 민주당의 전국 전당대회에서 논의한 것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 한다.

공화당 유대 연맹(Republican Jewish Coalition, RJC)은 1985년 전미 유대연맹으로 설립되었다. 공화당에서의 유대계 참여와 개입 증진을 위해 만들어졌다. 공화당 행정부 시절, RJC는 백악관과 관계를 맺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었다.

3.3.5 종교

민주적이고 문화적 다원주의를 띠고 있는 미국은 종교 영역에서도 이 성향이 뚜렷하며 미국에만 독특하게 존재하는 종교 종파가 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유대교의 상황은 좀 다르며 정통파, 보수파 및 개혁파의 역사가 다원주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지만 각 집단 간의 차이가 있어서 각 집단은 다른 집단의 정통성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Orthodox Movement. 미국에서의 정통파 운동은 다양하고 복잡한 대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Union of Orthodox Jewish Congregations of America (UOJCA or the "Orthodox

Union, "the OU")는 1898년에 설립되어서 미국에서 약 1천 개에 달하는 교회당이 가입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광범위하고 인정 받고 있는 유대식 식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제품의 포장에 OU 심볼이 표시되어 있다. OU는 전미 교회당 청년회의(National Conference of Synagogue Youth)를 통해서 청년층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공공문제연구소(Institute for Public Affairs)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공공분야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젊은 이스라엘 국가 위원회(National Council of Young Israel)는 1912년에 설립되어서 OU와 같은 일반 대중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지도층은 "우파"로 옮겨갔다. 전통적으로 순종적인 공동체인 하시딕파의 예시바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는 1939년 설립되고 점차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는 Agudath Israel of America가 있다. Aguda는 공공분야 어젠다에 참여를 늘려가고 있으며 공공정책 분야에서 특히 워싱턴 지역에서 공고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오고 있다. Agudath Israel의 거버넌스는 Council of Torah Sages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미국에는 미국 랍비 협회(Rabbinical Council of America, RCA)를 비롯하여 여러 랍비협회가 있다. RCA가 최대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유대 정교를 가장 잘 대변하는 랍비 협회이며 가장 중도파적인 정교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⁸⁹⁾. 근대 정교와 RCA의 지도층 간의 대립이 극대화 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UOJCA는 할라카와 사회문제를 다루는 쪽으로 바뀌었으며 예시바 대학이 주최하는 유대 정교 총회와 유대 정교 포럼과 같은 여러 포럼들을 창설했다. 유대 정교 페미니스트 연맹(Jewish Orthodox Feminist Alliance, JOFA)이 정교 내에서의 많은 이들이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들의 집합체인 여성 문제를 다루는 도구로 등장했다.

차바드는 점차적으로 특히 미국 내의 고립되고 소외된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장의 국제기관 섹션에서 소개될 것이다.

보수파 운동(Conservative Movement). 랍비총회(Rabbinical Assembly)는 1890년에 설립되어서 미국의 유대계 보수파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랍비들을 대표한다. 보수파 유대주의 교회당 연합(United Synagogue of Conservative Judaism)은 1913년에 미국의 유대 신학교 소속 교회당 기관으로 설치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수파 유대주의의 결집기관으로 바뀌게 되었다. 보수파 유대주의 여성 리그와 함께 공공문제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보수파 청년 기관에는 United Synagogue Youth(USY)가 있다.

개혁운동(Reform Movement). 전미 랍비 중앙회의(Central Conference of American Rabbis)는 1989년 설립된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랍비 기관이다. 소속 랍비들은 신시내티와 뉴욕에 있는 히브루 유니온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개혁파 유대주의가 결집하는 기구로는 개혁파 유대주의 연맹(Union for Reform Judaism)이 있는데 약 900여 개 이상의 교회당이 소속되어 있고 종파의 주요한 사회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워싱턴의 Union for Reform Judaism/CCAR Religious Action Center⁹⁰⁾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연맹은 1873년 미국 히브루 집회연맹(Union of American Hebrew Congregations, UAHC)으로 설립되었으며 개혁파의 이상적인 헌신에서 사회정의로 옮겨갔으며 민권, 시민의 자유 및 다른 사회 정의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자신을 종교단체 중에서 자유파나 활동파로 간주하고 있다. UAHC는 처음에 1952년 집회기구로 설립되어서 사회활동을 벌이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했다. 개혁파 유대주의 연맹과 CCAR과 연계되어 있는 기구로는 개혁파의 청년 집단인

89) 비록 시기가 좀 지났지만 현대 미국 정교를 Wolfe Kelman 가 Moshe Feinstein and Postwar American Orthodoxy," in *Survey of Jewish Affairs 1987* 에서 훌륭하게 고찰한 바 있다 (London: The Institute for Jewish Affairs, 1988), pp. 173-187.

90) RAC는 사회정의 어젠다를 논의하는 주요 유대계 목소리로 1960년대 개혁파 운동 내에서의 치열한 4년간의 논쟁 끝에 탄생했으며 그 당시 공공문제를 다루는 로비단체를 세우는 것에 많은 지명된 개혁파들이 반대를 했었다.

National Federation of Temple Youth(NFTY)가 있다.

재건운동(Reconstructionist Movement). 재건과 랍비연합(Reconstructionist Rabbinical Association)은 재건운동을 위한 랍비 집단이다. 재건파의 주요 목소리를 내는 기구로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보수파 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재건과 랍비 대학이 있는데 자신을 제 4의 종파로 간주한다. 활동적인 랍비들과 구성원들 및 샬롬 센터와 같은 오퍼레이션 및 영적인 공동체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통해서 재건파는 자유파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재건파가 결집하는 기구로는 유대 재건 연방(Jewish Reconstructionist Federation)이 있다.

3.3.6 시오니스트 기관들

가장 미국적인 시오니스트 기관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정당들과 직접적이거나 혹은 비공식적인 관계로 연계되어 왔다. 이에에는 미국 시오니스트 기구가 포함되는 데 애초에는 중도 일반 시오니스트를 대변하는 역할을 했으나 최근에는 여러 이스라엘의 정당 관련 기구들과 매과 정책을 적극 옹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미 시오니스트 운동(American Zionist Movement)은 16개 시오니스트 기관과 운동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당적인 대표기구로써 시오니스트 프로그래밍과 대중 홍보 활동 조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자치 국가로써 미국의 유대계로부터 명령을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일부 문제들(특히 이스라엘에서의 종교적 다원주의)은 다소 관성적이었던 시오니스트 기구들을 잠에서 깨우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혁파와 보수파 시오니스트 기관인 ARTZA와 Mercaz는 국제적인 시오니스트 선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었으며 정교의 세력이 이스라엘의 유대계에게 확대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한 미국의 유대계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로는 Young Judea나 Bnei Akivad와 같은 청년단체 들이 있다. 최근 수십 년간 흥미로운 사실은 시오니스트 기관들이 하락세를 시작함과 동시에 미국의 유대인들 사이에 친 이스라엘 합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오니스트 배경에서 새로 Nefesh b'Nefesh가 등장한 것이 새로운 일 중의 하나인데 이 기관은 북미의 유대인을 이스라엘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유대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최소한 3년을 거주한다는 조건 하에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미혼이나 가족들에게 재정, 행정 및 전문지원을 제공한다. 북미로부터의 이주자를 늘리고 지도층의 지원을 얻어내는 데 지금까지는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기독교 원리주의 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3.3.7 교육과 참여

1970년대 초반까지 교육은 연방제도 안에서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교육은 이제는 우선과제의 대열에 올라섰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 유대계 조직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영역으로 남아 있다. 유대계 교육에 있어서 3대 국가기구가 언급되어야 한다. 북미 유대 교육 서비스(Jewish Education Service of North America, JESNA), 유대교육의 우월성을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Excellence in Jewish Education, PEJE)과 유대교육 개선을 위한 연대(Coalition for the Advancement of Jewish Education, CAJE)이다. JESNA는 국가에서 유대인 교육을 위한 중앙기관을 조율하는 기구이다. UJC에 소속되어 있으며 지역 공동체의 자원으로 활동을 한다. CAJE는 미국 유대계에 있어서 가장 창의적인 기구중의 하나이며 유대계 학교에서 유대식 콘텐츠와 교수법 기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대계 교육자들의 회원제 기관으로써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활동과 국가 회의는 모든 유대계 교육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왔다. 마지막으로 PEJE는 미국의 사립 통학제 학교를 옹호하고 전문력을 제공하며 그랜트를 제공

하는 유대계 박애주자들의 협력체이다. 지금까지 이 분야에 1천 6백만 달러를 투자했고 150여 개 사립 통학제 학교에 지원을 제공했다.

지역차원에서 유대계 교육 이사회(Boards of Jewish Education, BJE)가 유대 교육자들, 유대계 기관 및 개별 유대인 공동체 회원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책임성에 있어서는 정도가 다양할지 모르지만 BJE는 교사를 선발, 훈련, 허가 및 지원을 제공하고 연방에 전략적인 교육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지원을 제공하고 학교 간 인력문제,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 지원을 촉진하며 적절한 기관에 배치하기 전에 혁신적인 시범 교육프로그램을 감독하는 기능을 한다.

문제를 탐구하고 다양한 교육 및 보고 서비스를 유대계 집단에 제공하는 사실상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기구가 배움과 지도력을 위한 전미 유대 센터(National Jewish Center for Learning and Leadership, CLAL)이다. CLAL은 다양한 유대계 전문가들에게 훈련을 제공하고 심포지엄과 회의를 주관한다. 웨クス너 헤리티지 재단(Wexner Heritage Foundation)은 유대계 공동체의 일반 지도자들에게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목적은 유대계를 잘 아는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함이다. 관련된 기관인 웨クス너 재단(Wexner Foundation)은 미국에서의 유대계 시민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학에서는 젊어진 Hillel: 유대계 대학생 생활 재단(이전에는 B'nari B'rith Hillel 재단)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에이전트 및 유대학생 기구의 조율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대계의 정체성과 미 대학에서의 학생 생활에 촉진제가 되어왔다.

공동체에서 지역의 유대계 공동체 센터는 다양한 사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아에서 노인층 및 가족에 이르기 까지 수혜자가 다양하다. JCC는 종종 유대계 개입과 공동체를 위한 비 종교적인 단체의 역할을 한다. JCC는 350개의 JCC, YM-YWHA 및 북미 전역에 걸친 캠프가 소속되어 있는 유대인 공동체 센터 하에 조직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1987년에 설치된 전미 유대계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소속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고, 창의적인 유대계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족 내부의 동화와 이민족과의 결혼을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유대 아웃리치 연구소(Jewish Outreach Institute)는 1988년에 설립되어서 공동체 기반의 프로그램과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이민족과 결혼한 가족들이 유대계의 삶에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3.3.8 문화와 유산

미국 유대계 문화 영역은 전미 유대 문화 재단(National Foundation for Jewish Culture)에 의해 조율 되고 다루어지며, 재단의 임무는 장학금과 예술 활동을 통해서 미국의 토착 유대 문화를 강화하고 증진시키는 것이다. 문화보존, 예술가적 창의성과 공동체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분야에서의 재단의 활동은 유대계 정체성과 연속성과 관련되어 중요해지고 있다.

유대 문화 기념재단(Memorial Foundation for Jewish Culture)은 Nahum Goldmandl 1965년 설치(Claims Conference로부터 천만 달러의 그랜트를 통하여) 하였으며 주 임무는 홀로코스트 후에 유대 문화를 재건하는 것이었다. 현재의 임무는 전 세계적으로 개인과 기관의 장학금 및 연구활동을 통하여 유대문화를 재건하고 강화하며 새롭게 하는 것이다.

3.3.9 여성기관

많은 여성 기관들이 미국 유대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에 1893년 설립되어 약 십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전미 유대 여성 위원회(National Council of Jewish Women, NCJW)가 포함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유대계와 일반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자신을 여기고

있다. 여성의 권리(특히 출산에 대한 선택)는 NCJW의 주요 어젠다이지만 위원회는 이스라엘, 민권과 사회적 및 경제적 정의와 같은 여러 문제들에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다. NCJW는 워싱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대부분 문제들에 있어서 진보 노선에 공격적인 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 하다. 미국 여성 ORT는 전 세계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는 국제 ORT와 연계된 기구 들 중에서 가장 활발하고 눈에 띄는 활동을 하고 있다. 1928년 설립되고 5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미국 여성 ORT는 세계적인 ORT 네트워크의 지원기관으로 미국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다루는 것을 의제로 택하고 있다.

Hadassah는 주로 시오니스트 기관으로 미국 시오니스트 사회의 쇠락 추세에서 예외적인 기관이다. 지난 25년간 하다사는 미국문제 위원회(American Affairs Committee)의 어젠다에 높은 우선순위를 주어 왔고 공동체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참여해 왔다. 중요한 것은 하다사가 3십 8만 5천명에 달하는 이런 종류의 기관 중에서는 최대의 유대인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때문에 미국에서 최대의 회원단체가 되었다. 따라서 하다사는 여러 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숫자의 회원들을 동원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공동체 관계에 있어서 잠재적으로 중요한 참여자가 되었다. 최근 몇 년간 하다사는 회원들의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다루어 야만 했었지만 이스라엘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영향력 있는 기관으로 남아있다. 이사회와 인력간의 역학관계에 있어서 하다사는 완전히 일반인이 주도하는 기구의 모델이며 일반인 지도자들이 행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3.3.10 새롭게 등장하는 기관들

미국의 다원주의 사회의 역학을 반영하듯이 미국의 유대계 공동체는 변화하는 니즈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정치적 견해에 발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구들을 창설해 냈다. 이 역학은 민주적인 다원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에 대한 대응이다. 당신이 당신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길을 건너가야 할 것이고 길 건너에서 찾은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난 15년간 미국의 유대계는 가족재단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을 지켜 보았다. 이미 널리 알려진 재단들로는 브론프만 가족, 스타인하르트, 웨クス너, 멘델, 찰스와 린 슈츠만 재단, 크라운(성서 재단), 다양한 체우어 재단, 나탄 커밍스 재단, 코렛 등이 있다. 가족 재단은 기부금에 대해 직접 통제력을 행사하고자(기부자가 명령을 내리는 기부) 등장하게 되었고 애초에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부유한 가족들에 대한 연계가 부족했었다. 이 재단 중의 대부분이 주로 유대계의 대의를 위한 기부를 하고 다른 재단은(커밍스가 좋은 사례이다) 재단의 이해가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만 유대계의 대의를 위한 기부를 한다. 가족 재단은 유대계 기부자 네트워크(Jewish Funders Network)라는 대표 단체 하에 험겁게 조직되어 있는데 이 네트워크는 유대계 기부자들이 기부활동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전략적이 되도록 돕고자 하는 중요한 박애 기관이다. 약 85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그들에게 지도력, 프로그램 및 정보를 제공하며 자산이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 유대인 공동체 어젠다에서 새롭게 등장한 문제는 홀로코스트를 기념하는 활동에 대한 것이다. 유럽의 유대인 제거를 기념하는 기관이나 기구의 확산, 예를 들어 워싱턴 D.C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 박물관과 쇼아 재단(생존자의 구술 역사를 수집하기 위한), 여러 도시에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 홀로코스트 기념비, 여러 대학에 있는 연구시설 등이 미국 유대계의 인식 속에 홀로코스트가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과 21세기 초반의 10년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스위스 금, 약탈된 예술품, 나치 정권과 협력 관계에 있던 중도파 국가들 및 독일에 있는 자산과 같은 물리적인 자산의 처분 등